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국 여성의 눈썹화장 연구

2009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김 미 경

중국 여성의 눈썹화장 연구

김 정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김 미 경

인 준 서

김미경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 대학원

논문개요

중국은 일찍이 주변국가와의 활발한 교류의 영향으로 화장품제조법과 화장양식 등 많은 화장문화를 쉽게 받아들였으며, 이러한 중국의 발달된 화장문화는 한국을 거쳐 일본에까지 전파되었다.

본 연구는 동양화장문화의 중심지인 중국의 화장문화 중 눈썹화장을 중심으로 시대·문화적 배경에 따른 눈썹화장의 변화양식에 대한 특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눈썹화장을 고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중국의 다양한 눈썹양식을 현대인의 얼굴이미지에 맞게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어 현대 화장문화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중국 여성의 눈썹화장의 변화양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고찰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및 범위와 제한점을 제시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중국의 화장문화의 발달과 특성을 알아보고 중국 문헌에 나타난 눈썹화장 및 인상형성에 미치는 눈썹화장의 역할과 의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여성 눈썹화장의 변화양상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국의 역사적인 시기를 고대(선진시대, 진·한시대)와 중세(위진남북조시대, 수·당시대, 송·원시대, 명·청시대)의 시기로 나누어 문헌기록과 회화 및 유물자료 등에 표현된 눈썹양식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위의 연구를 종합하여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눈썹화장의 양식은 역사, 종교, 철학사상 등의 문화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변화하였으며 그 시대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중국 여성의 눈썹양식에는 많은 명칭이 나타나는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눈썹의 길이,

눈썹의 굽기, 굴곡의 정도, 짙고 옅음의 정도, 그리는 위치에 따라 눈썹양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의 눈썹화장양식은 선진시대의 장미를 기본으로 하여 팔자미(八字眉), 수미(愁眉), 아미(蛾眉), 활미(闊眉) 등으로 다양하게 변형되어 나타났다. 또한 눈썹화장의 전성기인 한(漢)무제, 수(隋)양제, 당(唐)현종 시기에는 황제의 눈썹화장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색조화장에 비해 더욱 다양하고 화려하게 성행하였고, 눈썹화장은 궁중에서부터 시작하여 중국 전역으로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본 연구자는 중국 여성의 다양한 눈썹양식을 응용하여 현대인의 이미지와 성격에 맞는 눈썹형태를 제공함으로써 현대미용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동양문화의 중심지인 중국 화장문화의 발달과 특성	4
2. 문헌에 나타난 중국여성의 눈썹화장	16
3. 인상형성에 미치는 눈썹화장의 역할과 의미	19
III. 중국여성 눈썹화장의 변화양상	23
1. 선진시대 눈썹화장의 변화양상	25
2. 진·한시대 눈썹화장의 변화양상	27
3. 위진남북조시대 눈썹화장의 변화양상	33
4. 수·당시대 눈썹화장의 변화양상	35
5. 송·원시대 눈썹화장의 변화양상	45
6. 명·청시대 눈썹화장의 변화양상	49
IV. 결론	53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1> 중국여성의 지분 사용법	6
<표2> 눈썹형태	22
<표3> 중국의 역사 연대표	24
<표4> 한나라의 눈썹양식	30
<표5> 당나라의 눈썹양식	41
<표6> 당대부녀의 눈썹양식의 변화	42

그림 목 차

(그림1) 檀暈裝을 한 婦女, 宋人 <妃子浴兒圖>局部	12
(그림2) 桃花裝을 한 婦女, 新疆省唐墓出土의 <弈棋仕女圖>局部	12
(그림3) 중국역대여성의 점진양식	12
(그림4) 桃花裝, 花鈿을 한 婦女, 新疆省唐墓出土의 <弈棋仕女圖>局部	13
(그림5) 桃花裝, 花鈿을 한 婦女, 新疆省唐墓出土의 <弈棋仕女圖>局部	13
(그림6) 花卉狀의花鈿을 한 唐代 婦女	13
(그림7) 圓點形花鈿을 한 唐代 婦女	13
(그림8) 唐朝의 花田樣式 圖例	14
(그림9) 斜紅粧婦女	15
(그림10) 斜紅粧婦女	15
(그림11) 滿臉粧靨의 五代女性	15
(그림12) 滿臉粧靨의 五代女性	15
(그림13) 靑石黛硯	32
(그림14) 楚國의 長眉	32
(그림15) 楚國 婦女의 眉式	32
(그림16) 戰國時代 舞戲의 눈썹양식	32
(그림17) 漢나라의 八字眉	32
(그림18) 西漢婦女의 八字眉	32
(그림19) 위진남북조시대의 長眉	43
(그림20) 長眉의 仕女	43
(그림21) 唐代婦女의 柳眉	43
(그림22) 唐代婦女의 却月眉	43
(그림23) 中晚唐婦女의 八字眉	43
(그림24) 唐代婦女의 闊眉	43
(그림25) 唐代婦女의 闊眉	44

(그림26) 唐代婦女的 闊眉	44
(그림27) 晚唐五代婦女的 闊眉	44
(그림28) 唐代婦女的 闊眉	44
(그림29) 唐代婦女的 闊眉	44
(그림30) 晚唐婦女的 桂葉眉	44
(그림31) 宋朝婦女的 到暈粧	48
(그림32) 宋朝皇后	48
(그림33) 宋朝時代의 처진 눈썹	48
(그림34) 宋朝의 婦女	48
(그림35) 元代婦女的 一字眉	48
(그림36) 元代婦女	48
(그림37) 明朝婦女子의 눈썹	51
(그림38) 明朝婦女子의 눈썹양식	51
(그림39) 明朝婦女子의 秀美樣式	51
(그림40) 明朝婦女子의 秀美樣式	51
(그림41) 明朝皇后의 눈썹	51
(그림42) 明代 貴婦	51
(그림43) 明·清朝의 曲眉	52
(그림44) 清朝婦女的 眉式	52
(그림45) 清朝婦女的 眉式	52
(그림46) 淸少女의 눈썹	52
(그림47) 淸代皇后	52
(그림48) 淸朝의 太后	52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인류는 신체를 보호하고 장식하기 위하여 복식을 착용해왔다. 의복이 제2의 피부라면 얼굴에 입혀지는 화장도 또 다른 피부로써 의복 역할을 하며 복장을 정리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화장문화는 자신을 표현하고 정신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유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사회적 기능의 일부분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따라서 화장문화의 연구를 위해서는 각 시대의 사회 속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정치, 경제, 예술, 철학, 미의식, 가치관 등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중국은 일찍이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표방하였으며, 주변국가와의 활발한 교류의 영향으로 외래문화가 쉽게 유입되어 발달된 화장문화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화장문화는 한국을 거쳐 일본에까지 전파되어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지금까지 중국화장에 관한 기존 연구는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안인희는 선진시대부터 위진 남북조시대까지 중국 고대 여성의 화장의 역사를 시대별로 살펴보았으며¹⁾ 박보영은 한국, 중국, 일본 여성의 색조화장을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보고²⁾하였고, 김선영은 14세기에서 18세기를 중심으로 동양과 서양의 화장문화를 고찰³⁾하였으며, 심서주·박옥련은 고대 중국의 역사에서 화장이 가장 화려했던 당대의 화장문화를 고찰하여 보고⁴⁾하였으며,

1) 안인희, “중국 고대 여성 화장 문화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1호, 2005.

2) 박보영(1997), “한국·중국·일본여성의 색조화장문화”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3) 김선영(1992), “동·서양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4) 심서주·박옥련, “당대 화장문화에 관한 고찰”, 경성대학교논문집, 제20집 2권, 1999.

이순자는 당대(唐代)와 송대(宋代)의 면식(面飾)의 특성을 비교⁵⁾하였고, 박춘순·정복희는 중국에서의 연지화장의 전파시기와 배경을 알아보고 시대별 양상에 따라 고찰⁶⁾하였으며, 김소현은 당시대의 호복(胡服)에 관하여 보고⁷⁾한 연구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화장문화 중 눈썹화장을 중심으로 눈썹화장의 변화양상에 따른 특성을 시대별로 고찰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양(梁)원제(元帝) 소역(蕭繹:508-554)은 『代舊娘有怨詩』에서

怨黛舒怨斂, 원망하는 듯한 눈썹을 폼다가 다시 거두고

啼紅拭復垂. 울어서 붉은 눈을 닦고는 다시 눈물을 흘리네. 라고 하였다.

위의 시에서 알 수 있듯이 눈썹은 인간의 희로애락의 감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중국의 역대 여성들은 눈썹 그리는 것을 아름다움으로 삼고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중국 역사상 화장문화의 최대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당대(唐代)가 되면 귀족부녀자들에게 눈썹화장은 화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다른 화장은 하지 않아도 눈썹화장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⁸⁾ 또한 다른 화장에 비하여 가장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여 동시대에도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 시대의 심미적 관점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여성의 눈썹화장을 시대·문화적 배경에 따른 변화양상을 연구하여 정리하고, 중국의 눈썹형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을 제시하여 현대인의 얼굴이미지에 맞게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어 현대 화장문화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면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대 화장문화사 중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눈썹화장의 양식

5) 이순자, “당대와 송대의 면식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제8권2호, 1997.

6) 박춘순·정복희, “연지화장 연구 II- 중국에서의 연지화장 전파와 양상”,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1권 3호, 2006.

7) 김소현(1994), “당시대의 호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8) 박보영, 前掲書, p.51.

을 고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를 바란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제한점

본 논문의 시기적 연구범위는 화장문화에 관한 문헌기록이 나타나는 중국의 선진시대부터 진·한 시대까지의 고대시기와 위진남북조시대, 수·당 시대, 송·원 시대, 명·청 시대까지의 중세시기로 나누어 눈썹화장의 다양한 변화양상과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자료분석을 통한 文獻研究로 이루어졌다. 『초사(楚辭)』, 『설문해자(說文解字)』, 『박물지(博物志)』, 『한서(漢書)』, 『전당시(全唐詩)』 등 중국의 고문헌과 중국의 복식사, 풍속사, 문화사 등의 역사서를 비롯하여 연구 논문 및 정기간행물을 중심으로 중국여성의 눈썹화장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당시의 유물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복식 및 화장풍습의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의 생활상을 표현한 벽화, 도용, 인물화, 풍속화 등의 회화자료와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등을 보충자료로 하여 이를 분석정리 하였다.

분석된 대부분의 문헌자료는 원본을 복제한 영인본으로써, 그에 따른 해석상의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고문헌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여 정리하기 보다는 눈썹화장에 관련된 부분만을 해석함으로써 작가의 정확한 의도를 읽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I. 이론적 배경

1. 동양문화의 중심지인 중국의 화장문화의 발달과 특성

중국에서는 화장(化妝)을 향장(香妝), 장점(妝點), 장식(妝飾)이라 하였다. 역사상의 기록으로 보면 중국에서 미용과 화장술은 선진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초사(楚辭)·대초(大招)』에서는 “분 단장한 하얀 얼굴에 까만 귀밑머리, 꽃향기를 풍기네(粉白黛黑, 施芳澤只)”라고 하였으며, 『한비자(韓非子)·제19권·현학편(顯學篇)』에서는 “모장·서시의 아름다움은 내 얼굴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지와 분과 눈썹먹을 쓰면 그전보다 배나 아름다워지는 법이다(毛嬙西施之美無益吾面, 用脂澤粉黛則倍其初)”라고 하였다. 이는 그 당시에 이미 분바르고 연지 찍고 눈썹을 그리는 화장술이 있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 여성의 화장은 분과 연지를 함께 사용하여 얼굴의 피부색을 정하는 피부화장, 먹을 이용한 눈썹화장을 비롯하여 연지, 액황, 화전 등을 이용하여 볼, 이마와 입술에 장식하는 화장으로 나뉜다.

여기에서는 중국 여성의 화장품과 사용방법을 살펴보면서, 중국 문헌에 나타난 화장문화의 발달과 그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 분(粉)

중국에서 사용되었던 초기 화장품 중 하나인 분은 처음 상·주왕조시대 동안 사용되었다. 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쌀(米)이나 찹쌀, 밤 등의 곡식을 단순히 분쇄해서 만든 것으로 粉자는 ‘쌀가루’라는 의미인 ‘米’자와 ‘分’자가 합쳐 이루어진 것으로 미분(米粉)이라 불린다. 또 하나는 미분에 비해 부착력이 뛰어난 것으로 납과의 화학처리를 통하여 만들기 때문에

연분(鉛粉)이라고 한다. 분은 색상, 첨가물, 형태에 따라 나뉘며 색에 따라 백분과 색분, 납의 첨가여부에 따라 미분, 연분, 형태에 따라 분말, 고형, 액상으로 나뉜다. 미분은 재료의 구입이 용이하고 제조법이 단순한 반면 얼굴에 잘 퍼 발라지지 않고 날 비린내가 나는 단점이 있다. 미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납과 초를 섞은 연분이다. 漢代이후 연분은 대개 저장의 편리를 위하여 수분을 제거한 후에 분말 혹은 고체의 형상으로 제조하게 되었다.⁹⁾

『설문해자(說文解字)·칠편(七編)』 상(上)에서, “분은 얼굴에 바르는 것이다(粉, 所以傅面者也)”라고 하였고, 주(注)에서는 “옛날에 얼굴에 바르는 것으로 미분을 사용하였다(古傅面亦用米粉)”라고 하였다.

『박물지(博物志)·물류(物類)』에서는, “납을 태워 호분을 만들었다(燒鉛錫成胡粉)”고 하여 이를 호분(胡粉)이라 불렀다. 미분(米粉)을 『석명(釋名)·석수식(釋首飾)』에서, “분은 분이다. 쌀을 갈아서 분산한 것이다(粉, 分也. 研米使分散也)”라고 풀이 하였으며, 호분을 『석명·석수식』에서, “호는 호이다. 연지를 개서 얼굴에 도포하는 것이다(胡, 餽也, 脂和以塗面也)”라고 풀이 하였다.

2) 연지(燕脂)

불과 이마뿐 아니라 입술에도 사용하였던 연지는 일종의 홍색 안료로 여성 얼굴화장의 주요 용품이다. 연지는 중국 서북의 흉노지구의 언지산(焉支山)에서 생산되는데 원주민들이 염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연지라는 명칭의 유래가 붉은 화장의 원료인 홍화의 주생산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지는 주왕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흉남화의 즙을 응고시켜 연지를 만들었다. 연 지방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연지라고 이름 하였다(燕脂蓋起

9) 周汎·高春明, 『中國歷代婦女裝飾』(學林出版社, 1998), p.118.

自紂，以紅藍花汁擬作燕脂。以燕國所生，故曰燕脂)”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화장법을 도화장(桃花粧)이라 하였다¹⁰⁾. 한초 이후 중국부녀자들의 화장은 연지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풍부해지기 시작하였다. 연지는 분과 조화시켜서 사용하였는데 뺨 부위의 안색이 너무 희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하였다. 한대 이후 부녀자의 붉은 화장법은 나날이 발전하여 연지와 분을 병용하여 사용하였다. 연지와 분을 이용하여 얼굴색을 표현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표 1>의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표1> 중국여성의 지분(脂粉) 사용법¹¹⁾

명칭	화장법	대상	효과
단훈장 (檀暈粧)	화장 전에 미리 연지와 분을 혼합한 단훈색 분을 직접 얼굴에 바르는 것	중년 이상의 부녀자	장중하고 우아하며 침착한 감각
도화장 (桃花粧)	백색 분을 먼저 바른 후 연지를 바르는 화장법	젊은 부녀자	뺨의 홍색이 강조되어 경쾌
비하장 (飛霞粧)	연지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백색 분을 가볍게 바르는 화장법	노인들에게 적합	화사

단훈장은 화장 전에 먼저 연지와 납분을 조합하여 분홍색을 만든 후 단분(檀粉)을 얼굴에 바르는 것이다. 이러한 화장법은 (그림1)과 같이 얼굴에 바르기 전 이미 하나의 색으로 조합되어 있어서 색채의 통일로 인해 얼굴전체의 색도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정갈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주는 효과가 높아 중년이상의 부녀자들에게 이용되었다.

(그림2)의 도화장은 백분을 먼저 바른 후 연지를 바르는 화장법이다. 그 위치는 양 뺨에 집중되기 때문에 붉은색이 짙게 나타나고 전체 얼굴과의 색상차이가 두드러져 경쾌하게 보이므로 젊은 여성들에게 애용되었다.

10) 宋 葉庭珪 『海錄碎事·卷五·衣冠服用部·釵珥門』(上海古籍出版社, 1991), p.201.

11) 周汛·高春明, 前掲書, p.119.

비하장이란 먼저 얼굴부위에 연지를 바르고 그 다음에 백분을 가볍게 바르는 화장법으로 화사하게 보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노부인에게 적합하였다. 각종의 화장술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장필(張泌)의 장대기(粧臺記)에 비하장(飛霞粧)은 “얇게 연지를 바르고 분으로 얼굴을 바르는(構構施朱, 以粉暈之)”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홍장이외에 고대여성들은 백장을 하기도 하였다. 백장은 연지를 사용하지 않고 납분으로만 하는 흰색화장을 말하며 젊은 과부에게 사용되었다.

3) 미묵(眉墨)

중국 고대 여성들의 색조화장 중에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눈썹을 그리는 일이었다. 중국 여성들이 눈썹을 그리는데 사용한 재료는 석대라는 광물로 간단히 '대(黛)'라고 한다.

사용할 때는 반드시 먼저 돌벼루에 갈아서 분말을 만든 후에 물을 섞는다. 漢代의 눈썹벼루는 중국 남북각지의 漢墓 속에서 항상 발견된다. 예를 들면 江蘇省 泰州 新莊 東漢墓 후한시기 묘에서 출토된 물건은 장방형으로 길이 10cm, 넓이가 5cm, 두께가 0.5cm인데 그 중 한 면은 비교적 투박하고 다른 한 면은 평평하다. 평평한 면은 가는 모래모양으로 가공되어 미끄럽지 않은 연마용으로 제조되었는데 출토된 눈썹벼루 표면에서 점착력이 있는 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도 있다. 광서성(廣西省) 귀현(貴縣) 나박만(羅泊灣) 1호 漢墓에서 발견된 흑색의 석대는 부녀자들의 소장용 빗 함안에 담겨 있었는데 출토 시에 이미 풍화되어 버렸다.

수당이후 부녀자들이 눈썹을 그릴 때 '나대(螺黛)'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가공과 제작과정을 거쳐 각종의 고정 형성된 먹덩어리로 물에 담가 바로 사용했으며 석묵(石墨), 화미묵(畫眉墨)이라 하였다.¹²⁾ 송대에 이르러 색

이 좋고 섬세하며 사용이 편리한 연묵(烟墨)이 발명되어 나대를 대신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중국여성의 화장문화사상 눈썹양식의 변화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漢무제, 隨양제, 唐현종시기이다.¹³⁾

4) 입술연지

고대 중국 부녀자들의 얼굴화장 중에 입술을 그리는 풍속이 있다. 이것을 점진(點唇)이라고 하는데 진지(唇脂:입술연지)를 입술 위에 바르는 것을 말한다. 원래 입술화장은 북방 유목민족의 풍습이었는데 강렬한 태양빛이나 한풍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적인 목적에서 발생한 것이다.

입술연지의 주원료는 단(丹)이며, 홍색의 광물질 안료로 주사(硃砂)라고도 하며, 이 자체는 점성이 없으므로 적당량의 동물기름을 첨가하여 제조하여 방수의 성능과 색채의 광택을 더하게 하였다.

당나라 18대 희종(僖宗), 19대 소종(昭宗)에 이르러 여성들이 입술에 연지를 바르는 화장법¹⁴⁾이 생기고 이런 풍속이 점차 도시에 유행하게 되고 입술화장은 미인과 추녀를 판가름하게 하는 기준이 되었다.

중국여성들의 입술 그리는 방식은 귀엽고 농염한데 기본적인 특징은 불변하였다. 이상적인 입술의 형태는 앵두 같은 입술이며 본래의 입술의 형태를 따르지 않고 더 작게 그리거나 새로운 형태를 추구하였다. 백거이(白居易)의 가기(家伎)인 번소(樊素)의 입술이 이상적인 아름다운 입술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하여 “앵두 같은 번소의 입술(櫻花樊素口)”¹⁵⁾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입술에 바르는 연지는 그 농담의 차이에 따라 명칭도 각기 다르다. 그 종류를 들면 연지운품(胭脂暈品)·석류교(石榴嬌)·대홍춘(大紅春)·소홍춘(小紅

12) 周汎·高春明, 前掲書, p.126.

13) 김서주·박옥련, 前掲書, p.361.

14) 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일지사, 1988), p.319.

15) 周汎·高春明, 前掲書, p.135.

春)·눈오향(嫩吳香)·반변교(半邊橋)·만금홍(萬金紅)·성단심(聖檀心)·노주아(露珠兒)·내가원(內家圓)·천궁교(天宮巧)·각아은(恪兒殷)·담홍심(淡紅心)·성성운(猩猩暈)·소주룡(小朱龍)·격쌍당(格雙唐)·미화노(眉花奴) 등이 있었다.¹⁶⁾

사회기풍의 변화와 심미안의 변천에 따라 사람들의 입술 그리는 형식 또한 변화를 가져왔고 각 시기에 따라 입술 그리는 양식이 특징을 갖추었는데 (그림3)과 같다.

원화(元和) 말기(806-820) 토번 등의 외적이 들어와서 황제 헌종이 환관에게 암살되는 불행한 시대에는 어두움을 상징하는 화장법으로서 붉은 기를 없앤 오고를 입술에 바르는 일이 유행하였다.¹⁷⁾

5) 액황(額黃)

액황(額黃)은 아황(鵝黃),아황(鴉黃)이라고도 하며 오래된 화장법으로 황색의 안료를 이마에 그려 넣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 부녀자들이 이마 부분에 황색을 칠하는 것은 남북조시대부터 유행한 풍습으로 불교의 유행과 관계가 있다. 남북조시대는 불교의 전성기였는데, 부녀자들은 금색을 칠한 불상에서 영감을 얻어 이마에 황색을 칠하게 되었고 시간이 오래지나 황액의 풍습이 형성되었다. 문헌기록을 보면 이마부분을 누렇게 화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염화(染畫)로써 황색의 염료를 묻혀서 이마에 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찰진 것을 붙여서 완성하는 방법이다. 염화법에 비하여 점첩법(黏貼法)은 비교적 간단하다.¹⁸⁾

6) 화전(花鈿)

화전(花鈿)은 (그림4),(그림5),(그림6),(그림7)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미간이나

16) 陳東原, 『中國婦女生活史』(臺灣商務印書館, 1990), p.103.

17) 杉本正年, 문광희역, 『동양복장사논고 -중세편』(경춘사, 1997), p.212.

18) 김서주·박옥련, 前揭書, pp.369-371.

뺨에 꽃, 달, 별 등의 무늬를 그려 넣는 화장으로 이마에 하는 것을 화전, 뺨에 하는 것을 엽전(靨鉤)이라 한다. 화전의 색채는 액황에 비하여 풍부하고 많았다. 액황은 일반적으로 한 가지 색만을 사용하는데 반하여 화전은 많은 색이 사용되었고 화전의 색채는 재료 자체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한 각종의 안료로 염색이 가능하여 가장 채색이 정밀하고 아름다운 것은 취전(翠鉤)으로 각종 새의 깃털로 제작하는 것으로 청록색을 띤다. 화전을 붙이는 풀물은 아교(阿膠)이며 물고기 부레로 제조되는데 그 점성이 매우 뛰어나며 사용할 때에는 입감을 붙거나 소량의 침을 바르면 곧 점액이 용해되어 붙게 되며, 화전을 떼어낼 때에는 약간의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곧 벗어졌다. (그림8)은 화전양식을 나타낸 것으로 형태와 색상의 다양함을 볼 수 있다.

7) 사홍(斜紅)

(그림9),(그림10)의 사홍(斜紅)은 여인들의 뺨에 붙이는 부분화장이다. 당대의 고분에서 출토된 여자 인형을 보면, 얼굴에 두 줄기의 붉은색 초승달 모양이 그려져 있는 것이 보인다. 이런 화장은 선명하여 형상은 괴이하다. 어떤 것은 고의로 파괴된 형상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멀리서 보면 희고 깨끗한 뺨 위에 양쪽에 상처흔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런 장식을 ‘사홍’이라고 한다. 이는 고대에 유행하였던 분장으로 궁중의 무희 뿐만아니라 명문귀수까지 행한 것으로 고대 사회의 심미적 정취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

8) 면엽(面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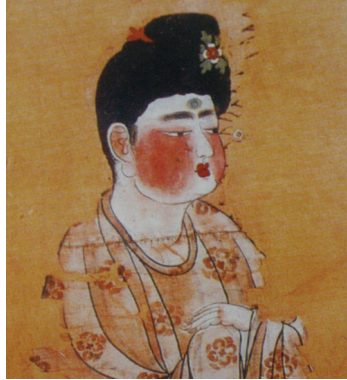
뺨의 보조개에 하는 장식으로 장엽이라고 한다. 화전과 마찬가지로 장엽도 서역의 호속(胡俗)에서 시작 된 것이다.¹⁹⁾

19) 杉本正年, 문광회역, 前掲書, p.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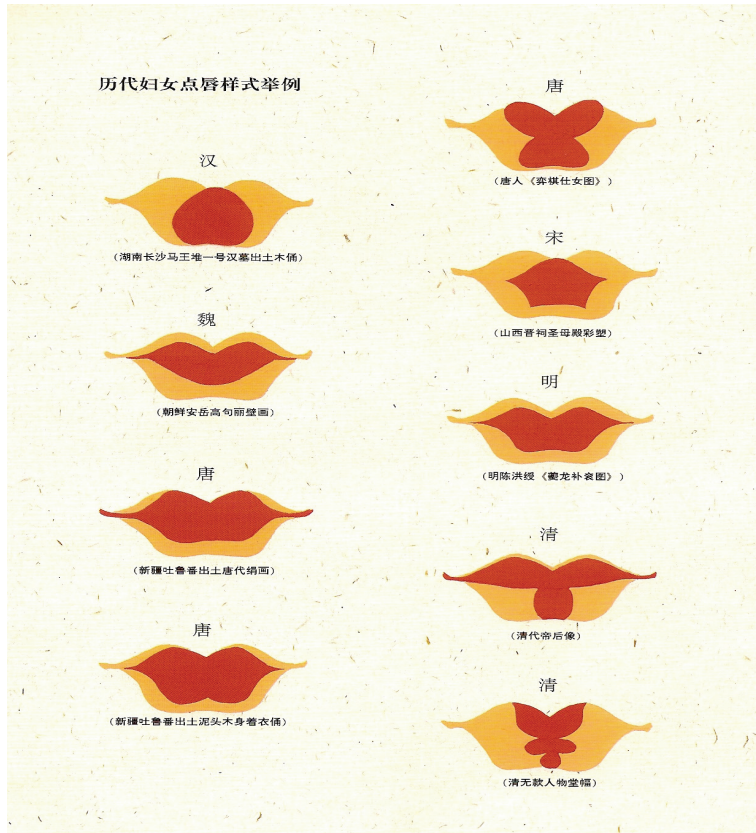
고대에는 적(的)이라고 하였으며 여인들이 뺨 위에 적을 바르는 것은 원래 화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중생활 중의 일종의 특수한 표기였던 것이 민간에 전해지면서 점차 일종의 화장법으로 변한 것이다. 면엽의 모양은 당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콩 모양 크기로 두 개의 둥근 점을 찍었다. 당 이후 면엽의 부위는 넓어지고 다양해졌다. 만당오대이후 정치 경제 등에 의해 복장 형식은 보수적으로 변하나 장식풍조는 오히려 만연되어 이 시기에는 전통적인 원점, 화훼 외에 새, 짐승의 도형, 심지어는 이러한 무늬들을 얼굴 가득히 붙이기도 했는데 (그림11)과 (그림12)의 벽화 중에 잘 나타나있다.



(그림1) 檀暈裝을 한 婦女
宋人 <妃子浴兒圖>局部



(그림2) 畫桃花裝을 한 婦女
唐人 <弈棋仕女圖>局部



(그림3) 중국역대여성의 점진양식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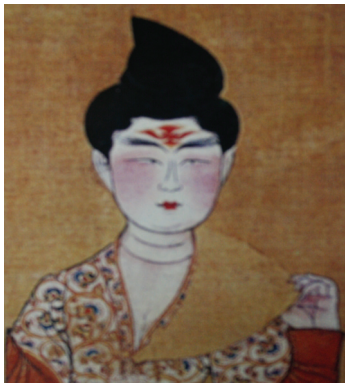
20) 李秀蓮, 『中國化妝史概設』(中國紡織出版社, 2000), p.100.



(그림4) 桃花裝, 花鈿을 한 婦女
新疆省唐墓出土의 弈棋仕女圖



(그림5) 桃花裝, 花鈿을 한 婦女
新疆吐魯番唐墓出土<弈棋仕女圖>局部



(그림6) 花卉狀的花鈿 唐代 婦女
新疆吐魯蕃阿斯塔那唐墓出土絹畫



(그림7) 圓點形花鈿的 唐代婦女
新疆 吐露唐墓出土泥俑



(그림8) 당조의 화전 양식 도례21)

21) 李秀莲, 前掲書, p.55.



(그림9)斜紅粧婦女, 新疆吐魯蕃阿斯塔那唐墓出土 泥頭木身俑



(그림10)斜紅粧婦女
新疆吐魯蕃阿斯塔那唐墓出土絹畫



(그림11)滿臉粧靨的 五代女性
敦皇幕高窟61窟 供養人壁畫



(그림12)滿臉粧靨的 五代女性
敦皇幕高窟61窟 供養人壁畫

2. 중국문헌에 나타난 눈썹화장

“눈썹이 눈썹을 그리는 푸른 먹과 같다(眉似翠黛)”, 또는 “눈썹이 춘산을 재촉한다(眉蹙春山)” 등은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를 눈썹의 모양으로 형용하여 묘사한 것이다.

『시경(詩經)』에 제강장(齊莊姜)의 아름다움에 대해 노래한 시중에 아미(蛾眉)라는 표현이 있다. 이것은 두 눈썹에 대한 묘사로서 여인의 눈썹이 누에나방의 촉수처럼 가늘고 길며 구불구불하다는 것이다. 매승(枚乘)의 『칠발(七發)』에서는, “하얀 이와 아름다운 눈썹(皓齒蛾眉)”라고 하였고 『이소(離騷)』에서는, “못 여인들은 나의 아름다운 눈썹을 질투하네(衆女嫉余之蛾眉兮)”²²⁾라고 하였다. 따라서 아미는 후세에 미인을 일컬을 때 미인의 대명사로 사용하였다. 사람들의 눈썹과 눈의 아름다움에 대한 숭상은 여성으로 하여금 눈썹에 대한 수식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부녀자들에게 눈썹을 그리는 풍습이 나타나게 하였다.

분대(粉黛)의 본래 의미는 분과 눈썹을 그리는 먹을 이르는 말이지만 화장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 아름답게 화장을 한 미인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로써 분대 즉 얼굴에 분을 칠하고 눈썹을 그리는 일이 화장의 중심적인 행위이며, 화장품에 있어서 분과 눈썹을 그리는 먹이 중요한 화장품의 종류임을 알 수 있다.

徐陵의 『玉台新詠』序에는, “남조에서 생산되는 먹은 이마를 곱게 그려주고 북방연지산에서 나는 연지의 홍은 보조개를 만드는데 뺄 수 없는 것이다(南都石黛最發蛾 北地燕支偏開兩靨)”라고 읊고 있다.²³⁾

宋玉의 『신녀부(神女賦)』에서 “눈썹은 예쁘게 연이어 누에나방이 되어 나르네, 붉은 입술은 단과 같도다(眉聯娟以蛾張, 朱唇的其若丹)”²⁴⁾라는 기록

22) 『全唐時 卷184』, p.1882.

23) 杉本正年, 문광희역, 前掲書, p.56.

이 있다.

당나라 宇文士의 『粧臺記』에는, “진시황이 궁에서…… 모두 붉게 화장을 하고 먹으로 눈썹을 그리게 했다(始皇宮中……皆紅粧翠眉)”라고 하였다.

주경여(朱慶餘:799-?)는 『시험에 임박하여 수부원의랑 장적에게 바치노라(近試上張籍水部)』²⁵⁾의 시에서

“妝罷低聲問夫, 화장을 마치고 나지막히 남편에게 묻기를

畫眉深淺入時無, 눈썹 화장 정도가 유행에 맞느냐고”

비록 위의 시는 과거시험을 앞두고 장적에게 자기의 능력을 평가받고 싶어 시집 온 새댁의 긴장된 마음을 여성의 화장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이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은 화장 중에서도 눈썹화장에 더욱 신경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눈썹화장이야기는 『漢書·권76·장창열전(張敞列傳)』의 기록에 나온다. “장창은 위엄이 없어 때때로 조회를 과하고 나면 말을 타고 장대가 돌아다녔고, 마부에게 수레를 달리게 하면서 자기의 부채로 말을 때리기도 하였다. 또는 아내에게 눈썹을 그려주기도 하였는데 장안 사람들은 ‘장 경조운의 눈썹이 아름다워’라고 수근 거렸다. 법관이 이일로 장창을 탄핵하였다. 천자가 그에게 물으니 장창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소신이 듣기에 규방에서 부부사이에는 눈썹을 그리는 것 이상의 일이 있다고 합니다’(敞無威儀. 時罷朝會, 過走馬章臺街, 使御史驅, 自以偏面柎馬. 又爲婦畫眉, 張安中傳‘張京兆眉撫’. 有司以秦敞, 上問之, 對曰:“臣聞閨房之內, 夫婦之私, 有過於畫眉者.”)’”라고 하였다. 이에 황제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한다. 장창이 자신의 처에게 눈썹을 그려줄 때 사용한 붓은 ‘대라’ 혹은 ‘대(黛)’이다. 이는 원래 청록색의 안료인데 화가들이 주로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였고 여성들도 이것으로 눈썹을 그렸다. 『석명(釋名)·석수식(釋首飾)

24) 『文選 권19』(中華書局, 1977), p268.

25) 『全唐詩 권 515』, p.5892.

)』 26)에서, “대는 대이다. 눈썹 털을 제거하고 눈썹먹으로 그곳에다 대신 그려 넣는다(黛, 代也, 減眉毛去之, 以此畫代其處也)” 라고 하였다. 따라서 ‘대’는 여성의 대명사가 되었다.

도연명(陶淵明:365-427)은 한정부(閑情賦)에서, “원컨대 눈썹이라면 눈썹먹이 되어, 바라보는 눈짓을 따라 움직이고 싶다(願在眉而爲黛, 隨瞻視以閑揚)”라고 하였다.

한유(韓愈:768-824)는 『반곡으로 돌아가는 이원을 전송하며 쓴 서문(送李願歸盤谷序)』에서

“粉白黛綠者, 列屋而閑居. 분 바르고 눈썹 그려 곱게 분단장한 희고 고운 미녀들이 집안에 줄지어 한가로이 거주한다.” 고 하였다.

지금까지 눈썹화장에 관련된 문헌기록을 살펴보았다. 눈썹화장의 양식은 다른 부분의 화장에 비해 많은 변화를 지니고 있어서 시대별에 따른 차이 뿐 아니라 동시대에도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26) 劉熙, 『釋名, 卷4』(商務印書館叢書集成本), p.76.

3. 인상형성에 미치는 눈썹화장의 역할과 의미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여러 형태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 영위되고 있다. 때문에 사람들은 나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형성되어 상호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길 바란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만남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첫 만남에서의 좋은 이미지는 이후의 관계를 달라지게 한다. 외모와 표정, 스타일, 분위기, 옷차림 등 시각적인 요소들이 첫인상을 좌우한다. 특히 첫인상에서 얼굴은 그 형태학적 특성에 따라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성격, 심리상태, 생활상 등을 나타낸다.

또한 현대와 같은 속도의 시대에는 상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외모가 중요하며, 사람들은 그것이 곧 경쟁력이고 자본이라는 사회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화장은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개성을 살리고 얼굴의 결점을 감소시키면서 장점을 돋보이게 하여 좀 더 아름답게 가꾸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화장은 사회적 이미지를 유지해가는 수단이며 특히 눈썹화장은 매력적인 얼굴인상을 만드는 중심이 되기도 한다.²⁷⁾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일컬어지며 대인관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 마주치는데 시선의 위치는 눈과 눈 사이 즉, 눈썹과 눈썹사이의 미간을 말한다.

눈썹은 얼굴의 상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얼굴의 형태미에 영향을 끼친다. 여성이 화장을 할 때 쉽게 변형시켜 목적인 바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 눈썹이다. 곡선, 직선, 각진 선 등을 만들어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위치, 각도, 크기, 방향을 조절하여 얼굴의 구도에 착시현상을 일으키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또한 눈썹에 색을 부여하여 농담을 조절하고 눈

27) 조용진, 『얼굴-한국인의 낯』 (서울:사계절, 2000), p.34.

과의 조화와 강약의 변화를 줄 수도 있으며 눈썹은 사람의 의지와 성격을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눈썹은 근육의 영향으로 눈과 쌍을 이루고 이것이 상황에 따라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표현해내는 눈썹의 형태를 만들어 얼굴의 표정을 쉽게 바꿀 수 있다. 색조화장이 자신만의 컬러로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게 만든다면, 눈썹화장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상을 선명하게 심어줄 수 있는 공로자이다.²⁸⁾

인상학에 있어서, 사람의 이마 밑에 있는 눈썹은 형상에 따라 인간의 성격과 명운을 달리하고 지배한다. 눈썹은 수명의 장단과 형제간의 인연, 친밀과 소원, 또 지혜의 현우, 즉 총명도를 살피고 빈부의 상을 가려내며 노후의 고독을 예견하고 나아가 정력의 강약과 이성 관계를 떠보는 중요한 포인트로 삼는다. 인상학적으로 김성현의 『한국인의 얼굴·한국인의 운명』 속에는 많은 종류의 눈썹을 제시하고 있다.²⁹⁾ 그러나 눈썹의 형태는 6가지 유형이 일반적이다.

기본형 눈썹은 약간 위로 눈 모양을 하고 올라가다가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며 내려온 경우이며, 직선적인 눈썹은 일명 일자눈썹이라고 불리는 모양으로 눈썹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의 차이가 별로 없다. 화살모양 눈썹은 위로 솟은 정도가 심해 화살이 날아가는 모양으로 생긴 눈썹이다. 눈썹의 시작부분과 끝나는 점의 높이가 거의 같다. 아치형의 눈썹은 둥근 다리 형태의 눈썹으로 눈썹의 시작점과 끝나는 점의 높이가 거의 같다. 각이 진 눈썹은 눈썹이 평범하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꺾어진 형상을 한 눈썹이다. 처진 눈썹은 일반적인 눈썹형태의 반대 형상을 띠고 있다. 눈썹 시작 선에서 아래로 완전히 처진 눈썹이다. <표2>는 6가지 눈썹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얼굴형에 따른 눈썹화장의 이미지에 대하여 둥근 얼굴형과 오각형 얼굴에는 기본형의 눈썹화장이 가장 잘 어울리며, 긴 얼굴형에는 직선형의 눈썹

28) 신단주, 『메이크업아카데미』(웅진출판(주), 1996), p.77.

29) 김성현, 『한국인의 얼굴·한국인의 운명』(동학사, 1992), pp.178-190.

화장, 역삼각형과 사각형의 얼굴에는 아치형 눈썹화장이 잘 어울리며, 얼굴형과 상관없이 아치형의 눈썹은 젊고 귀엽고 청순하고 따뜻한 이미지가 가장 잘 표현되고 있으므로 얼굴형보다는 눈썹화장이 얼굴이미지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눈썹의 방향성에 따라서의 이미지의 변화는 처진형 눈썹화장은 나이가 들어 보이고 촌스럽고 둔하고 답답하고 소극적인 이미지가 강하며, 화살형 눈썹은 예리하고 시원하고 차가운 이미지로 보인다. 또한 눈썹 산의 각이 꺾일 수록 요염한 이미지가 강하고 눈썹 산이 수평일수록 답답한 이미지가 강하다.³⁰⁾

이러한 이유로 최근 연기자들은 눈썹을 이용해 개성 강한 캐릭터를 표현하려 한다. 최근 연기자들은 새 작품에 들어갈 때마다 눈썹에 손을 대는 이유는 눈썹의 굵기와 모양에 따라 인상과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눈썹을 뽑고 화장을 하는 것은 여자 연기자뿐 아니라 남자 연기자들도 눈썹 모양을 새롭게 만들면서 눈썹화장으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³¹⁾

이상의 결과, 인상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각자 개개인의 얼굴형을 제대로 파악하고 눈, 코, 입, 등의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와 균형을 이루는 눈썹화장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눈썹의 각도, 눈썹꼬리의 방향, 눈썹색상 등 눈썹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눈썹화장을 해야 할 것이다.

30) 강은주, 눈썹화장이 얼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패션뷰티학회지3(2), 2005, pp.34-36

31) 송은주, 스포츠서울닷컴, 2008.10.11.

<표2> 눈썹의 형태³²⁾

명 칭	눈썹 형태	이 미 지
기본형 (표준형)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의 눈썹이며 어떤 형에나 잘 어울린다.
직선형 (일자형)		남성적인 느낌의 눈썹이며 젊고 신선해보이며 장방형의 얼굴에 적당하다.
화살형 (상승형)		개성 있고 동적인 느낌이며 둥근 얼굴이나 턱이 각진 얼굴에 잘 어울린다. 눈이 작아 보인다.
아치형		여성적이며 안정된 느낌과 눈이 커 보인다. 이마가 넓은 사람, 턱이 각진 사람, 역삼각형, 다미아몬드 형에 어울린다.
각진형 (갈매기형)		단정하고 세련된 느낌의 눈썹. 여성적이며 어른스러워 보이기도 하므로 오피스 makeup에 적당하다. 둥근얼굴, 삼각형 얼굴
처진형		나이 들어 보이며 둔하고 답답하며 소극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32) 강경화, 『메이크업 총론』 (APC, 2000), p.50.

Ⅲ. 중국여성 눈썹화장의 변화양상

중국의 역사적 시기를 <표3>과 같이 중국화장의 기반이 마련되었던 선진시대, 서역과의 교역을 통해 서역의 화장문화를 받아들인 한나라를 중심으로 서술한 진·한시대의 고대 시기와, 한나라의 화장양식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위진남북조시대, 수·당시대, 송·원시대, 명·청시대인 중세의 시기로 나누었다. 본 논문에서는 시대·문화적 배경에 따른 중국 여성의 눈썹화장의 특성을 살펴보고 문헌기록에 표현된 눈썹양식에 대하여 고찰 하고자 한다.

<표3> 중국의 역사 연대표

선진시대	하(夏)		약 B.C 2세기 - 약 B.C 16세기
	은(殷)		약 B.C 16세기 - 약 B.C 11세기
	서주(西周)		약 B.C 11세기 - 약 B.C 771년
	동주(東周)	춘추(春秋)	B.C 770년 - B.C 476년
전국(戰國)		B.C 475년 - B.C 221년	
진한시대	진(秦)		B.C 221년 - B.C 206년
	한(漢)	서한(西漢)	B.C 206년 - A.D 23년
		동한(東漢)	A.D 25년 - 220년
위진남북조시대	삼국(三國)	위(魏)	220년 - 265년
		촉(蜀)	221년 - 263년
		오(吳)	222년 - 280년
	진(晉)	서진(西晉)	265년 - 316년
		동진(東晉)	317년 - 420년
		16국(十六國)	304년 - 439년
	남조(南朝)	송(宋)	420년 - 479년
		제(齊)	479년 - 502년
		양(梁)	502년 - 557년
		진(陳)	557년 - 589년
	북조(北朝)	북위(北魏)	386년 - 534년
		동위(東魏)	534년 - 550년
		서위(西魏)	535년 - 557년
		북제(北齊)	550년 - 577년
		북주(北周)	557년 - 581년
수당시대	수(隋)		581년 - 618년
	당(唐)		618년 - 907년
	오대십국(五代十國)		907년 - 979년
송원시대	송(宋)	북송(北宋)	960년 - 1127년
		남송(南宋)	1127년 - 1279년
	요(遼)		916년 - 1125년
	금(金)		1115년 - 1234년
	원(元)		1271년 - 1368년
명청시대	명(明)		1368년 - 1644년
	청(淸)		1644년 - 1911년

1. 선진시대 눈썹화장의 변화양상

선진시대는 황하문명을 중심으로 고대국가의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중국문명사에서 최초로 고대국가체제를 갖춘 하(夏), 은(殷), 주(周)를 비롯하여 제(齊), 진(晉), 초(楚), 연(燕), 조(趙), 위(魏), 한(韓)의 7개국이 각기 패권을 다투던 춘추전국시대(B.C 722-B.C 221)를 거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B.C 221)하기 이전까지를 선진시대라 일컫는다. 선진시대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하였으며 철제도구의 사용으로 생산력이 증대되는 시기였다. 문화적으로는 중국문화사의 기본적인 형식의 토대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선진시기의 눈썹을 그리는 풍습은 일찍이 주왕조(周王朝)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여진다. 선진시대 사람들은 양 눈썹을 운명의 시작이라는 표면적 상징의 의미로 생각하여 자연스럽게 ‘미목(眉目)’의 장식에 의미를 두게 되었다. 『초사』, 『한비자』 등의 문헌에 보면, ‘분백대흑(粉白黛黑)’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눈썹을 그리는 재료로는 대(黛)가 위주이고 이는 화미(畫眉)를 나타낸다(그림13). 이 시기의 구체적인 눈썹형태를 제시하는 유물을 살펴보면, (그림14)의 하남성(河南省) 신양현(信陽縣)의 전국묘(戰國墓)에서 출토된 옷칠을 한 목우(木偶)와 (그림15)의 호남성(湖南省)의 전국묘에서 출토된 중국 최초의 견본화(絹本畫)가 있다. 또한 전국시대 무희들의 모습의 유물인 (그림16) 등에서 제시된 눈썹의 형태는 비록 넓고 좁은 정도의 두께와 곧고 굽은 굴곡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일종의 장미(長眉)로 표현된 눈썹양식이다.

이와 같이 선진시대의 중국인들은 형태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으나 긴 눈썹을 그리고 눈썹을 굽고 진하게 치장한 흔적이 보인다.

선진시대 부녀자들의 눈썹을 그리는 방식은 눈썹을 깨끗하게 없앤 후 원래의 눈썹 위치에 원하는 눈썹 형태를 만들었다. 『楚辭』에서 말하는 “아

미(蛾眉)”역시 선진시대의 눈썹형태인 가늘고 긴 눈썹 양식과 일치 한다.

장미(長眉)에 관련 된 문헌 기록을 보면,

서진(西晉) 최표(崔豹)의 『고금주(古今註)·잡주(雜註)』(사부총간본)의 기록에 의하면, “위나라 궁녀들은 긴 눈썹 그리는 것을 좋아하였다(魏宮人好畫長眉)”라고 하였으며 사마상여(司馬相如: B.C 179-117)의 『상림부(上林賦)』에서는, “긴 눈썹은 굽고 가늘며 빛나는 눈동자는 멀리 바라본다.(長眉連娟, 微睇綿貌)”라고 하였다.

이상은은 『무제2수(無題二首)』³³⁾에서, “여덟 살에 거울을 몰래보며 긴 눈썹을 그릴 수 있었네(八歲偷照鏡, 長眉已能畫)”라고 하였고 또 『나비3수(蝶三首)』³⁴⁾에서, “긴 눈썹을 그리고 나서 수놓은 발을 열어 짓히고(長眉畫了繡簾開)”라고 하였다.

진도옥(秦韜玉)은 『빈녀(貧女)』에서, “두 눈썹 길게 그리는 화장 자랑하지 않는다(不把雙眉鬪畫眉)”라고 하여 가난한 처녀의 소박한 심성을 격찬하였다.

33) 『全唐詩 卷 539』, p.6165

34) 『全唐詩 卷 539』, p.6165

2. 진(秦)·한(漢)시대 눈썹화장의 변화양상

진나라가 통일한 이후부터 동한이 멸망하는 220년까지를 진·한 시대 라 한다. 진(秦, B.C 221년- B.C 206년)은 시황제에 의해 전국시대를 통일한 제국이며 한(漢, B.C 206년- B.C 220년)은 진 이후 중국의 통일 왕조이다. 진나라는 통일을 이룩하였으나 지나친 노역과 무거운 세금을 인민들에게 부여하여 2대에 이르러 멸망하였다. 한 왕조는 약 400년간 지속 된 중국의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시기 중의 하나이고 오늘날에 중국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한족 역시 이 한 왕조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전한(前漢)왕조는 기원 8년 외척 왕망(王莽)의 반란에 의해 멸망되고, 왕망은 신(新)을 건국했으나 불과 17년으로 망하고, 기원25년 한실의 일족인 유수(劉秀)가 일어나 한조(漢朝)를 재흥하여 도읍을 하남성의 낙양(洛陽)으로 옮겼다. 이 낙양 왕조를 후한이라고 하며 동한(東漢)이라고도 한다. 후한은 14대의 헌제(獻帝)에 이르러 위(魏)에게 멸망(B.C 220년)된다.

이 시대에 중국은 유교를 공식 국교로 승인하고 국가의 기본 체제를 정비하였다. 인구는 5천만에 달했으며 농업, 수공업, 상업 등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갔다. 이러한 문화적 발전은 주위의 한반도, 베트남, 몽골, 일본, 중앙아시아 등의 주변 국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진나라에 비하여 한나라는 대부분 옛것을 따르면서 경제회복과 사회안정을 이루어 나갔다. 한 무제 때는 실크로드를 통하여 서역과의 무역이 활발해졌으며 여러 나라, 민족과의 교역을 통하여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사회풍속의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문화의 변화에 의해 후한말기에는 부인의 화장법에도 새로운 변화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선진시기 이후에 중국여성들의 눈썹양식은 다양하고 풍성하게 표현된다. 중국부녀자의 화장문화사상 눈썹양식 변화의 전성기는 한무제, 수양제, 당현

중 시기였다.

한대 중기 궁중부녀자들은 눈썹 그리는 방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여 중국 눈썹양식 역사상 제1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한나라시기에 성행했던 눈썹양식은 선조 진나라의 풍습을 이어받아 장미가 유행하였다.

『粧臺記』에서, 한 무제의 궁녀들은 ‘팔(八)’자 모양의 눈썹을 그렸다(漢武帝宮人, 掃八子眉)라고 하였다. (그림17)과 같이 팔자미는 한대 궁녀에게서 시작된 눈썹화장으로 이것의 형태는 눈썹을 그릴 때에 눈썹 머리 부분을 높이 올리고 눈썹 끝부분은 낮게 만들어 ‘팔(八)’자 모양이 되게 하였다. 팔자미 역시 일종의 장미의 일종이다. (그림18)은 호북운봉대분두서한묘에서 출토된 목우인데, 눈썹양식을 보면 가늘고 긴 장미의 형태를 하고 있다.

또한 일반 부녀자들 사이에 유행한 원산미³⁵⁾는 한대 탁문군(卓文君)에게서 시작되었으며 『서경잡기(西京雜記)·상여사갈(相如死渴)』에서, “탁문군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눈썹색깔은 먼 산을 바라보는 듯하고 두 뺨은 언제나 부용같다(文君姣好, 眉色如望遠山, 臉際常若芙蓉)”라고 하였다. 눈썹색깔이 먼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옅었는데 당시의 여성들이 이를 본받아 흉내 내었다고 한다.

한대(漢代)의 영현(伶玄)이 저술한 『조비연열전(趙飛燕列傳)』에 의하면, “합덕(合德)³⁶⁾은 새로 목욕하여 구곡의 심수향을 바르고 권발(卷髮)하여 신계(新髻)라 부르고 눈썹을 옅게 한 것을 원산대(遠山黛)라 부르며…(合德新沐, 九曲沈水香, 爲卷髮, 號新髻, 爲薄眉, 號遠山黛…)”³⁷⁾라고 기록되어 있다.

원산대는 눈썹의 색은 연하게 하고 눈썹의 산에 굴곡을 주게 그리지만 긴 눈썹의 일종이다.

35) 연산미(連山眉)라고도 한다.

36)전한 무제의 애첩이었던 조비연(趙飛燕)의 동생이며 쌍생아였다.

37) 杉本正年, 문광희역, 『동양복장사논고-고대편』 (경춘사, 1997), p.153.

원제(元帝) 때는 수미(愁眉)가 출현하였는데, 수미는 그 형식에서 서한의 팔자눈썹과 비슷하고 긴 눈썹의 일종에 속한다. 눈썹꼬리는 아래로 처지고 눈썹머리는 질게 드리워지고 배합할 때 연지없이 화장하는데 두드러지게 고의적으로 처량함을 나타낸다.³⁸⁾

그 이후 또 다른 수미의 눈썹양식이 나타났다. 후한에 이르러 재력 있는 부상 및 지주계급의 사치와 이에 자극을 받은 귀족계급의 사치는 극에 달했으며 귀족계급은 유행을 주도하여 나갔다. 특히 후한 7대 순제(順帝)시대 재상 양기(梁冀)와 그의 처 손수(孫壽)는 새로운 유행을 창출하였다. 양기의 처 손수가 창출한 화장법 중 눈썹화장은 수심을 머금은 모습으로 눈썹을 그린 수미(愁眉)였다.

『후한서(後漢書)·권34·양기열전(梁冀列傳)』에 의하면, “양기의 처 손수는 용모가 아름답고 요염한 모습을 잘 지어, 찡그린 눈썹과 우는 듯한 화장을 하고…(冀妻孫壽, 色美而善爲妖態, 作愁眉啼馬妝…)”라고 하였고, 『풍속통의(風俗通義)·佚文·服妖』에서, “환제 원가 연간에 경사의 부인들은 찡그린 눈썹과 우는 듯한 화장…(桓帝元嘉中, 京師婦人作愁眉, 啼妝…)”³⁹⁾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찡그린 눈썹은 가늘고 굽은 것이며 우는 듯한 화장이란 눈 아래를 얹게 바른 모양이 눈물자국 같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손수의 변태적인 화장은 남들에게도 가련하고도 유약한 여성 심미관을 심어주어 경사(수도)에서는 일제히 모두 이를 모방하여 본받았으며, 점차 장안과 낙양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유행을 ‘양씨(梁氏)의 신장(新裝)’이라고 불렀다.⁴⁰⁾

서한 초기에는 여인들이 여전히 선진시대의 기풍을 좇아 긴 눈썹을 숭상하였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장미(長眉)가 나타난다. 이러한 긴 눈썹 형식은

38) 『국제미용조형』 제3집, 1995, p.10

39) 『風俗通義校注(下)』(北京 中華書局, 1981), p.567.

40) 杉本正年, 문광희역, 前掲書, p.150.

선진에서 동한말까지 유행하였고 이처럼 가늘고 긴 눈썹은 대부분 원래의 눈썹을 제거한 후에 다시 그렸는데 그렇지 않으면 효과 있게 그리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후한말기에는 눈썹 털을 모두 깎아 내고 다시 먹으로 눈썹을 그리는 풍습이 일반화되어 초승달 모양의 가는 눈썹 형이 유행하였다. 유희(劉熙)의 『석명(釋名)』의 기록을 보면, “눈썹먹으로 대신한다. 눈썹을 없애고 먹으로 그 자리를 채운다”고 하였다.

한대 부녀자들은 장미 외에도 활미(闊眉)라고 하는 넓은 눈썹 또한 즐겨 그렸는데, 광미(廣眉) 혹은 대미(大眉)라 칭하였다. 이러한 기풍은 먼저 장안성내로부터 시작하여 후에 각지로 퍼졌다고 한다.

사승(謝承)의 『후한서(後漢書)』에는, “성안에서는 넓은 눈썹을 좋아하여 이마의 반을 차지한다(城中好廣眉, 四方且半額)”⁴¹⁾ 라고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나친 형태의 장미가 성행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표4> 한나라의 눈썹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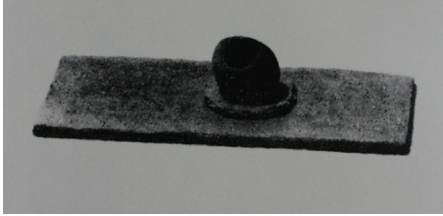
명 칭	눈 썹 형 태
팔자미	장미의 일종이며 눈썹머리 부분을 높이 올리고 눈썹 끝부분은 낮게 만들어 팔(八)자 모양이 되게 한다.
원산미	장미의 일종이며 가늘고 눈썹먹이 얇은 눈썹
활미	광미, 대미라고도 하며 장미보다 길고 넓은 형태의 눈썹
수미	팔자미와 비슷하고 장미의 일종이며 눈썹끝부분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다.

한나라 문화의 또 하나의 커다란 특징은 서역풍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일로서 2세기 후반 환제(桓帝)로부터 영제(靈帝)의 시대로 들어가면 호풍예찬(胡風禮讚)이라는 새로운 풍조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영제는 정치적으로

41) 『後漢書, 권24』, 마료전(馬廖傳)

는 우둔하였으나 서역의 문화예술을 좋아하여 서역풍을 광적으로 받아들여 수도 낙양에는 서역의 상인 등이 가져온 장식품과 복식이 범람하였다. 영제는 이들 서역문물을 스스로 애호하고 주위의 조정 신하에게도 장려했으므로 호풍은 중국 각지에 퍼지고 이제까지의 중국 고유문화와 융합하여 차시대인 위진남북조시대에 전개되는 새로운 동서융합 문화창출의 소지를 만들어 내었다.⁴²⁾ 그러나 한편 외래문화의 유행과 더불어 주대의 고례로 돌아가고자 하는 복고적인 움직임도 있었다.

42) 杉本正年, 문광회역, 前掲書, pp.151-152.



(그림13) 靑石黛硯
江西南昌東郊西漢墓出土



(그림14) 楚國의 長眉
하남신양장대관일호묘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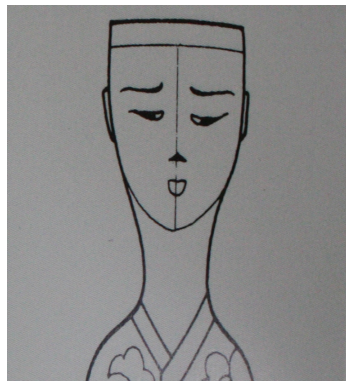
(그림15) 楚國 婦女의 眉式
호남장사초묘출토



(그림16) 戰國時代 舞戲의 눈썹양식



(그림17) 漢나라의 八字眉



(그림18) 西漢婦女의 八字眉
湖北雲夢大墳頭西漢墓 出土

3. 위진남북조시대 눈썹화장의 변화양상

220년 후한 멸망한 이후 수나라가 589년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의 약 370년의 시기를 위진남북조 시대라 한다. 후한(後漢) 헌제(獻帝)의 선양(禪讓)을 이어받은 조비(曹丕)가 한나라를 이은 뒤 전후 400여년 계속되었던 한제국은 멸망하고 중국의 천하는 분열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이로부터 서진(西晉) 왕조가 멸망하기까지의 약 100년이 안되는 짧은 시기가 위진시대인데, 이 기간은 고대에서 중세로의 중국사의 전환기로서 정치적으로는 분란의 시기였으나 사회, 사상,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여러 민족이 섞이게 되고 문화적 융합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였다.⁴³⁾ 또한 중국 전반에 자유혁신의 풍조가 퍼지기 시작하였으나 화장, 복식에 있어서 기본적인 양식은 여전히 한나라의 제도를 이어받았다, 한나라 때에 만들어진 호풍의 화장이 이어져 부인의 화장법에 분장이 유행하게 되었으며 이시기에는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분장을 하였다.⁴⁴⁾

위진남북조시기는 눈썹을 그리는 풍속이 더욱 성행하였다. 이 시기는 기본적으로 한 대의 구습을 계승하였는데, 여자들의 눈썹화장 또한 그러하여서 여전히 긴 눈썹을 선호하였다.

남조(南朝)당시의 눈썹화장으로 미대(眉黛)가 있었는데, 이는 눈썹위에 다시 눈썹을 그려서 모양을 닮은 것이다.

오균(吳均)의 여류휘상증답(與柳揮相贈答)이라는 시에서는, “가는 허리 넓은 소매 끌리고 윤기 도는 이마 긴 눈썹을 그리고” 라고 하였는데 (그림 19),(그림 20)에서와 같이 여인들의 가늘고 긴 눈썹양식은 남북조시대 뿐 아니라 수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여인의 사랑을 받았다.

위무제(魏武帝)였던 조조(曹操)는 궁인들에게 청대미(靑黛眉), 연두미(連頭

43) 유송옥 외2인, 『복식문화』(교문사, 1999), p.69.

44) 杉本正年, 문광희역, 『동양복장사논고-중세편』(경춘사, 1997), p.28.

眉)를 그리게 하였는데, 한 번에 가늘고 길게 그림으로 그려 그것을 선아장(仙娥妝)이라 하였고 제(齊)와 양(梁) 사이의 지역에서 많이 퍼졌다고 하며 양무제(梁武帝) 또한 궁인들에게 백장(白粧)과 청대미를 하도록 명하였다.

연두미에 관한 기록으로는 송(宋) 섭정규(葉廷珪)의 『해록쇄사(海錄碎事) 성현인사부상(聖賢人事部上·부인문(婦人門))』(四庫全提要·子·類書類)에 의하면, “미간까지 연결하여 가늘고 길게 그리는데 이를 연두미라하고 선아장이라고도 부른다(一畫連心細長, 謂之連頭眉, 又曰仙娥妝, 漢武帝故事)”라고 하였다.

청대(靑黛)는 눈썹을 그리는 청흑색의 안료, 즉 인디고(Indigo:남색물감)이다. 이시진(李時珍: 1518-1593)의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는, “청대는 페르시아에서 왔는데 지금은 태원 및 노릉·암강 등지에서 염료를 담은 동이에 자색·푸른색 염료를 묻혀 사용하였다(靑黛從波斯國來, 今以太原并廬陵·南康等處染澱上沫紫碧色者用之)”라고 하였으며, 『중화고금주(中華古今注)』에서는, “양천감 연간에 무제는 궁녀들에게 명령하여…백장 청대미를 만들게 하였다(梁天監中, 武帝詔宮人, … 作白粧靑黛眉)”라고 하였다.

이백(李白)은 『술을 대하고(對酒)』에서, “푸른 눈썹먹으로 눈썹을 그렸고 비단신은 울긋불긋한데(靑黛畫眉 紅錦靴)”라고 하였다.

결국 여러 문헌과 유물을 통하여 고찰 하여 보면, 이 시기의 눈썹 양식은 넓게 그리는 기법도 있었지만 주로 유행 하였던 눈썹양식은 장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수(隋)·당(唐)시대 눈썹화장의 변화양식

후한이 멸망한 이후 중국의 분열시대는 수(隋)에 의해 통일 되었다. 그러나 이 왕조는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한 진(秦)왕조와 마찬가지로 30여년의 단명으로 끝났다. 수조를 세운 양견(楊堅:文帝)은 섬서성(陝西省) 출신의 선비계의 말족(末族)으로 북조(北朝) 북주(北周)의 실력자였다.

수나라 여자들은 비교적 소박하여 위진남북조와 같이 많은 변화도 없었고 당대처럼 다채롭지도 않았다. 일반부녀자들에게는 화장을 못하게 하는 법적 제한이 있어서 주로 궁녀들만 화장을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궁중의 화려한 눈썹화장은 민간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⁴⁵⁾.

수나라가 대업을 이룬 시기에 양제(煬帝)는 호색하여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애석해하지 않고 이란(波斯國)에서 대량의 나대(螺黛)를 수입하여 한 과(顆)의 가치가 십금(十金)이나 하였는데 후궁들과 비빈(妃嬪)들에게 나누어 주고 눈썹을 그리게 하였다. 또 안사고(顏師古)의 수유록(隋遺錄)에는, 양제가 강도를 순행할 당시 큰 배 용주봉가(龍舟鳳舸)를 만들어 모든 배에는 아름다운 여자 천명을 택하여 그들에게 노를 젓게 하였는데 그중 오강선(吳絳仙)이란 여자는 눈썹을 길게 그리고 양제의 총애를 받았다고 한다. 후에 이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이를 본받아 마침내 자신들의 급료 모두를 투자하여도 쓰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이러한 눈썹화장의 행위가 성행하였다.⁴⁶⁾

중국눈썹양식의 세 번째 전성기는 당대(唐代)이다.

당(唐)은 618년 건국되었는데, 정치 군사적 통일과 안정 속에서 정관의 치(貞觀의 治)같은 중국역사에서는 가장 평화롭고 번영했던 성세(盛世)를 이루었는데 장기간 지속된 성세속에서 문화가 발달될 수 있는 당대특유의 사

45) 李秀蓮, 前掲書, p.45

46) 周汛·高春明, 前掲書, p.125

회·경제조건과 환경이 잉태되었다. 각 도시에는 수공업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우수한 품질의 공산품을 대량으로 생산했으며 정치의 안정과 함께 교통의 발달로 상업이 발달했으며 국제무역이 활발하였다. 또 사회, 경제적 발달은 도시의 발전과 번영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생활은 부유하고 윤택하였으므로 문학, 음악, 회화, 건축 등의 각종 예술과 문학의 발달을 촉진시켰는데 이것은 당대 문화발달의 폭넓은 기반이 되었다.

또 당은 중국 역사상, 외교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당의 정치이념은 개방적이었고 한족(漢族)이외의 이민족에게도 관대한 정책을 표방하였다. 이에 당은 축전무후 때에 북정도호부(北庭都護府)를 두어 중앙아시아 유목민을 지배하고 서역의 교통로를 확보하였으므로 당시 인도와 페르시아문화가 당에 많이 유입되어 당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하여 당 문화는 한 대에 이룩한 중국고전문화를 기반으로 남북조시대의 귀족문화, 불교문화 그리고 당대에 서역, 인도, 페르시아로부터 유입된 외래문화를 수용 동화되어 국제적 색채가 풍부한 귀족문화가 형성되었다. 당조의 영토 확장으로 인하여 국경이라는 장벽이 허물어짐에 따라 세계제국과의 교류는 더욱 활발하고 긴밀해졌다. 이에 따라 활발하게 이루어진 당대 외래문화의 유입은 호풍이라고 하여 유행의 차원에서 받아들였다.

이와 같이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화장을 시작, 발달시킨 서역이나 주변의 화장품 및 화장문화를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국토의 신장을 통해 쉽게 수용하게 되어 당대 화장문화를 진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약 300년간 유지되었던 당 왕조는 중국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자유분방한 시기였다.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달랐던 궁중 여인, 상류계급의 부녀, 일반 부녀, 기녀간의 화장행위는 시대·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구별이 있었다. 고급 창기는 하나의 사회적 제도가 되었고 수도에서나 지방에서나 품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 이었다. 기녀제도의 활

성화는 당대화장품 발달과 보급에 한편 기여하기도 하였고 화려하고 괴이하기까지 한 무수한 화장기법의 연출에 한 요인이 되었다.⁴⁷⁾

문학, 미술 등 당대의 문화는 당시를 구분하는 초당(初唐), 성당(盛唐), 중당(中唐), 만당(晩唐)의 4期에 준하여 설명된다.

당대는 부녀자 눈썹화장 양식에 있어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1,000-2,000여종의 눈썹을 그리는 새로운 양식을 창출해 내었다.⁴⁸⁾ <표5>는 당나라의 눈썹양식을 나타낸 것이며, 당대 부녀자들의 눈썹형태 및 변천과정은 <표6>에서 그 형태의 변화와 특성을 알 수 있다. 눈썹의 길이, 굵기, 짙고 옅음 등의 다양한 형태와 명칭 또한 시대적 취향과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당대에 들어와 눈썹양식의 큰 변화는 당대 이전에 비하여 약간 넓고 굵어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당대 부녀자들의 눈썹양식은 어떤 때는 긴 눈썹이 유행하기도 하였지만 형태가 누에나방 촉수와 같은 긴 눈썹보다는 일반적으로 버드나무 잎과 같이 그려 ‘유미(柳眉)’ 혹은 ‘유엽미(柳葉眉)’라고 하였다. 그 형태는 (그림21)에서 보면 잘 나타나고 있으며 <표6> 1번의 정관년간(貞觀年間)의 눈썹형태와 모양이 비슷하다. 눈썹은 버들잎과 같이 그리면서 팔자미를 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눈썹을 강조하지 않고 눈 꼬리 부분을 올려 그리고 있다.

唐 왕연(王衍)의 『감주곡(甘州曲)』에서, “버들눈썹 복사꽃 같은 얼굴이 봄을 이기지 못하네(柳眉桃臉不勝春)”라고 하였다. 이러한 유미(柳眉)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그림22)와 같이 약간 넓고 더 구부러지게 묘사된 눈썹양식인데, 그 구부러진 형태가 마치 초승달과 같아서 이름이 ‘월미(月眉)’. 혹은 ‘각월미(却月眉)’라고 한다. 이는 <표6>의 16번 만당(晩唐)의 눈썹형태와 비슷한데 (그림21)의 여인의 눈 형태보다는 크기가 좀 더 크고 선명하게

47) 박보영, 前掲書, pp. 105-106.

48) 김영미·박영은·김영일, “중국인물화에 나타난 화장기법”, 한국인체예술학회지 2권1호, 2001, pp.31-32.

표현되었으며 눈 꼬리 부분은 침예하게 그리되 많이 올려 그리지 않았다.

여러 눈썹양식이 나타나다가 전한시대의 팔자미가 다시 당 현종 원화년간(元和年間)에 새롭게 유행하였다. 이러한 팔자미는 (그림23)에서 보여지는데, <표6>의 13번 천보-원화초년의 눈썹형태와 비슷하다. 한 대에 처음 팔자미가 그려지기 시작하였으며, 한 대의 팔자미 보다 더 넓고 상당히 완곡하며 ‘팔(八)’자의 형상에 아주 가깝다. 이러한 양식은 원래 서한시기의 눈썹양식으로 중당시기에 이르러 다시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어 궁중은 물론 민간에까지 모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유행되었으며 ‘원화시기 세상의 화장(元和時世粧)’⁴⁹⁾이라고 하였다.

이상은(李商隱)의 『나비3수(蝶三首)』⁵⁰⁾에서, “수양공주가 시집갈 때의 몸치장이란 여덟팔자의 궁미와 이마의 누런 화장을 받들다(壽陽公主嫁時妝, 八字宮眉捧額黃)”라고 하였으며, 백거이의 『지금 유행하는 화장(時世粧)』⁵¹⁾에서, “두 눈썹을 그리니 팔자 모양으로 처졌네(雙眉畫作八字低)”라고 하였으며, 장소원(張蕭遠)의 『도시로 들어가는 궁녀를 전송하며(送宮人入道)』⁵²⁾에서는, “옥 같은 손으로 아름답게 팔자 눈썹을 그리네(玉指休勻八字眉)”라고 하였다. 이러한 시들은 모두 팔자 눈썹을 묘사한 것이다.

눈썹을 그리기 전에 여자들은 처음에 자연의 눈썹을 면도하였고 그 다음에 그리기 위해서 시커멓게 태운 말채나무(버드나무의 일종)로부터 만들어진 청흑안료를 사용하였다. 이것을 ‘대미(黛眉)’라고 불렀다. 당의 여인들이 만들어 낸 모양은 가느다란 아름다운 눈썹에서부터 넓고 큰 눈썹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다양하였다.⁵³⁾

당나라 현종은 눈썹화장에 관한 애착이 심하여 부녀자들의 눈썹화장을 중

49) 박보영, 前掲書, p.53.

50) 『전당사권539』, p.6165.

51) 『전당사권427』, p.4705.

52) 『전당사권491』, p.5554.

53) Zhou Xun, Gao Chunming, *5000 years of chinese costumes*, p.149

시하였던 것은 수나라 양제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었다고 한다.

당 현종(玄宗)은 일찍이 화공에게 명하여 십미도(十眉圖)를 그리도록 하였다. 당대 장필의 『장대기(粧臺記)』에 의하면, “명황이 촉 지방에 행차하여 화공에게 명하여 십미도를 만들게 하였는데 횡운·사월 같은 것이 모두 그 이름이다(明皇幸蜀, 令畫工作十眉圖, 如橫雲·斜月皆 其名也).”라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명칭은 바로 원앙미(鴛鴦眉)·소산미(小山眉)·오악미(五嶽眉)·삼봉미(三峰眉)·수주미(垂珠眉)·월능미(月稜眉) 혹은 각월미(却月眉) 문초미(分稍眉)·함연미(涵煙眉)·불운미(拂雲眉) 혹은 횡연미(橫煙眉)·도운미(倒暈眉)이다.⁵⁴⁾이에 궁녀들은 이를 토대로 눈썹을 화장하였다. 두목(杜牧)은 『규방의 정서(閨情)』에서, “아름답도다 각월미여(娟娟却月眉)”라고 하였고, 후에 소식은 『미자석연가(眉子石硯歌)』의 시에서,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성도의 화가들이 그린 열 가지 눈썹을, 횡운미·각월미가 신기함을 다투네(君不見成都畫手開十眉, 橫雲却月爭新奇)”라고 하였다.

성당(盛唐)시대에는 아미(蛾眉)라고 부르는 가늘고 긴 눈썹이 유행했다. 아미는 누에나방 촉수처럼 가늘고 아름답게 그린 눈썹을 말하며, 당 정원(貞元)때부터는 ‘대(黛)’로 그린 눈썹을 말했다.

이백의 『원망(怨情)』⁵⁵⁾에서, “미녀는 주렴을 젖히고는 오랫동안 앉아 눈썹을 찌푸리네(美人捲珠簾, 深坐顰蛾眉)”라고 하였고, 조당(曹唐)의 『소유선시(小遊仙時)』⁵⁶⁾에서, “구천의 서왕모가 눈썹을 찌푸리니(九天王母顰蛾眉)”라고 하였다. 또한 사공도(司空圖:837-908)는 『유선(遊仙)』⁵⁷⁾에서, “눈썹을 새로 그리니 아름다움을 느끼겠네(蛾眉新畫覺禪娟)”라고 하였다. 또한 백거이는 『장한가(長恨歌)』⁵⁸⁾에서, “미인은 애절하게 말 앞에서 죽었네(宛轉

54) 십미의 명칭은 송대 섭정규의 『해록쇄사(海錄碎事)』와 명대 왕세정(王世貞:1526-1590)의 『엄주산인고(弇州山人稿)』에 있다.

55) 『전당시·권184』, p.1882.

56) 『전당시·권641』, p.7352.

57) 『전당시·권634』, p.7274.

58) 『전당시·권435』, p.4819.

蛾眉馬前死)”라고 하였다. 백거이의 『上陽白髮人』⁵⁹⁾에서도, “푸른 눈썹먹으로 그린 눈썹 가늘고 길다(靑黛點眉眉細長)”이라고 하였다. 이상은의 『무제(無題)』⁶⁰⁾라는 시에서는, “가는 눈썹에 근심을 보는 듯하네(眉細恨分明)”이라고 하였다.

활미(闊眉)는 당대 부녀자들의 주된 눈썹양식이었다. 이 활미 혹은 광미는 개원(開元)·천보(天寶)이후 다시금 유행하였다. 조왕(趙王)의 『관기시(觀妓詩)』에는, “성안에서는 넓은 눈썹을 그리네(城中好廣眉)”, 심전기(沈佺期)의 『이원외진원택관기(李員外秦援宅觀妓)』에서는, “가벼운 머리를 더부룩하게 빗질하고 넓게 눈썹을 그리네(輕鬢叢梳闊掃眉)”라고 하였으며, 온정균(溫庭筠)의 『남가자(南歌子)』에서는, “짙은 녹색이 눈썹을 어지럽히네(凝翠暈蛾眉)”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구절은 당시 넓은 눈썹을 숭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대 초기의 활미는 일반적으로 모두 길게 그리는 것이었고 아주 길게 그려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하는 느낌을 주었다. 눈썹변화의 과정을 볼 때 당 초기의 유행은 짙고 넓고 길었으며, 기법 변화가 다양하다. 특히 눈썹머리가 넓었다. 눈썹 앞과 뒤가 똑같이 넓기도 하였으며 혹은 길고 얇으며 양쪽의 눈썹이 만나기도 하였다. 눈썹의 허리가 두껍고 양쪽은 얇고 긴 기법 등 특수하고 이상한 형태의 눈썹 양식의 변화가 무궁하다. (그림24),(그림25),(그림26),(그림27),(그림28),(그림29)는 다양한 활미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성당말기에 짧은 관미(寬眉)가 나타났는데, 이중 계엽미(桂葉眉)가 유행하였다. 이러한 계엽미의 형태는 (그림30)에서 잘 나타나는데, 이것은 <표6>의 14번 정원 말년의 눈썹형태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30)의 부녀자는 눈썹이 풍성하며 눈썹의 형태가 짧고 넓다.

그림을 보면 머리 형태 및 복식이 화려해짐에 따라 눈썹이 짧게 표현되었

59) 『전당시·권426』, p.4692.

60) 『전당시·권539』, p.6164.

고 굵게 강조하는 반면 눈의 선은 길고 얇게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표5> 당나라의 눈썹양식

명 칭	눈 썹 형 태
유미(柳眉)	유엽미(柳葉眉)라고도 하며, 버들잎과 같이 그리되 눈썹을 강조하지 않고 눈꼬리 부분을 올려서 그린다.
월미(月眉)	각월미(却月眉)라고도 하며, 유미보다 더 넓고 초승달의 모양과 같이 더 구부러지게 그린다.
아미(蛾眉)	누에나방 촉수처럼 가늘고 길게 그린다.
팔자미(八字眉)	서한시대의 팔자 형태 보다 더욱 넓고 완곡하게, 팔(八)자의 형상에 가깝게 그린다.
활미(闊眉)	당대 부녀자들의 일반적인 눈썹형태, 사람들의 눈에 확실하게 떨어 수 있게 길고 넓으며 아주 짙게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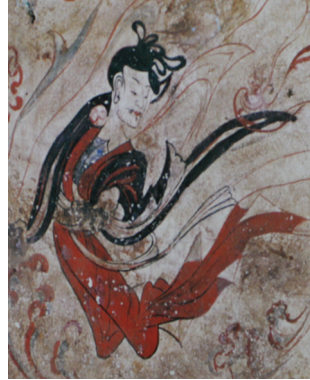
<표6> 당대부녀 눈썹양식의 변화⁶¹⁾

NO	연 대		도 례	출전재료	눈썹명칭
	원호	서역			
1	貞觀年間	627-649		염립본<보련도>	柳眉 (柳葉眉)
2	麟德元年	664		예천정인태묘출토도용	闊眉
3	總章元年	668		서안양두진이묘 출토벽화	闊眉
4	垂拱四年	688		토로번,아스타나 장용처묘출토도용	闊眉
5	如意元年	692		장안현남리옥촌위동묘 출토벽화	闊眉
6	萬歲登封 元年	696		태원남고금승촌묘 출토벽화	闊眉
7	長安二年	702		토로번, 아스타나 장례거묘출토건화	闊眉
8	神龍二年	706		건현수덕태자묘 출토벽화	闊眉
9	景雲元年	710		성양저장당묘 출토벽화	闊眉
10	先天二年- 開元二年	713- 714		토로번,아스타나 당묘출토건화	闊眉
11	天寶三年	744		토로번,아스타나 당묘출토건화	闊眉
12	天寶十一 年後	752년후		장훤<호국부인유춘도>	柳眉
13	約天寶- 元和初年	約742- 806		주방<환견사여도>	八字眉
14	約貞元末 年	約803		주방<잠화사여도>	桂葉眉
15	晚唐	約828- 907		돈황막고굴130굴벽화	闊眉
16	晚唐	約828- 907		돈황막고굴192굴벽화	月眉 (却月眉)

61) 周汛·高春明, 前掲書, p.131.



(그림19) 魏晉南北朝時代의 長眉
고개지<女史箴圖>局部



(그림20) 長眉의 仕女
河南省南北朝墓出土壁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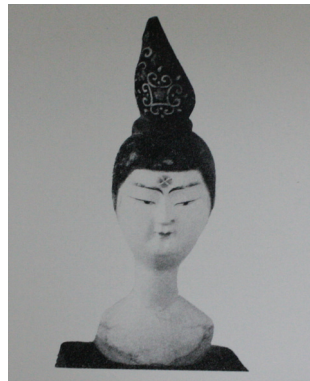
(그림21) 唐朝婦女子의 柳眉
唐 閻立本<步輦圖>局部



(그림22) 唐代 婦女子의 却月眉
돈황막고굴192굴벽화



(그림23) 中晚唐 婦女子의 八字眉
唐 周昉<紈肩仕女圖>



(그림24) 唐代 婦女子, 新疆吐魯番阿斯
塔那唐張雄夫婦墓出土泥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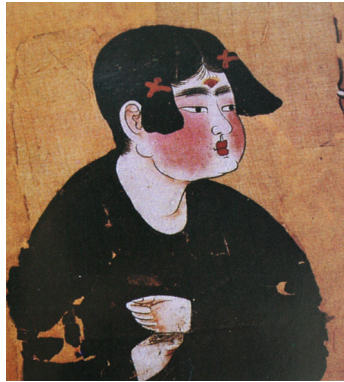
(그림25) 唐代婦女， 新疆吐魯番阿斯
塔那唐墓出土彩繪陶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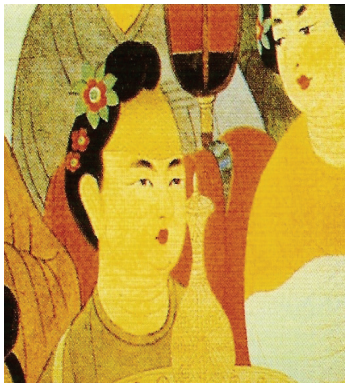
(그림26) 唐代婦女， 新疆吐魯番阿斯
塔那唐墓張禮新墓出土屏風絹畫



(그림27) 晚唐五代婦女， 敦煌莫高窟
130窟供養人壁畫



(그림28) 唐代 婦女， 新疆吐魯番唐墓
出土〈弈棋士女圖〉局部



(그림29) 唐代婦女， 甘肅敦煌莫高窟
130窟唐代壁畫



(그림30) 晚唐婦女 桂葉眉
周昉 〈簪花仕女圖〉

5. 송(宋)·원(元)시대 눈썹화장의 변화양식

송나라 시대는 서기 960년에 건립되었고 1279년에 원나라에 의해 멸망하였다. 서기 1127년, 금나라로 휘제(徽帝), 흠제(欽帝) 두 황제 및 종실 비빈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정강의 치욕(靖康之辱)을 기점으로 두 시기, 북송과 남송으로 나뉜다. 송대는 외적으로 요(遼)와 금(金)의 압박에 시달리던 문약한 국가이다. 경제적으로는 강남농법의 발전으로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가 확립되었다. 송대의 통치사상은 이학이었으며, “사람의 욕망을 없애고 천리를 따른다(法人欲存天理)”는 주장으로 통치계급은 봉건질서를 유지 보호하기 위하여 여인들을 엄격히 속박했다. 당시 회화·시 등의 문학작품에도 간결하고 평범한 형식으로 여성의 의용장식(衣容粧飾)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미의식은 화려함을 배제시킨 단아한 풍격(風格)을 숭상, 표현한 것이다. 송대문화는 당대문화가 외래문화에 대해 개방적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외부세계의 문화에 대해 다분히 폐쇄적이었고 중국 고유의 문화적 전통에 젖어들면서 이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경향이 짙었다. 당대의 농염하고 화려한 색채의 반동으로 고요, 간단, 소박, 청결, 자연미가 강조되었으며 소박하고 서민적인 성격과 사대부 문화가 주류를 이루었다.

원나라(1271-1368)는 중국본토를 중심으로 거의 동아시아 전역을 지배한 몽골족의 왕국으로 최초의 정복 왕족이다. 징기스칸(成吉思汗:Genghis Khan)의 손자인 쿠빌라이칸(忽必烈:Khubilai Khan)은 『역경(易經)』의 대재건원(大哉乾元)을 따서 국호를 대원(大元)이라 하고 남송을 평정하여 중국전토를 영유하게 되어 동아시아 전역의 대제국이 되었다. 원나라는 서방의 한국(汗國)들(킵차크·차가타이·오고타이·일한국 등)과 끊임없이 전쟁하였으나 1301년 카이두(Khaidu)가 사망함으로써 아시아 전역에 ‘몽골족 지배하의 평화’가 찾아와 동·서의 문물이 자유롭게 되어 국제무역이 번창하였다. 그러나 원나라

내부의 국정이 해이해지기 시작하여 권신들이 정쟁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한족(漢族)에 의한 민족적 반란으로까지 발전하여 주원장(朱元璋:洪武帝)에 의한 명조(明朝) 정권이 출현하였다.

송·원시기의 눈썹양식은 비록 당대처럼 풍부하지는 않으나 여전히 적지 않게 변화하고 있다. 미대의 재료로 송대(宋代)에는 색이 선명하고 섬세하며 사용이 편리한 연묵이 발명되어 당대(唐代)의 나대(螺黛)의 대(代)를 잇게 되었다. 눈썹기법은 먼저 눈썹을 제모한 후 그 위에 묵으로 원하는 형태의 눈썹을 자유자재로 그렸다.

송인의 『청이록(淸異錄)』을 보면, “당시에 영저(瑩姐) 기생이 있었는데 혼자서 거의 100여종의 눈썹양식을 발명하여 100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돌아가며 그렸는데 한 번도 중복되는 경우가 없었다(當時有個名叫瑩姐的妓女, 一人就發明了近百種眉式, 百日之內日換一種無一重複)”라고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눈썹양식은 많이 유실되고 현재는 단지 겨우 남아 있는 그림 자료 속에서 약간의 흔적이 있을 뿐이다. 송대의 남훈전(南薰殿)에 오랫동안 소장되어 있던 『역대제후상(歷代帝后像)』 중의 부녀의 눈썹양식은 그 특징이 있는데, 황후이든 궁녀이든 간에 미대는 모두 두께가 넓은 달 모양의 곡선과 넓은 눈썹 그리고 양쪽 눈썹이 끊어지지 않고 짙었다가 점점 얇아지며 바깥쪽으로 퍼지면서 흑색이 점점 없어지는 형태로 우아한 자태가 돋보이는 양식이다. 또한 눈썹사이가 매우 좁아 보이게 하여 콧대가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화장한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림31)의 도훈장(倒暈粧)은 이러한 장식을 의미한다⁶²⁾. 도훈미 외에도 각월미 같은 눈썹방식이 당대의 풍습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또한 팔자미, 원산미는 위진남북조시대를 거쳐 수당오대에 이어 송조까지 여전히 유행하였다. (그림32),(그림33),(그림34)는 송대 부녀의 여러 가지 눈썹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62) 周汛·高春明, 前揭書, p.127

원대의 눈썹양식 또한 상당히 특색이 있었다. 당시 사람마다 미에 대한 관심은 눈썹의 형태에 잘 나타내었다. (그림35)에서 보여주는 눈썹의 방식은 일(一)자 눈썹양식으로 가늘고 길지도 얇으면서 평평하고 가지런하게 그려져 있는데 자를 사용하여 그려서 그 형태가 한결 같았다. (그림36)은 원대 부녀의 눈썹양식이다.



(그림31) 宋朝 婦女의 倒暈粧
南薰殿舊藏<歷代帝后像>



(그림32) 宋朝 皇后
南薰殿舊藏<歷代帝后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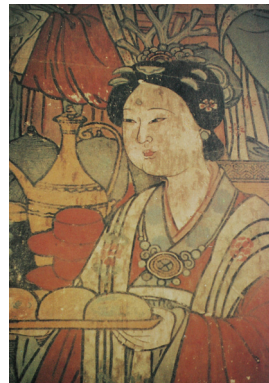
(그림33) 宋朝시대의 처진 눈썹
北宋河南白沙二號宋墓壁畫



(그림34) 北宋의 婦女, 山西晉祠聖母
殿彩塑宮女



(그림35) 元代婦女의 一字眉
南薰殿舊藏<歷代帝后像>



(그림36) 元代 婦女, 山西洪洞廣勝寺明
應王殿壁畫

6. 명(明)·청(靑)시대 눈썹화장의 변화양식

주원장이 1368년에 명(明)을 건립하여 한족(漢族)이 실권을 잡자 원대(元代)에 행해졌던 언어·풍습·복식 등을 모두 금하고 순수한 한족의 문화를 정착시켜 한(漢), 당(唐), 송(宋)을 능가하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따라서 명대에는 중화사상이 절정에 달하였고 전통적인 한족문화가 소생하였다. 명나라의 문화정책은 처음에는 복고국수주의·몽골색 불식에 힘을 기울였으나 뒤에는 경제발달, 서민생활의 향상, 도시의 번영, 교육의 보급에 따라 대중적 색채가 짙어졌다. 또한 유럽의 과학사조가 들어와 그 영향도 많이 받았다. 서양문화의 전래로 중국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양명학의 변화로 실질적 학문이 발달하였다. 명대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호화로우며 아름다운 것을 숭상하였지만 복식이나 화장문화에 있어서는 다소 엄격한 통제를 가하였다.

청대는 만주족이 설립한 왕조로 건립 초기에는 한족 진압정책을 강경하게 실시하였다. 따라서 의복이나 두식 또한 한족의 양식을 금지하였으며 만주족의 양식대로 바꾸도록 하였다. 이 시기는 한족과 만주족이 혼거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새로운 형태와 양식이 생겨났으며 서양문물의 도입으로 인하여 문화적으로 서양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다.⁶³⁾

명·청 이래 여성 예교(禮敎)의 구속이 엄격하여 당시의 여성에게는 “절제하는 열녀(禮婦烈女)”, “길을 걸을 때는 온중하게 고개를 숙여 앞을 향해 걸어야 한다(行步穩重 低首向前)”, “밖으로는 단속하고 안에서는 청결해야 한다(外檢束 內靜修)”는 등의 규범화된 행위가 요구 되었다. 또한 여자들은 말을 한번 하면 실천해야하고 언동에 따른 강한 규제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 시기의 색조화장의 특징은 인위적이고 화려한 화장기법을 피하고 순수함과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여 그동안 성행하였던 붉은 화장은 차츰 소멸 하

63) 유송옥 외2인, 『복식문화』(교문사, 1997), p.79.

였으며 청나라에 이르러 여학당이 크게 성행하면서 더욱 쇠퇴하였다.

명·청대의 눈썹양식은 섬세하고 곡선적이어서 수려한 기풍의 여성미를 갖추었다. 명·청시기의 부녀자들은 뛰어나게 아름다운(秀美) 것을 숭상하여 눈썹털이 많게 그리고 또한 섬세하고 가늘며 완곡하게 그렸으며 장단(長短)과 심천(深淺) 등의 기교변화는 차츰 감소하였다. (그림37)에서 (그림46)까지는 명·청시대의 눈썹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47)과 (그림48)은 북경의 고궁 박물관에 소장된 청나라 제후의 그림인데 대부분 후비(后妃)가 이러한 화장을 하였으며 이것은 곧 당시의 풍습을 반영한다. 그러나 특수층 여자들 사이에는 만주족의 화장술이 성행⁶⁴⁾하였는데, 눈썹은 먹으로 진하게 그렸다.

당대이후 눈썹화장양식은 한대나 당대와 같이 풍성한 시대는 없었지만 일단 성행한 것은 쇠퇴하지는 않았고 그 시대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변화되었다.

64) 李秀蓮, 前掲書, p.98.



(그림37) 明朝婦女子의 눈썹
明人<縫衣圖>局部



(그림38) 明朝婦女子의 눈썹양식
明人唐寅<嫦娥奔月圖>局部



(그림39) 明朝婦女子의 秀美장식
明末沈士鯁<采桑圖>



(그림40) 秀美의 明朝 婦女子
<六十仕女圖>局部



(그림41) 明朝帝后의 눈썹
南薰殿舊藏<歷代帝后像>



(그림42) 明代貴婦
明人<朱夫人像>



(그림43) 明·清朝의 曲眉



(그림44) 清朝 婦女



(그림45) 清朝 婦女의 眉式
清人<胤禎妃行樂圖屏>局部



(그림46) 清少女의 눈썹



(그림47) 清代皇后, 北京故宮博物院藏
<清代帝后像>



(그림48) 清朝의 太后
北京故宮博物院藏<慈禧寫眞像>

IV. 결 론

본 논문은 화장행위에 관한 문헌기록이 나타나는 중국의 선진시대부터 진·한시대, 수·당시대, 송·원시대, 명·청시대까지의 중국 여성 눈썹화장의 시대·문화적 배경에 따른 특성을 문헌자료, 회화 및 유물자료의 분석을 통해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황하유역을 중심으로 고대국가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선진시대에 눈썹을 그리는 풍습은 주왕조(周王朝)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선진시대의 중국인들은 유물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장미(長眉:긴 눈썹)를 그리고 눈썹을 인위적으로 굵고 진하게 치장한 흔적이 보인다. 눈썹을 그리는 방식은 눈썹을 깨끗하게 없앤 후 원래의 눈썹 위치에 원하는 눈썹 형태를 만들었다. 중국 여성들의 눈썹화장의 기초가 이미 선진시대에 마련되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2. 진나라가 통일한 이후부터 동한이 멸망할 때까지를 진한시대라 일컫는다. 한나라는 대부분 옛것을 따르면서 동시에 다른 민족과의 교역을 통하여 서역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사회풍속의 변화를 이루어갔다.

사회풍조가 만연한 한 대에는 귀족이 유행을 주도하였으며 특히 다양한 형태의 눈썹화장이 성행하였다. 이 시대의 특징으로 장미(長眉)를 근간으로 하는 원산대(遠山黛), 팔자미(八字眉), 활미(闊眉), 수미(愁眉) 등이 나타난다.

서양의 영향을 받은 한 대의 사회문화적 영향은 남북조시대의 동서융합 문화창출의 소지를 제공한다.

3. 위진시대는 고대에서 중세로의 중국사의 전환기로서 정치적으로는 분란의 시기였으나 사회, 사상,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여러 민족이 섞이게 되고 문화적 융합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였으며, 중국 전반에 자유혁신 풍조가 퍼지기 시작하였으나 기본적으로 한 대의 구습을 계승하였다. 남북조

시대의 눈썹화장도 여전히 장미(長眉)가 유행하였으며, 청대미(靑黛眉)와 연두미(連頭眉)도 성행하였다.

4. 수나라 여자들은 비교적 소박하여 위진남북조와 같이 많은 변화도 없었고 당대처럼 다채롭지도 않았다. 일반부녀자들에게는 화장을 못하게 하는 법적 제한이 있어서 주로 궁녀들만 화장을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궁중의 화려한 눈썹화장은 민간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눈썹양식은 눈썹을 섬세하고 길게 그렸다.

당나라는 위진남북조 시대의 오랜 분열을 수습하고 문화적으로도 통일을 이룩하여 중국적인 문화의 결실을 가져온 때이다. 당 문화는 한 대에 이룩한 중국고전문화를 기반으로 남북조시대의 귀족문화, 불교문화 그리고 당대에 서역, 인도, 페르시아로부터 유입된 외래문화를 수용·동화되어 국제적 색채가 풍부한 귀족문화가 형성되었다. 당조의 영토 확장으로 인하여 국경이라는 장벽이 허물어짐에 따라 세계제국과의 교류는 더욱 활발하고 긴밀해졌다. 당왕조는 중국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자유분방한 시기였다. 당대(唐代)는 눈썹화장의 전성기로 당대의 부녀자들은 눈썹화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눈썹의 길이, 굵기, 짙고 옅음 등에 따라 다양한 눈썹형태와 명칭이 나타났으며 이는 또한 시대적 취향과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당대에는 유미(柳眉), 월미(月眉), 팔자미(八字眉), 아미(蛾眉), 활미(闊眉), 계엽미(桂葉眉) 등이 유행하였으며 형태는 당대이전 보다 넓고 굵어졌다.

5. 송대문화는 당대문화가 외래문화에 대해 개방적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외부세계의 문화에 대해 다분히 폐쇄적이었고 중국 고유의 문화적 전통에 젖어들면서 이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경향이 짙었다. 송대에는 간단, 소박, 청결, 자연미가 강조되었으며 소박하고 서민적인 성격과 사대부 문화가 주류를 이루었다. 송·원시기의 눈썹양식은 당대처럼 풍부하지는 않으나 여전히 변화하였다. 눈썹양식의 특징은 미대는 모두 두께가 넓은 달 모양이며

깊고 얇게 점점 외부로 퍼져 나가게 하여 우아하게 보이며 또한 눈썹사이를 좁게 하여 콧대가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하였다.

원대의 눈썹양식은 모두 일(一)자 눈썹형태로 가늘고 길지도 얇으면서도 평평하고 가지런하게 그려져 있는데 자를 사용하여 그려서 그 형태가 한결 같았다. 이것은 몽골 귀족 부녀자 특유의 눈썹양식이다.

6. 명대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호화로우며 아름다운 것을 숭상하였지만 복식이나 화장문화에 있어서는 다소 엄격한 통제를 가하였다.

청대는 만주족이 설립한 왕조로 건립 초기에는 한족 진압정책을 강경하게 실시하였다. 이 시기는 한족과 만주족이 혼거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새로운 형태와 양식이 생겨났으며 서양문물의 도입으로 인하여 문화적으로 서양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다.

이 시기의 색조화장의 특징은 인위적이고 화려한 화장기법을 피하고 순수함과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였다. 명·청대의 눈썹양식은 섬세하고 곡선적이어서 수려한 기풍의 여성미를 갖추었다. 눈썹화장은 대부분 섬세하고 가늘며 완곡하게 그렸으며 길고 짧거나 짙거나 옅거나 등의 기교변화는 감소하였다.

7.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 종교, 철학사상 등의 문화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눈썹화장의 양식이 변화하게 되었으며, 그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역대 눈썹양식에는 매우 많은 명칭이 나타나는데 특수한 양식도 있기는 하였지만, 주로 눈썹의 길이, 눈썹의 굵기, 굴곡의 정도, 짙고 옅음의 정도, 그리는 위치에 따라 눈썹양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의 눈썹화장 양식은 선진시대의 장미를 기본으로 하여 팔자미, 수미, 아미, 활미 등으로 다양하게 변형되어 나타난다. 또한, 눈썹화장의 전성기인 한(漢)무제, 수(隋)양제, 당(唐)현종 시기에는 다른 부분의 색조화장에 비교

해 눈썹화장이 편중되게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황제는, 눈썹화장의 원료수입과 화장기법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며, 또 남다른 애착으로 황후 뿐 아니라 궁녀들에게 까지도 눈썹화장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궁중에서부터 시작된 중국 눈썹양식은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8. 중국은 눈썹을 그리는 화장의 기법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눈썹양식이 다양하고 변화가 많았다. 이렇게 다양한 중국 여성의 눈썹양식을 고찰하는 것은 현대인의 눈썹화장이 인상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중국은 당대에 서역과의 교류가 활발하여 많은 화장문화가 중국으로 유입되었고 이것은 다시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되어 화장문화의 유사성을 보이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중국 여성의 눈썹화장에 관한 고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눈썹화장을 고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더 나아가 중국의 다양한 눈썹양식을 현대인의 얼굴이미지에 맞게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어 화장문화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강경화, 현대메이크업총론, APC(Artistic Publishing Company), 2003.
- 고정일, 한국세계대백과사전, 서울:동서문화, 1995.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인의 얼굴, 서울:도서출판 신유, 1994.
- 金學圭 역저, 新完譯詩經, 明文堂, 1985년 3월 재판
- 杉本正年, 문광희 역, 동양복장사논고-고대편-, 서울:경춘사, 1997.
- 杉本正年, 문광희 역, 동양복장사논고-중세편-, 서울:경춘사, 1997.
- 박용숙, 한국의 미학사상, 서울:일월서각, 1991.
- 변인석, 당대문화사총설, 서울:도서출판 한울, 1994.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소, 고대중국의 이해, 서울:지식산업사, 1996.
- 유송옥외 2인, 복식문화, 교문사, 1997.
- 이강렬, 가면의 민속학, 서울:경서원, 1986.
- 전완길, 한국화장문화사, 열화당, 1994.
- 정수일, 고대문명교류사, 서울:사계절, 2001.
- 조효순, 한국복식풍속사, 일지사, 1988.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5, 서울:웅진출판사, 1991.
- 華梅, 中國服飾史, 박성실·이수응 역, 서울:경춘사, 1992.
- 황정원, 화장품학, 서울:현문사, 1995.
-
- 김소현, 당시대의 호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박보영, 한국·중국·일본 여성의 색조화장 문화, 경희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7.
- 최해울, 몽골여자복식의 변천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1.

- 詩經，上海古籍出版社本
- 全唐詩(1-25冊)，北京：中華書局，1960.
- 後漢書，中華書局 標點校勘本
- 李時珍，本草綱目，臺灣商務印書館，1983.
- 劉熙，釋名，商務印書館叢書集成本，1939.
- 漢 伶玄，趙飛燕外傳，臺北：藝文印書館
- 西晉 崔豹，高今注，西部叢刊本
- 陳洞原，中國婦女生活史，臺灣商務印書館，1990년 臺九版
- 宋 葉廷珪，海錄碎事，上海古籍出版社，1991.
- 周迅·高春明，中國歷代婦女裝飾，上海：學林出版社，1998.
- 周迅·高春明，栗城延江 譯，女性服裝史，京都書院，1993.
- 李秀蓮，中國化粧史概設，中國紡織出版社，2000.
- 周錫保，中國古代服飾史，北京：中國戲劇出版社，1984.
- 沈從文，中國古代服飾研九，臺北：南天書局有限公司，1988.
- 國際美容造形 第3輯，上海科學普及出版社，1995.
- 胡永芳，閣樓上的 妝顰眉黛，重慶出版集團 重慶出版社，2004.
- 衣袖展風情-清宮服飾之旅，國立故宮博物院
- 高春明，中國服飾名物考，上海出版社，2001.
- Zhou Xun, Gao Chunming, *5000 Years of Chines Costumes*, Periodicals, 1996.

ABSTRACT

A Study on the Eyebrow Make-up of Chinese Women

Kim, Mi Kyoung

Major in Make-up & Special Make-up Effects

Graduate School of Art & Design

Sungshin Women ' s University

China received many make-up cultures such as manufacturing process of cosmetic and make-up style etc. easily by the influence of active exchange with surrounding nations early, and this Chinese developed make-up culture was propagated to Japan via Korea.

This study aimed at examine the feature for the change style of eyebrow make-up which is based on period background and cultural back-ground closely centering around eyebrow make-up out of make-up culture of China which is the center of Oriental make-up culture.

That created the base to be able to study the eyebrow make-up of our country and it became the momentum to illuminate the diverse eyebrow styles of China suitably for the face image of moderns again tried to give help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make-up culture.

So as to examine the change aspect of eyebrow make-up of

Chinese women closely, this study was studied with following contents and method.

In the chapter 1, goal, range and limit point of this study were presented. And, in the chapter 2, development and feature of make-up culture of China were examined as theoretical background, and role and meaning of eyebrow make-up which appeared in Chinese literature and eyebrow make-up to affect look image were studied.

In the chapter 3, so as to examine the feature about the change aspect of eyebrow make-up of Chinese women, eyebrow styles expressed in literature record, drawing and relic data etc. were studied by classifying the historical period of China into ancient time(Sunjin period, Jin·Han period) and middle age(Wijinnambookjo period, Soo·Dang period, Song·Won period, and Myoung·Chung period). In the chapter 4, conclusion was deduced by generalizing above study.

Style of eyebrow make-up changed by the background of culture history such as history, religion and philosophy thought etc., and it was showing the feature of the period well. In the eyebrow styles of Chinese women, many names appear. Then, except special case, change of eyebrow style appeared in accordance with length of eyebrow, thickness of eyebrow, degree of bends, degree of thickness and thinness, and drawing position.

Styles of eyebrow make-up of China appeared through diverse transformation such as Paljami, Soomi, Ami, and Whalmi

etc. on the basis of the long eyebrow of Sunjin period. In addition, as emperor's interest for eyebrow make-up was great in the periods of Han(Mooje), Soo(Yangje), and Dang(Hyunjong) which were the golden age of eyebrow make-up, it could be seen that it was prevalent more diversely and gorgeously in comparison with the shade make-up of other part and that eyebrow make-up was prevalent throughout China by starting from court.

In the future, this researcher tries to present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of modern beauty culture by offering eyebrow form to be suitable for the image and character of moderns through applying diverse eyebrow styles of Chinese women.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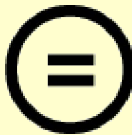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국 여성의 눈썹화장 연구

2009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김 미 경

중국 여성의 눈썹화장 연구

김 정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김 미 경

인 준 서

김미경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 대학원

논문개요

중국은 일찍이 주변국가와의 활발한 교류의 영향으로 화장품제조법과 화장양식 등 많은 화장문화를 쉽게 받아들였으며, 이러한 중국의 발달된 화장문화는 한국을 거쳐 일본에까지 전파되었다.

본 연구는 동양화장문화의 중심지인 중국의 화장문화 중 눈썹화장을 중심으로 시대·문화적 배경에 따른 눈썹화장의 변화양식에 대한 특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눈썹화장을 고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중국의 다양한 눈썹양식을 현대인의 얼굴이미지에 맞게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어 현대 화장문화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중국 여성의 눈썹화장의 변화양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고찰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및 범위와 제한점을 제시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중국의 화장문화의 발달과 특성을 알아보고 중국 문헌에 나타난 눈썹화장 및 인상형성에 미치는 눈썹화장의 역할과 의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여성 눈썹화장의 변화양상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국의 역사적인 시기를 고대(선진시대, 진·한시대)와 중세(위진남북조시대, 수·당시대, 송·원시대, 명·청시대)의 시기로 나누어 문헌기록과 회화 및 유물자료 등에 표현된 눈썹양식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위의 연구를 종합하여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눈썹화장의 양식은 역사, 종교, 철학사상 등의 문화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변화하였으며 그 시대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중국 여성의 눈썹양식에는 많은 명칭이 나타나는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눈썹의 길이,

눈썹의 굵기, 굴곡의 정도, 짙고 옅음의 정도, 그리는 위치에 따라 눈썹양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의 눈썹화장양식은 선진시대의 장미를 기본으로 하여 팔자미(八字眉), 수미(愁眉), 아미(蛾眉), 활미(闊眉) 등으로 다양하게 변형되어 나타났다. 또한 눈썹화장의 전성기인 한(漢)무제, 수(隋)양제, 당(唐)현종 시기에는 황제의 눈썹화장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색조화장에 비해 더욱 다양하고 화려하게 성행하였고, 눈썹화장은 궁중에서부터 시작하여 중국 전역으로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본 연구자는 중국 여성의 다양한 눈썹양식을 응용하여 현대인의 이미지와 성격에 맞는 눈썹형태를 제공함으로써 현대미용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동양문화의 중심지인 중국 화장문화의 발달과 특성	4
2. 문헌에 나타난 중국여성의 눈썹화장	16
3. 인상형성에 미치는 눈썹화장의 역할과 의미	19
III. 중국여성 눈썹화장의 변화양상	23
1. 선진시대 눈썹화장의 변화양상	25
2. 진·한시대 눈썹화장의 변화양상	27
3. 위진남북조시대 눈썹화장의 변화양상	33
4. 수·당시대 눈썹화장의 변화양상	35
5. 송·원시대 눈썹화장의 변화양상	45
6. 명·청시대 눈썹화장의 변화양상	49
IV. 결론	53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1> 중국여성의 지분 사용법	6
<표2> 눈썹형태	22
<표3> 중국의 역사 연대표	24
<표4> 한나라의 눈썹양식	30
<표5> 당나라의 눈썹양식	41
<표6> 당대부녀의 눈썹양식의 변화	42

그림 목 차

(그림1) 檀暈裝을 한 婦女, 宋人 <妃子浴兒圖>局部	12
(그림2) 桃花裝을 한 婦女, 新疆省唐墓出土의 <弈棋仕女圖>局部	12
(그림3) 중국역대여성의 점진양식	12
(그림4) 桃花裝, 花鈿을 한 婦女, 新疆省唐墓出土의 <弈棋仕女圖>局部	13
(그림5) 桃花裝, 花鈿을 한 婦女, 新疆省唐墓出土의 <弈棋仕女圖>局部	13
(그림6) 花卉狀의花鈿을 한 唐代 婦女	13
(그림7) 圓點形花鈿을 한 唐代 婦女	13
(그림8) 唐朝의 花田樣式 圖例	14
(그림9) 斜紅粧婦女	15
(그림10) 斜紅粧婦女	15
(그림11) 滿臉粧靨의 五代女性	15
(그림12) 滿臉粧靨의 五代女性	15
(그림13) 靑石黛硯	32
(그림14) 楚國의 長眉	32
(그림15) 楚國 婦女의 眉式	32
(그림16) 戰國時代 舞戲의 눈썹양식	32
(그림17) 漢나라의 八字眉	32
(그림18) 西漢婦女의 八字眉	32
(그림19) 위진남북조시대의 長眉	43
(그림20) 長眉의 仕女	43
(그림21) 唐代婦女의 柳眉	43
(그림22) 唐代婦女의 却月眉	43
(그림23) 中晚唐婦女의 八字眉	43
(그림24) 唐代婦女의 闊眉	43
(그림25) 唐代婦女의 闊眉	44

(그림26) 唐代婦女的 闊眉	44
(그림27) 晚唐五代婦女的 闊眉	44
(그림28) 唐代婦女的 闊眉	44
(그림29) 唐代婦女的 闊眉	44
(그림30) 晚唐婦女的 桂葉眉	44
(그림31) 宋朝婦女的 到暈粧	48
(그림32) 宋朝皇后	48
(그림33) 宋朝時代의 처진 눈썹	48
(그림34) 宋朝의 婦女	48
(그림35) 元代婦女的 一字眉	48
(그림36) 元代婦女	48
(그림37) 明朝婦女子의 눈썹	51
(그림38) 明朝婦女子의 눈썹양식	51
(그림39) 明朝婦女子의 秀美樣式	51
(그림40) 明朝婦女子의 秀美樣式	51
(그림41) 明朝皇后의 눈썹	51
(그림42) 明代 貴婦	51
(그림43) 明·清朝의 曲眉	52
(그림44) 清朝婦女的 眉式	52
(그림45) 清朝婦女的 眉式	52
(그림46) 淸少女의 눈썹	52
(그림47) 淸代皇后	52
(그림48) 淸朝의 太后	52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인류는 신체를 보호하고 장식하기 위하여 복식을 착용해왔다. 의복이 제2의 피부라면 얼굴에 입혀지는 화장도 또 다른 피부로써 의복 역할을 하며 복장을 정리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화장문화는 자신을 표현하고 정신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유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사회적 기능의 일부분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따라서 화장문화의 연구를 위해서는 각 시대의 사회 속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정치, 경제, 예술, 철학, 미의식, 가치관 등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중국은 일찍이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표방하였으며, 주변국가와의 활발한 교류의 영향으로 외래문화가 쉽게 유입되어 발달된 화장문화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화장문화는 한국을 거쳐 일본에까지 전파되어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지금까지 중국화장에 관한 기존 연구는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안인희는 선진시대부터 위진 남북조시대까지 중국 고대 여성의 화장의 역사를 시대별로 살펴보았으며¹⁾ 박보영은 한국, 중국, 일본 여성의 색조화장을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보고²⁾하였고, 김선영은 14세기에서 18세기를 중심으로 동양과 서양의 화장문화를 고찰³⁾하였으며, 심서주·박옥련은 고대 중국의 역사에서 화장이 가장 화려했던 당대의 화장문화를 고찰하여 보고⁴⁾하였으며,

1) 안인희, “중국 고대 여성 화장 문화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1호, 2005.

2) 박보영(1997), “한국·중국·일본여성의 색조화장문화”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3) 김선영(1992), “동·서양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4) 심서주·박옥련, “당대 화장문화에 관한 고찰”, 경성대학교논문집, 제20집 2권, 1999.

이순자는 당대(唐代)와 송대(宋代)의 면식(面飾)의 특성을 비교⁵⁾하였고, 박춘순·정복희는 중국에서의 연지화장의 전파시기와 배경을 알아보고 시대별 양상에 따라 고찰⁶⁾하였으며, 김소현은 당시대의 호복(胡服)에 관하여 보고⁷⁾한 연구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화장문화 중 눈썹화장을 중심으로 눈썹화장의 변화양상에 따른 특성을 시대별로 고찰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양(梁)원제(元帝) 소역(蕭繹:508-554)은 『代舊娘有怨詩』에서

怨黛舒怨斂, 원망하는 듯한 눈썹을 폼다가 다시 거두고

啼紅拭復垂. 울어서 붉은 눈을 닦고는 다시 눈물을 흘리네. 라고 하였다.

위의 시에서 알 수 있듯이 눈썹은 인간의 희로애락의 감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중국의 역대 여성들은 눈썹 그리는 것을 아름다움으로 삼고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중국 역사상 화장문화의 최대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당대(唐代)가 되면 귀족부녀자들에게 눈썹화장은 화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다른 화장은 하지 않아도 눈썹화장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⁸⁾ 또한 다른 화장에 비하여 가장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여 동시대에도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 시대의 심미적 관점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여성의 눈썹화장을 시대·문화적 배경에 따른 변화양상을 연구하여 정리하고, 중국의 눈썹형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을 제시하여 현대인의 얼굴이미지에 맞게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어 현대 화장문화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면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대 화장문화사 중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눈썹화장의 양식

5) 이순자, “당대와 송대의 면식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제8권2호, 1997.

6) 박춘순·정복희, “연지화장 연구 II- 중국에서의 연지화장 전파와 양상”,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1권 3호, 2006.

7) 김소현(1994), “당시대의 호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8) 박보영, 前掲書, p.51.

을 고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를 바란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제한점

본 논문의 시기적 연구범위는 화장문화에 관한 문헌기록이 나타나는 중국의 선진시대부터 진·한 시대까지의 고대시기와 위진남북조시대, 수·당 시대, 송·원 시대, 명·청 시대까지의 중세시기로 나누어 눈썹화장의 다양한 변화양상과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자료분석을 통한 文獻研究로 이루어졌다. 『초사(楚辭)』, 『설문해자(說文解字)』, 『박물지(博物志)』, 『한서(漢書)』, 『전당시(全唐詩)』 등 중국의 고문헌과 중국의 복식사, 풍속사, 문화사 등의 역사서를 비롯하여 연구 논문 및 정기간행물을 중심으로 중국여성의 눈썹화장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당시의 유물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복식 및 화장풍습의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의 생활상을 표현한 벽화, 도용, 인물화, 풍속화 등의 회화자료와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등을 보충자료로 하여 이를 분석정리 하였다.

분석된 대부분의 문헌자료는 원본을 복제한 영인본으로써, 그에 따른 해석상의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고문헌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여 정리하기 보다는 눈썹화장에 관련된 부분만을 해석함으로써 작가의 정확한 의도를 읽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I. 이론적 배경

1. 동양문화의 중심지인 중국의 화장문화의 발달과 특성

중국에서는 화장(化妝)을 향장(香妝), 장점(妝點), 장식(妝飾)이라 하였다. 역사상의 기록으로 보면 중국에서 미용과 화장술은 선진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초사(楚辭)·대초(大招)』에서는 “분 단장한 하얀 얼굴에 까만 귀밑머리, 꽃향기를 풍기네(粉白黛黑, 施芳澤只)”라고 하였으며, 『한비자(韓非子)·제19권·현학편(顯學篇)』에서는 “모장·서시의 아름다움은 내 얼굴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지와 분과 눈썹먹을 쓰면 그전보다 배나 아름다워지는 법이다(毛嬙西施之美無益吾面, 用脂澤粉黛則倍其初)”라고 하였다. 이는 그 당시에 이미 분바르고 연지 찍고 눈썹을 그리는 화장술이 있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 여성의 화장은 분과 연지를 함께 사용하여 얼굴의 피부색을 정하는 피부화장, 먹을 이용한 눈썹화장을 비롯하여 연지, 액황, 화전 등을 이용하여 볼, 이마와 입술에 장식하는 화장으로 나뉜다.

여기에서는 중국 여성의 화장품과 사용방법을 살펴보면서, 중국 문헌에 나타난 화장문화의 발달과 그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 분(粉)

중국에서 사용되었던 초기 화장품 중 하나인 분은 처음 상·주왕조시대 동안 사용되었다. 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쌀(米)이나 찹쌀, 밤 등의 곡식을 단순히 분쇄해서 만든 것으로 粉자는 ‘쌀가루’라는 의미인 ‘米’자와 ‘分’자가 합쳐 이루어진 것으로 미분(米粉)이라 불린다. 또 하나는 미분에 비해 부착력이 뛰어난 것으로 납과의 화학처리를 통하여 만들기 때문에

연분(鉛粉)이라고 한다. 분은 색상, 첨가물, 형태에 따라 나뉘며 색에 따라 백분과 색분, 납의 첨가여부에 따라 미분, 연분, 형태에 따라 분말, 고형, 액상으로 나뉜다. 미분은 재료의 구입이 용이하고 제조법이 단순한 반면 얼굴에 잘 퍼 발라지지 않고 날 비린내가 나는 단점이 있다. 미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납과 초를 섞은 연분이다. 漢代이후 연분은 대개 저장의 편리를 위하여 수분을 제거한 후에 분말 혹은 고체의 형상으로 제조하게 되었다.⁹⁾

『설문해자(說文解字)·칠편(七編)』 상(上)에서, “분은 얼굴에 바르는 것이다(粉, 所以傅面者也)”라고 하였고, 주(注)에서는 “옛날에 얼굴에 바르는 것으로 미분을 사용하였다(古傅面亦用米粉)”라고 하였다.

『박물지(博物志)·물류(物類)』에서는, “납을 태워 호분을 만들었다(燒鉛錫成胡粉)”고 하여 이를 호분(胡粉)이라 불렀다. 미분(米粉)을 『석명(釋名)·석수식(釋首飾)』에서, “분은 분이다. 쌀을 갈아서 분산한 것이다(粉, 分也. 研米使分散也)”라고 풀이 하였으며, 호분을 『석명·석수식』에서, “호는 호이다. 연지를 개서 얼굴에 도포하는 것이다(胡, 餽也, 脂和以塗面也)”라고 풀이 하였다.

2) 연지(燕脂)

불과 이마뿐 아니라 입술에도 사용하였던 연지는 일종의 홍색 안료로 여성 얼굴화장의 주요 용품이다. 연지는 중국 서북의 흉노지구의 언지산(焉支山)에서 생산되는데 원주민들이 염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연지라는 명칭의 유래가 붉은 화장의 원료인 홍화의 주생산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지는 주왕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흉남화의 즙을 응고시켜 연지를 만들었다. 연 지방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연지라고 이름 하였다(燕脂蓋起

9) 周汛·高春明, 『中國歷代婦女裝飾』(學林出版社, 1998), p.118.

自紂，以紅藍花汁擬作燕脂。以燕國所生，故曰燕脂)”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화장법을 도화장(桃花粧)이라 하였다¹⁰⁾. 한초 이후 중국부녀자들의 화장은 연지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풍부해지기 시작하였다. 연지는 분과 조화시켜서 사용하였는데 뺨 부위의 안색이 너무 희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하였다. 한대 이후 부녀자의 붉은 화장법은 나날이 발전하여 연지와 분을 병용하여 사용하였다. 연지와 분을 이용하여 얼굴색을 표현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표 1>의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표1> 중국여성의 지분(脂粉) 사용법¹¹⁾

명칭	화장법	대상	효과
단훈장 (檀暈粧)	화장 전에 미리 연지와 분을 혼합한 단훈색 분을 직접 얼굴에 바르는 것	중년 이상의 부녀자	장중하고 우아하며 침착한 감각
도화장 (桃花粧)	백색 분을 먼저 바른 후 연지를 바르는 화장법	젊은 부녀자	뺨의 홍색이 강조되어 경쾌
비하장 (飛霞粧)	연지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백색 분을 가볍게 바르는 화장법	노인들에게 적합	화사

단훈장은 화장 전에 먼저 연지와 납분을 조합하여 분홍색을 만든 후 단분(檀粉)을 얼굴에 바르는 것이다. 이러한 화장법은 (그림1)과 같이 얼굴에 바르기 전 이미 하나의 색으로 조합되어 있어서 색채의 통일로 인해 얼굴전체의 색도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정갈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주는 효과가 높아 중년이상의 부녀자들에게 이용되었다.

(그림2)의 도화장은 백분을 먼저 바른 후 연지를 바르는 화장법이다. 그 위치는 양 뺨에 집중되기 때문에 붉은색이 짙게 나타나고 전체 얼굴과의 색상차이가 두드러져 경쾌하게 보이므로 젊은 여성들에게 애용되었다.

10) 宋 葉庭珪 『海錄碎事·卷五·衣冠服用部·釵珥門』(上海古籍出版社, 1991), p.201.

11) 周汛·高春明, 前掲書, p.119.

비하장이란 먼저 얼굴부위에 연지를 바르고 그 다음에 백분을 가볍게 바르는 화장법으로 화사하게 보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노부인에게 적합하였다. 각종의 화장술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장필(張泌)의 장대기(粧臺記)에 비하장(飛霞粧)은 “얇게 연지를 바르고 분으로 얼굴을 바르는(構構施朱, 以粉暈之)”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홍장이외에 고대여성들은 백장을 하기도 하였다. 백장은 연지를 사용하지 않고 납분으로만 하는 흰색화장을 말하며 젊은 과부에게 사용되었다.

3) 미묵(眉墨)

중국 고대 여성들의 색조화장 중에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눈썹을 그리는 일이었다. 중국 여성들이 눈썹을 그리는데 사용한 재료는 석대라는 광물로 간단히 '대(黛)'라고 한다.

사용할 때는 반드시 먼저 돌벼루에 갈아서 분말을 만든 후에 물을 섞는다. 漢代의 눈썹벼루는 중국 남북각지의 漢墓 속에서 항상 발견된다. 예를 들면 江蘇省 泰州 新莊 東漢墓 후한시기 묘에서 출토된 물건은 장방형으로 길이 10cm, 넓이가 5cm, 두께가 0.5cm인데 그 중 한 면은 비교적 투박하고 다른 한 면은 평평하다. 평평한 면은 가는 모래모양으로 가공되어 미끄럽지 않은 연마용으로 제조되었는데 출토된 눈썹벼루 표면에서 점착력이 있는 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도 있다. 광서성(廣西省) 귀현(貴縣) 나박만(羅泊灣) 1호 漢墓에서 발견된 흑색의 석대는 부녀자들의 소장용 빗 함안에 담겨 있었는데 출토 시에 이미 풍화되어 버렸다.

수당이후 부녀자들이 눈썹을 그릴 때 '나대(螺黛)'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가공과 제작과정을 거쳐 각종의 고정 형성된 먹덩어리로 물에 담가 바로 사용했으며 석묵(石墨), 화미묵(畫眉墨)이라 하였다.¹²⁾ 송대에 이르러 색

이 좋고 섬세하며 사용이 편리한 연묵(烟墨)이 발명되어 나대를 대신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중국여성의 화장문화사상 눈썹양식의 변화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漢무제, 隨양제, 唐현종시기이다.¹³⁾

4) 입술연지

고대 중국 부녀자들의 얼굴화장 중에 입술을 그리는 풍속이 있다. 이것을 점진(點唇)이라고 하는데 진지(唇脂:입술연지)를 입술 위에 바르는 것을 말한다. 원래 입술화장은 북방 유목민족의 풍습이었는데 강렬한 태양빛이나 한풍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적인 목적에서 발생한 것이다.

입술연지의 주원료는 단(丹)이며, 홍색의 광물질 안료로 주사(硃砂)라고도 하며, 이 자체는 점성이 없으므로 적당량의 동물기름을 첨가하여 제조하여 방수의 성능과 색채의 광택을 더하게 하였다.

당나라 18대 희종(僖宗), 19대 소종(昭宗)에 이르러 여성들이 입술에 연지를 바르는 화장법¹⁴⁾이 생기고 이런 풍속이 점차 도시에 유행하게 되고 입술화장은 미인과 추녀를 판가름하게 하는 기준이 되었다.

중국여성들의 입술 그리는 방식은 귀엽고 농염한데 기본적인 특징은 불변하였다. 이상적인 입술의 형태는 앵두 같은 입술이며 본래의 입술의 형태를 따르지 않고 더 작게 그리거나 새로운 형태를 추구하였다. 백거이(白居易)의 가기(家伎)인 번소(樊素)의 입술이 이상적인 아름다운 입술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하여 “앵두 같은 번소의 입술(櫻花樊素口)”¹⁵⁾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입술에 바르는 연지는 그 농담의 차이에 따라 명칭도 각기 다르다. 그 종류를 들면 연지운품(胭脂暈品)·석류교(石榴嬌)·대홍춘(大紅春)·소홍춘(小紅

12) 周汎·高春明, 前掲書, p.126.

13) 김서주·박옥련, 前掲書, p.361.

14) 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일지사, 1988), p.319.

15) 周汎·高春明, 前掲書, p.135.

春)·눈오향(嫩吳香)·반변교(半邊橋)·만금홍(萬金紅)·성단심(聖檀心)·노주아(露珠兒)·내가원(內家圓)·천궁교(天宮巧)·각아은(恪兒殷)·담홍심(淡紅心)·성성운(猩猩暈)·소주룡(小朱龍)·격쌍당(格雙唐)·미화노(眉花奴) 등이 있었다.¹⁶⁾

사회기풍의 변화와 심미안의 변천에 따라 사람들의 입술 그리는 형식 또한 변화를 가져왔고 각 시기에 따라 입술 그리는 양식이 특징을 갖추었는데 (그림3)과 같다.

원화(元和) 말기(806-820) 토번 등의 외적이 들어와서 황제 헌종이 환관에게 암살되는 불행한 시대에는 어두움을 상징하는 화장법으로서 붉은 기를 없앤 오고를 입술에 바르는 일이 유행하였다.¹⁷⁾

5) 액황(額黃)

액황(額黃)은 아황(鵝黃),아황(鴉黃)이라고도 하며 오래된 화장법으로 황색의 안료를 이마에 그려 넣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 부녀자들이 이마 부분에 황색을 칠하는 것은 남북조시대부터 유행한 풍습으로 불교의 유행과 관계가 있다. 남북조시대는 불교의 전성기였는데, 부녀자들은 금색을 칠한 불상에서 영감을 얻어 이마에 황색을 칠하게 되었고 시간이 오래지나 황액의 풍습이 형성되었다. 문헌기록을 보면 이마부분을 누렇게 화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염화(染畫)로써 황색의 염료를 묻혀서 이마에 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찰진 것을 붙여서 완성하는 방법이다. 염화법에 비하여 점첩법(黏貼法)은 비교적 간단하다.¹⁸⁾

6) 화전(花鈿)

화전(花鈿)은 (그림4),(그림5),(그림6),(그림7)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미간이나

16) 陳東原, 『中國婦女生活史』(臺灣商務印書館, 1990), p.103.

17) 杉本正年, 문광희역, 『동양복장사논고 -중세편』(경춘사, 1997), p.212.

18) 김서주·박옥련, 前揭書, pp.369-371.

뺨에 꽃, 달, 별 등의 무늬를 그려 넣는 화장으로 이마에 하는 것을 화전, 뺨에 하는 것을 엽전(靨鈿)이라 한다. 화전의 색채는 액황에 비하여 풍부하고 많았다. 액황은 일반적으로 한 가지 색만을 사용하는데 반하여 화전은 많은 색이 사용되었고 화전의 색채는 재료 자체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한 각종의 안료로 염색이 가능하여 가장 채색이 정밀하고 아름다운 것은 취전(翠鈿)으로 각종 새의 깃털로 제작하는 것으로 청록색을 띤다. 화전을 붙이는 풀물은 아교(阿膠)이며 물고기 부레로 제조되는데 그 점성이 매우 뛰어나며 사용할 때에는 입감을 붙거나 소량의 침을 바르면 곧 점액이 용해되어 붙게 되며, 화전을 떼어낼 때에는 약간의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곧 벗어졌다. (그림8)은 화전양식을 나타낸 것으로 형태와 색상의 다양함을 볼 수 있다.

7) 사홍(斜紅)

(그림9),(그림10)의 사홍(斜紅)은 여인들의 뺨에 붙이는 부분화장이다. 당대의 고분에서 출토된 여자 인형을 보면, 얼굴에 두 줄기의 붉은색 초승달 모양이 그려져 있는 것이 보인다. 이런 화장은 선명하여 형상은 괴이하다. 어떤 것은 고의로 파괴된 형상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멀리서 보면 희고 깨끗한 뺨 위에 양쪽에 상처흔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런 장식을 ‘사홍’이라고 한다. 이는 고대에 유행하였던 분장으로 궁중의 무희 뿐만아니라 명문귀수까지 행한 것으로 고대 사회의 심미적 정취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

8) 면엽(面靨)

뺨의 보조개에 하는 장식으로 장엽이라고 한다. 화전과 마찬가지로 장엽도 서역의 호속(胡俗)에서 시작 된 것이다.¹⁹⁾

19) 杉本正年, 문광회역, 前掲書, p.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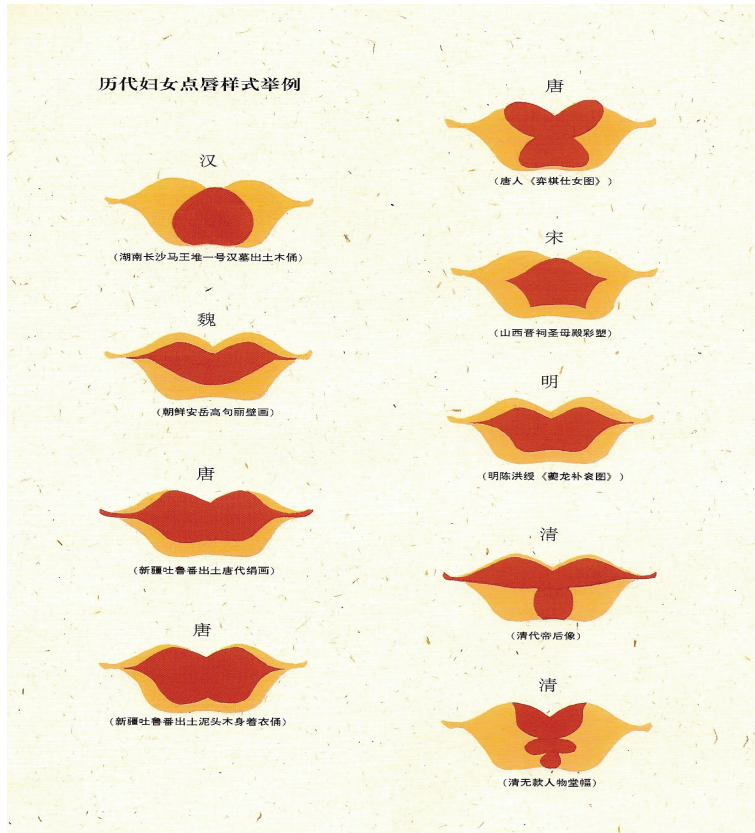
고대에는 적(的)이라고 하였으며 여인들이 뺨 위에 적을 바르는 것은 원래 화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중생활 중의 일종의 특수한 표기였던 것이 민간에 전해지면서 점차 일종의 화장법으로 변한 것이다. 면엽의 모양은 당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콩 모양 크기로 두 개의 둥근 점을 찍었다. 당 이후 면엽의 부위는 넓어지고 다양해졌다. 만당오대이후 정치 경제 등에 의해 복장 형식은 보수적으로 변하나 장식풍조는 오히려 만연되어 이 시기에는 전통적인 원점, 화훼 외에 새, 짐승의 도형, 심지어는 이러한 무늬들을 얼굴 가득히 붙이기도 했는데 (그림11)과 (그림12)의 벽화 중에 잘 나타나있다.



(그림1) 檀暈裝을 한 婦女
宋人 <妃子浴兒圖>局部



(그림2) 畫桃花裝을 한 婦女
唐人 <弈棋仕女圖>局部



(그림3) 중국역대여성의 점진양식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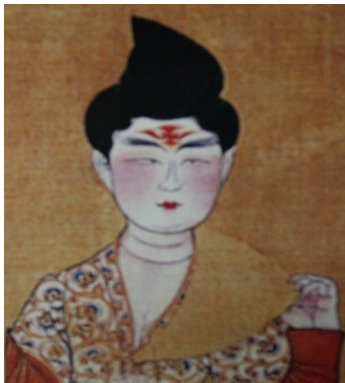
20) 李秀蓮, 『中國化妝史概設』(中國紡織出版社, 2000), p.100.



(그림4) 桃花裝, 花鈿을 한 婦女
新疆省唐墓出土의 弈棋仕女圖



(그림5) 桃花裝, 花鈿을 한 婦女
新疆吐魯番唐墓出土<弈棋仕女圖>局部



(그림6) 花卉狀的花鈿 唐代 婦女
新疆吐魯蕃阿斯塔那唐墓出土絹畫



(그림7) 圓點形花鈿的 唐代婦女
新疆 吐露唐墓出土泥俑



(그림8) 당조의 화전 양식 도례21)

21) 李秀莲, 前掲書, p.55.



(그림9)斜紅粧婦女， 新疆吐魯蕃阿斯塔那唐墓出土 泥頭木身俑



(그림10)斜紅粧婦女
新疆吐魯蕃阿斯塔那唐墓出土絹畫



(그림11)滿臉粧靨的 五代女性
敦皇幕高窟61窟 供養人壁畫



(그림12)滿臉粧靨的 五代女性
敦皇幕高窟61窟 供養人壁畫

2. 중국문헌에 나타난 눈썹화장

“눈썹이 눈썹을 그리는 푸른 먹과 같다(眉似翠黛)”, 또는 “눈썹이 춘산을 재촉한다(眉蹙春山)” 등은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를 눈썹의 모양으로 형용하여 묘사한 것이다.

『시경(詩經)』에 제강장(齊莊姜)의 아름다움에 대해 노래한 시중에 아미(蛾眉)라는 표현이 있다. 이것은 두 눈썹에 대한 묘사로서 여인의 눈썹이 누에나방의 촉수처럼 가늘고 길며 구불구불하다는 것이다. 매승(枚乘)의 『칠발(七發)』에서는, “하얀 이와 아름다운 눈썹(皓齒蛾眉)”라고 하였고 『이소(離騷)』에서는, “못 여인들은 나의 아름다운 눈썹을 질투하네(衆女嫉余之蛾眉兮)”²²⁾라고 하였다. 따라서 아미는 후세에 미인을 일컬을 때 미인의 대명사로 사용하였다. 사람들의 눈썹과 눈의 아름다움에 대한 숭상은 여성으로 하여금 눈썹에 대한 수식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부녀자들에게 눈썹을 그리는 풍습이 나타나게 하였다.

분대(粉黛)의 본래 의미는 분과 눈썹을 그리는 먹을 이르는 말이지만 화장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 아름답게 화장을 한 미인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로써 분대 즉 얼굴에 분을 칠하고 눈썹을 그리는 일이 화장의 중심적인 행위이며, 화장품에 있어서 분과 눈썹을 그리는 먹이 중요한 화장품의 종류임을 알 수 있다.

徐陵의 『玉台新詠』序에는, “남조에서 생산되는 먹은 이마를 곱게 그려주고 북방연지산에서 나는 연지의 홍은 보조개를 만드는데 뺄 수 없는 것이다(南都石黛最發蛾 北地燕支偏開兩靨)”라고 읊고 있다.²³⁾

宋玉의 『신녀부(神女賦)』에서 “눈썹은 예쁘게 연이어 누에나방이 되어 나르네, 붉은 입술은 단과 같도다(眉聯娟以蛾張, 朱唇的其若丹)”²⁴⁾라는 기록

22) 『全唐詩 卷184』, p.1882.

23) 杉本正年, 문광희역, 前掲書, p.56.

이 있다.

당나라 宇文士의 『粧臺記』에는, “진시황이 궁에서…… 모두 붉게 화장을 하고 먹으로 눈썹을 그리게 했다(始皇宮中……皆紅粧翠眉)”라고 하였다.

주경여(朱慶餘:799-?)는 『시험에 임박하여 수부원의랑 장적에게 바치노라(近試上張籍水部)』²⁵⁾의 시에서

“妝罷低聲問夫, 화장을 마치고 나지막히 남편에게 묻기를

畫眉深淺入時無, 눈썹 화장 정도가 유행에 맞느냐고”

비록 위의 시는 과거시험을 앞두고 장적에게 자기의 능력을 평가받고 싶어 시집 온 새댁의 긴장된 마음을 여성의 화장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이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은 화장 중에서도 눈썹화장에 더욱 신경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눈썹화장이야기는 『漢書·권76·장창열전(張敞列傳)』의 기록에 나온다. “장창은 위엄이 없어 때때로 조회를 과하고 나면 말을 타고 장대가 돌아다녔고, 마부에게 수레를 달리게 하면서 자기의 부채로 말을 때리기도 하였다. 또는 아내에게 눈썹을 그려주기도 하였는데 장안 사람들은 ‘장 경조운의 눈썹이 아름다워’라고 수근 거렸다. 법관이 이일로 장창을 탄핵하였다. 천자가 그에게 물으니 장창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소신이 듣기에 규방에서 부부사이에는 눈썹을 그리는 것 이상의 일이 있다고 합니다’(敞無威儀. 時罷朝會, 過走馬章臺街, 使御史驅, 自以偏面柎馬. 又爲婦畫眉, 張安中傳‘張京兆眉撫’. 有司以秦敞, 上問之, 對曰:“臣聞閨房之內, 夫婦之私, 有過於畫眉者.”)’”라고 하였다. 이에 황제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한다. 장창이 자신의 처에게 눈썹을 그려줄 때 사용한 붓은 ‘대라’ 혹은 ‘대(黛)’이다. 이는 원래 청록색의 안료인데 화가들이 주로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였고 여성들도 이것으로 눈썹을 그렸다. 『석명(釋名)·석수식(釋首飾)

24) 『文選 권19』(中華書局, 1977), p268.

25) 『全唐詩 권 515』, p.5892.

)』 26)에서, “대는 대이다. 눈썹 털을 제거하고 눈썹먹으로 그곳에다 대신 그려 넣는다(黛, 代也, 減眉毛去之, 以此畫代其處也)” 라고 하였다. 따라서 ‘대’는 여성의 대명사가 되었다.

도연명(陶淵明:365-427)은 한정부(閑情賦)에서, “원컨대 눈썹이라면 눈썹먹이 되어, 바라보는 눈짓을 따라 움직이고 싶다(願在眉而爲黛, 隨瞻視以閑揚)”라고 하였다.

한유(韓愈:768-824)는 『반곡으로 돌아가는 이원을 전송하며 쓴 서문(送李願歸盤谷序)』에서

“粉白黛綠者, 列屋而閑居. 분 바르고 눈썹 그려 곱게 분단장한 희고 고운 미녀들이 집안에 줄지어 한가로이 거주한다.” 고 하였다.

지금까지 눈썹화장에 관련된 문헌기록을 살펴보았다. 눈썹화장의 양식은 다른 부분의 화장에 비해 많은 변화를 지니고 있어서 시대별에 따른 차이 뿐 아니라 동시대에도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26) 劉熙, 『釋名, 卷4』(商務印書館叢書集成本), p.76.

3. 인상형성에 미치는 눈썹화장의 역할과 의미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여러 형태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 영위되고 있다. 때문에 사람들은 나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형성되어 상호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길 바란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만남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첫 만남에서의 좋은 이미지는 이후의 관계를 달라지게 한다. 외모와 표정, 스타일, 분위기, 옷차림 등 시각적인 요소들이 첫인상을 좌우한다. 특히 첫인상에서 얼굴은 그 형태학적 특성에 따라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성격, 심리상태, 생활상 등을 나타낸다.

또한 현대와 같은 속도의 시대에는 상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외모가 중요하며, 사람들은 그것이 곧 경쟁력이고 자본이라는 사회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화장은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개성을 살리고 얼굴의 결점을 감소시키면서 장점을 돋보이게 하여 좀 더 아름답게 가꾸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화장은 사회적 이미지를 유지해가는 수단이며 특히 눈썹화장은 매력적인 얼굴인상을 만드는 중심이 되기도 한다.²⁷⁾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일컬어지며 대인관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 마주치는데 시선의 위치는 눈과 눈 사이 즉, 눈썹과 눈썹사이의 미간을 말한다.

눈썹은 얼굴의 상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얼굴의 형태미에 영향을 끼친다. 여성이 화장을 할 때 쉽게 변형시켜 목적인 바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 눈썹이다. 곡선, 직선, 각진 선 등을 만들어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위치, 각도, 크기, 방향을 조절하여 얼굴의 구도에 착시현상을 일으키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또한 눈썹에 색을 부여하여 농담을 조절하고 눈

27) 조용진, 『얼굴-한국인의 낫』 (서울:사계절, 2000), p.34.

과의 조화와 강약의 변화를 줄 수도 있으며 눈썹은 사람의 의지와 성격을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눈썹은 근육의 영향으로 눈과 쌍을 이루고 이것이 상황에 따라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표현해내는 눈썹의 형태를 만들어 얼굴의 표정을 쉽게 바꿀 수 있다. 색조화장이 자신만의 컬러로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게 만든다면, 눈썹화장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상을 선명하게 심어줄 수 있는 공로자이다.²⁸⁾

인상학에 있어서, 사람의 이마 밑에 있는 눈썹은 형상에 따라 인간의 성격과 명운을 달리하고 지배한다. 눈썹은 수명의 장단과 형제간의 인연, 친밀과 소원, 또 지혜의 현우, 즉 총명도를 살피고 빈부의 상을 가려내며 노후의 고독을 예견하고 나아가 정력의 강약과 이성 관계를 떠보는 중요한 포인트로 삼는다. 인상학적으로 김성현의 『한국인의 얼굴·한국인의 운명』 속에는 많은 종류의 눈썹을 제시하고 있다.²⁹⁾ 그러나 눈썹의 형태는 6가지 유형이 일반적이다.

기본형 눈썹은 약간 위로 눈 모양을 하고 올라가다가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며 내려온 경우이며, 직선적인 눈썹은 일명 일자눈썹이라고 불리는 모양으로 눈썹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의 차이가 별로 없다. 화살모양 눈썹은 위로 솟은 정도가 심해 화살이 날아가는 모양으로 생긴 눈썹이다. 눈썹의 시작부분과 끝나는 점의 높이가 거의 같다. 아치형의 눈썹은 둥근 다리 형태의 눈썹으로 눈썹의 시작점과 끝나는 점의 높이가 거의 같다. 각이 진 눈썹은 눈썹이 평범하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꺾어진 형상을 한 눈썹이다. 처진 눈썹은 일반적인 눈썹형태의 반대 형상을 띠고 있다. 눈썹 시작 선에서 아래로 완전히 처진 눈썹이다. <표2>는 6가지 눈썹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얼굴형에 따른 눈썹화장의 이미지에 대하여 둥근 얼굴형과 오각형 얼굴에는 기본형의 눈썹화장이 가장 잘 어울리며, 긴 얼굴형에는 직선형의 눈썹

28) 신단주, 『메이크업아카데미』(웅진출판(주), 1996), p.77.

29) 김성현, 『한국인의 얼굴·한국인의 운명』(동학사, 1992), pp.178-190.

화장, 역삼각형과 사각형의 얼굴에는 아치형 눈썹화장이 잘 어울리며, 얼굴형과 상관없이 아치형의 눈썹은 젊고 귀엽고 청순하고 따뜻한 이미지가 가장 잘 표현되고 있으므로 얼굴형보다는 눈썹화장이 얼굴이미지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눈썹의 방향성에 따라서의 이미지의 변화는 처진형 눈썹화장은 나이가 들어 보이고 촌스럽고 둔하고 답답하고 소극적인 이미지가 강하며, 화살형 눈썹은 예리하고 시원하고 차가운 이미지로 보인다. 또한 눈썹 산의 각이 꺾일 수록 요염한 이미지가 강하고 눈썹 산이 수평일수록 답답한 이미지가 강하다.³⁰⁾

이러한 이유로 최근 연기자들은 눈썹을 이용해 개성 강한 캐릭터를 표현하려 한다. 최근 연기자들은 새 작품에 들어갈 때마다 눈썹에 손을 대는 이유는 눈썹의 굵기와 모양에 따라 인상과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눈썹을 뽑고 화장을 하는 것은 여자 연기자뿐 아니라 남자 연기자들도 눈썹 모양을 새롭게 만들면서 눈썹화장으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³¹⁾

이상의 결과, 인상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각자 개개인의 얼굴형을 제대로 파악하고 눈, 코, 입, 등의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와 균형을 이루는 눈썹화장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눈썹의 각도, 눈썹꼬리의 방향, 눈썹색상 등 눈썹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눈썹화장을 해야 할 것이다.

30) 강은주, 눈썹화장이 얼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패션뷰티학회지3(2), 2005, pp.34-36

31) 송은주, 스포츠서울닷컴, 2008.10.11.

<표2> 눈썹의 형태³²⁾

명 칭	눈썹 형태	이 미 지
기본형 (표준형)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의 눈썹이며 어떤 형에나 잘 어울린다.
직선형 (일자형)		남성적인 느낌의 눈썹이며 젊고 신선해보이며 장방형의 얼굴에 적당하다.
화살형 (상승형)		개성 있고 동적인 느낌이 며 둥근 얼굴이나 턱이 각진 얼굴에 잘 어울린다. 눈이 작아 보인다.
아치형		여성적이며 안정된 느낌과 눈이 커 보인다. 이마가 넓은 사람, 턱이 각진 사람, 역삼각형, 다미아몬드 형에 어울린다.
각진형 (갈매기형)		단정하고 세련된 느낌의 눈썹. 여성적이며 어른스러워 보이기도 하므로 오피스 makeup에 적당하다. 둥근얼굴, 삼각형 얼굴
처진형		나이 들어 보이며 둔하고 답답하며 소극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32) 강경화, 『메이크업 총론』 (APC, 2000), p.50.

Ⅲ. 중국여성 눈썹화장의 변화양상

중국의 역사적 시기를 <표3>과 같이 중국화장의 기반이 마련되었던 선진시대, 서역과의 교역을 통해 서역의 화장문화를 받아들인 한나라를 중심으로 서술한 진·한시대의 고대 시기와, 한나라의 화장양식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위진남북조시대, 수·당시대, 송·원시대, 명·청시대인 중세의 시기로 나누었다. 본 논문에서는 시대·문화적 배경에 따른 중국 여성의 눈썹화장의 특성을 살펴보고 문헌기록에 표현된 눈썹양식에 대하여 고찰 하고자 한다.

<표3> 중국의 역사 연대표

선진시대	하(夏)		약 B.C 2세기 - 약 B.C 16세기
	은(殷)		약 B.C 16세기 - 약 B.C 11세기
	서주(西周)		약 B.C 11세기 - 약 B.C 771년
	동주(東周)	춘추(春秋)	B.C 770년 - B.C 476년
전국(戰國)		B.C 475년 - B.C 221년	
진한시대	진(秦)		B.C 221년 - B.C 206년
	한(漢)	서한(西漢)	B.C 206년 - A.D 23년
		동한(東漢)	A.D 25년 - 220년
위진남북조시대	삼국(三國)	위(魏)	220년 - 265년
		촉(蜀)	221년 - 263년
		오(吳)	222년 - 280년
	진(晉)	서진(西晉)	265년 - 316년
		동진(東晉)	317년 - 420년
		16국(十六國)	304년 - 439년
	남조(南朝)	송(宋)	420년 - 479년
		제(齊)	479년 - 502년
		양(梁)	502년 - 557년
		진(陳)	557년 - 589년
	북조(北朝)	북위(北魏)	386년 - 534년
		동위(東魏)	534년 - 550년
		서위(西魏)	535년 - 557년
		북제(北齊)	550년 - 577년
		북주(北周)	557년 - 581년
수당시대	수(隋)		581년 - 618년
	당(唐)		618년 - 907년
	오대십국(五代十國)		907년 - 979년
송원시대	송(宋)	북송(北宋)	960년 - 1127년
		남송(南宋)	1127년 - 1279년
	요(遼)		916년 - 1125년
	금(金)		1115년 - 1234년
	원(元)		1271년 - 1368년
명청시대	명(明)		1368년 - 1644년
	청(淸)		1644년 - 1911년

1. 선진시대 눈썹화장의 변화양상

선진시대는 황하문명을 중심으로 고대국가의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중국문명사에서 최초로 고대국가체제를 갖춘 하(夏), 은(殷), 주(周)를 비롯하여 제(齊), 진(晉), 초(楚), 연(燕), 조(趙), 위(魏), 한(韓)의 7개국이 각기 패권을 다투던 춘추전국시대(B.C 722-B.C 221)를 거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B.C 221)하기 이전까지를 선진시대라 일컫는다. 선진시대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하였으며 철제도구의 사용으로 생산력이 증대되는 시기였다. 문화적으로는 중국문화사의 기본적인 형식의 토대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선진시기의 눈썹을 그리는 풍습은 일찍이 주왕조(周王朝)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여진다. 선진시대 사람들은 양 눈썹을 운명의 시작이라는 표면적 상징의 의미로 생각하여 자연스럽게 ‘미목(眉目)’의 장식에 의미를 두게 되었다. 『초사』, 『한비자』 등의 문헌에 보면, ‘분백대흑(粉白黛黑)’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눈썹을 그리는 재료로는 대(黛)가 위주이고 이는 화미(畫眉)를 나타낸다(그림13). 이 시기의 구체적인 눈썹형태를 제시하는 유물을 살펴보면, (그림14)의 하남성(河南省) 신양현(信陽縣)의 전국묘(戰國墓)에서 출토된 옷칠을 한 목우(木偶)와 (그림15)의 호남성(湖南省)의 전국묘에서 출토된 중국 최초의 견본화(絹本畫)가 있다. 또한 전국시대 무희들의 모습의 유물인 (그림16) 등에서 제시된 눈썹의 형태는 비록 넓고 좁은 정도의 두께와 곧고 굽은 굴곡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일종의 장미(長眉)로 표현된 눈썹양식이다.

이와 같이 선진시대의 중국인들은 형태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으나 긴 눈썹을 그리고 눈썹을 굽고 진하게 치장한 흔적이 보인다.

선진시대 부녀자들의 눈썹을 그리는 방식은 눈썹을 깨끗하게 없앤 후 원래의 눈썹 위치에 원하는 눈썹 형태를 만들었다. 『楚辭』에서 말하는 “아

미(蛾眉)”역시 선진시대의 눈썹형태인 가늘고 긴 눈썹 양식과 일치 한다.

장미(長眉)에 관련 된 문헌 기록을 보면,

서진(西晉) 최표(崔豹)의 『고금주(古今註)·잡주(雜註)』(사부총간본)의 기록에 의하면, “위나라 궁녀들은 긴 눈썹 그리는 것을 좋아하였다(魏宮人好畫長眉)”라고 하였으며 사마상여(司馬相如: B.C 179-117)의 『상림부(上林賦)』에서는, “긴 눈썹은 굽고 가늘며 빛나는 눈동자는 멀리 바라본다.(長眉連娟, 微睇綿貌)”라고 하였다.

이상은은 『무제2수(無題二首)』³³⁾에서, “여덟 살에 거울을 몰래보며 긴 눈썹을 그릴 수 있었네(八歲偷照鏡, 長眉已能畫)”라고 하였고 또 『나비3수(蝶三首)』³⁴⁾에서, “긴 눈썹을 그리고 나서 수놓은 발을 열어 짓히고(長眉畫了繡簾開)”라고 하였다.

진도옥(秦韜玉)은 『빈녀(貧女)』에서, “두 눈썹 길게 그리는 화장 자랑하지 않는다(不把雙眉鬪畫眉)”라고 하여 가난한 처녀의 소박한 심성을 격찬하였다.

33) 『全唐詩 卷 539』, p.6165

34) 『全唐詩 卷 539』, p.6165

2. 진(秦)·한(漢)시대 눈썹화장의 변화양상

진나라가 통일한 이후부터 동한이 멸망하는 220년까지를 진·한 시대 라 한다. 진(秦, B.C 221년- B.C 206년)은 시황제에 의해 전국시대를 통일한 제국이며 한(漢, B.C 206년- B.C 220년)은 진 이후 중국의 통일 왕조이다. 진나라는 통일을 이룩하였으나 지나친 노역과 무거운 세금을 인민들에게 부여하여 2대에 이르러 멸망하였다. 한 왕조는 약 400년간 지속 된 중국의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시기 중의 하나이고 오늘날에 중국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한족 역시 이 한 왕조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전한(前漢)왕조는 기원 8년 외척 왕망(王莽)의 반란에 의해 멸망되고, 왕망은 신(新)을 건국했으나 불과 17년으로 망하고, 기원25년 한실의 일족인 유수(劉秀)가 일어나 한조(漢朝)를 재흥하여 도읍을 하남성의 낙양(洛陽)으로 옮겼다. 이 낙양 왕조를 후한이라고 하며 동한(東漢)이라고도 한다. 후한은 14대의 헌제(獻帝)에 이르러 위(魏)에게 멸망(B.C 220년)된다.

이 시대에 중국은 유교를 공식 국교로 승인하고 국가의 기본 체제를 정비하였다. 인구는 5천만에 달했으며 농업, 수공업, 상업 등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갔다. 이러한 문화적 발전은 주위의 한반도, 베트남, 몽골, 일본, 중앙아시아 등의 주변 국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진나라에 비하여 한나라는 대부분 옛것을 따르면서 경제회복과 사회안정을 이루어 나갔다. 한 무제 때는 실크로드를 통하여 서역과의 무역이 활발해졌으며 여러 나라, 민족과의 교역을 통하여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사회풍속의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문화의 변화에 의해 후한말기에는 부인의 화장법에도 새로운 변화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선진시기 이후에 중국여성들의 눈썹양식은 다양하고 풍성하게 표현된다. 중국부녀자의 화장문화사상 눈썹양식 변화의 전성기는 한무제, 수양제, 당현

중 시기였다.

한대 중기 궁중부녀자들은 눈썹 그리는 방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여 중국 눈썹양식 역사상 제1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한나라시기에 성행했던 눈썹양식은 선조 진나라의 풍습을 이어받아 장미가 유행하였다.

『粧臺記』에서, 한 무제의 궁녀들은 ‘팔(八)’자 모양의 눈썹을 그렸다(漢武帝宮人, 掃八子眉)라고 하였다. (그림17)과 같이 팔자미는 한대 궁녀에게서 시작된 눈썹화장으로 이것의 형태는 눈썹을 그릴 때에 눈썹 머리 부분을 높이 올리고 눈썹 끝부분은 낮게 만들어 ‘팔(八)’자 모양이 되게 하였다. 팔자미 역시 일종의 장미의 일종이다. (그림18)은 호북운봉대분두서한묘에서 출토된 목우인데, 눈썹양식을 보면 가늘고 긴 장미의 형태를 하고 있다.

또한 일반 부녀자들 사이에 유행한 원산미³⁵⁾는 한대 탁문군(卓文君)에게서 시작되었으며 『서경잡기(西京雜記)·상여사갈(相如死渴)』에서, “탁문군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눈썹색깔은 먼 산을 바라보는 듯하고 두 뺨은 언제나 부용같다(文君姣好, 眉色如望遠山, 臉際常若芙蓉)”라고 하였다. 눈썹색깔이 먼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옅었는데 당시의 여성들이 이를 본받아 흉내 내었다고 한다.

한대(漢代)의 영현(伶玄)이 저술한 『조비연열전(趙飛燕列傳)』에 의하면, “합덕(合德)³⁶⁾은 새로 목욕하여 구곡의 심수향을 바르고 권발(卷髮)하여 신계(新髻)라 부르고 눈썹을 옅게 한 것을 원산대(遠山黛)라 부르며…(合德新沐, 九曲沈水香, 爲卷髮, 號新髻, 爲薄眉, 號遠山黛…)”³⁷⁾라고 기록되어 있다.

원산대는 눈썹의 색은 연하게 하고 눈썹의 산에 굴곡을 주게 그리지만 긴 눈썹의 일종이다.

35) 연산미(連山眉)라고도 한다.

36)전한 무제의 애첩이었던 조비연(趙飛燕)의 동생이며 쌍생아였다.

37) 杉本正年, 문광희역, 『동양복장사논고-고대편』 (경춘사, 1997), p.153.

원제(元帝) 때는 수미(愁眉)가 출현하였는데, 수미는 그 형식에서 서한의 팔자눈썹과 비슷하고 긴 눈썹의 일종에 속한다. 눈썹꼬리는 아래로 처지고 눈썹머리는 질게 드리워지고 배합할 때 연지없이 화장하는데 두드러지게 고의적으로 처량함을 나타낸다.³⁸⁾

그 이후 또 다른 수미의 눈썹양식이 나타났다. 후한에 이르러 재력 있는 부상 및 지주계급의 사치와 이에 자극을 받은 귀족계급의 사치는 극에 달했으며 귀족계급은 유행을 주도하여 나갔다. 특히 후한 7대 순제(順帝)시대 재상 양기(梁冀)와 그의 처 손수(孫壽)는 새로운 유행을 창출하였다. 양기의 처 손수가 창출한 화장법 중 눈썹화장은 수심을 머금은 모습으로 눈썹을 그린 수미(愁眉)였다.

『후한서(後漢書)·권34·양기열전(梁冀列傳)』에 의하면, “양기의 처 손수는 용모가 아름답고 요염한 모습을 잘 지어, 찡그린 눈썹과 우는 듯한 화장을 하고…(冀妻孫壽, 色美而善爲妖態, 作愁眉啼馬妝…)”라고 하였고, 『풍속통의(風俗通義)·佚文·服妖』에서, “환제 원가 연간에 경사의 부인들은 찡그린 눈썹과 우는 듯한 화장…(桓帝元嘉中, 京師婦人作愁眉, 啼妝…)”³⁹⁾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찡그린 눈썹은 가늘고 굽은 것이며 우는 듯한 화장이란 눈 아래를 얹게 바른 모양이 눈물자국 같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손수의 변태적인 화장은 남들에게도 가련하고도 유약한 여성 심미관을 심어주어 경사(수도)에서는 일제히 모두 이를 모방하여 본받았으며, 점차 장안과 낙양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유행을 ‘양씨(梁氏)의 신장(新裝)’이라고 불렀다.⁴⁰⁾

서한 초기에는 여인들이 여전히 선진시대의 기풍을 좇아 긴 눈썹을 숭상하였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장미(長眉)가 나타난다. 이러한 긴 눈썹 형식은

38) 『국제미용조형』 제3집, 1995, p.10

39) 『風俗通義校注(下)』(北京 中華書局, 1981), p.567.

40) 杉本正年, 문광희역, 前掲書, p.150.

선진에서 동한말까지 유행하였고 이처럼 가늘고 긴 눈썹은 대부분 원래의 눈썹을 제거한 후에 다시 그렸는데 그렇지 않으면 효과 있게 그리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후한말기에는 눈썹 털을 모두 깎아 내고 다시 먹으로 눈썹을 그리는 풍습이 일반화되어 초승달 모양의 가는 눈썹 형이 유행하였다. 유희(劉熙)의 『석명(釋名)』의 기록을 보면, “눈썹먹으로 대신한다. 눈썹을 없애고 먹으로 그 자리를 채운다”고 하였다.

한대 부녀자들은 장미 외에도 활미(闊眉)라고 하는 넓은 눈썹 또한 즐겨 그렸는데, 광미(廣眉) 혹은 대미(大眉)라 칭하였다. 이러한 기풍은 먼저 장안성내로부터 시작하여 후에 각지로 퍼졌다고 한다.

사승(謝承)의 『후한서(後漢書)』에는, “성안에서는 넓은 눈썹을 좋아하여 이마의 반을 차지한다(城中好廣眉, 四方且半額)”⁴¹⁾ 라고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나친 형태의 장미가 성행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표4> 한나라의 눈썹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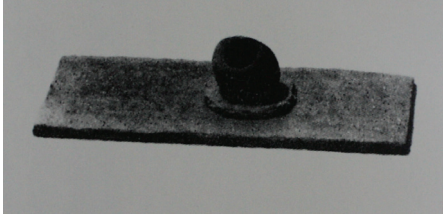
명 칭	눈 썹 형 태
팔자미	장미의 일종이며 눈썹머리 부분을 높이 올리고 눈썹 끝부분은 낮게 만들어 팔(八)자 모양이 되게 한다.
원산미	장미의 일종이며 가늘고 눈썹먹이 얇은 눈썹
활미	광미, 대미라고도 하며 장미보다 길고 넓은 형태의 눈썹
수미	팔자미와 비슷하고 장미의 일종이며 눈썹끝부분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다.

한나라 문화의 또 하나의 커다란 특징은 서역풍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일로서 2세기 후반 환제(桓帝)로부터 영제(靈帝)의 시대로 들어가면 호풍예찬(胡風禮讚)이라는 새로운 풍조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영제는 정치적으로

41) 『後漢書, 권24』, 마료전(馬廖傳)

는 우둔하였으나 서역의 문화예술을 좋아하여 서역풍을 광적으로 받아들여 수도 낙양에는 서역의 상인 등이 가져온 장식품과 복식이 범람하였다. 영제는 이들 서역문물을 스스로 애호하고 주위의 조정 신하에게도 장려했으므로 호풍은 중국 각지에 퍼지고 이제까지의 중국 고유문화와 융합하여 차시대인 위진남북조시대에 전개되는 새로운 동서융합 문화창출의 소지를 만들어 내었다.⁴²⁾ 그러나 한편 외래문화의 유행과 더불어 주대의 고례로 돌아가고자 하는 복고적인 움직임도 있었다.

42) 杉本正年, 문광회역, 前掲書, pp.151-152.



(그림13) 靑石黛硯
江西南昌東郊西漢墓出土



(그림14) 楚國의 長眉
하남신양장대관일호묘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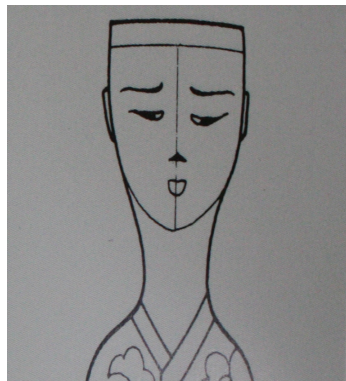
(그림15) 楚國 婦女의 眉式
호남장사초묘출토



(그림16) 戰國時代 舞戲의 눈썹양식



(그림17) 漢나라의 八字眉



(그림18) 西漢婦女의 八字眉
湖北雲夢大墳頭西漢墓 出土

3. 위진남북조시대 눈썹화장의 변화양상

220년 후한 멸망한 이후 수나라가 589년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의 약 370년의 시기를 위진남북조 시대라 한다. 후한(後漢) 헌제(獻帝)의 선양(禪讓)을 이어받은 조비(曹丕)가 한나라를 이은 뒤 전후 400여년 계속되었던 한제국은 멸망하고 중국의 천하는 분열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이로부터 서진(西晉) 왕조가 멸망하기까지의 약 100년이 안되는 짧은 시기가 위진시대인데, 이 기간은 고대에서 중세로의 중국사의 전환기로서 정치적으로는 분란의 시기였으나 사회, 사상,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여러 민족이 섞이게 되고 문화적 융합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였다.⁴³⁾ 또한 중국 전반에 자유혁신의 풍조가 퍼지기 시작하였으나 화장, 복식에 있어서 기본적인 양식은 여전히 한나라의 제도를 이어받았다, 한나라 때에 만들어진 호풍의 화장이 이어져 부인의 화장법에 분장이 유행하게 되었으며 이시기에는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분장을 하였다.⁴⁴⁾

위진남북조시기는 눈썹을 그리는 풍속이 더욱 성행하였다. 이 시기는 기본적으로 한 대의 구습을 계승하였는데, 여자들의 눈썹화장 또한 그러하여서 여전히 긴 눈썹을 선호하였다.

남조(南朝)당시의 눈썹화장으로 미대(眉黛)가 있었는데, 이는 눈썹위에 다시 눈썹을 그려서 모양을 닮은 것이다.

오균(吳均)의 여류휘상증답(與柳揮相贈答)이라는 시에서는, “가는 허리 넓은 소매 끌리고 윤기 도는 이마 긴 눈썹을 그리고” 라고 하였는데 (그림 19),(그림 20)에서와 같이 여인들의 가늘고 긴 눈썹양식은 남북조시대 뿐 아니라 수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여인의 사랑을 받았다.

위무제(魏武帝)였던 조조(曹操)는 궁인들에게 청대미(靑黛眉), 연두미(連頭

43) 유송옥 외2인, 『복식문화』(교문사, 1999), p.69.

44) 杉本正年, 문광희역, 『동양복장사논고-중세편』(경춘사, 1997), p.28.

眉)를 그리게 하였는데, 한 번에 가늘고 길게 그림으로 그려 그것을 선아장(仙娥妝)이라 하였고 제(齊)와 양(梁) 사이의 지역에서 많이 퍼졌다고 하며 양무제(梁武帝) 또한 궁인들에게 백장(白粧)과 청대미를 하도록 명하였다.

연두미에 관한 기록으로는 송(宋) 섭정규(葉廷珪)의 『해록쇄사(海錄碎事) 성현인사부상(聖賢人事部上·부인문(婦人門))』(四庫全提要·子·類書類)에 의하면, “미간까지 연결하여 가늘고 길게 그리는데 이를 연두미라하고 선아장이라고도 부른다(一畫連心細長, 謂之連頭眉, 又曰仙娥妝, 漢武帝故事)”라고 하였다.

청대(靑黛)는 눈썹을 그리는 청흑색의 안료, 즉 인디고(Indigo:남색물감)이다. 이시진(李時珍: 1518-1593)의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는, “청대는 페르시아에서 왔는데 지금은 태원 및 노릉·암강 등지에서 염료를 담은 동이에 자색·푸른색 염료를 묻혀 사용하였다(靑黛從波斯國來, 今以太原并廬陵·南康等處染澱上沫紫碧色者用之)”라고 하였으며, 『중화고금주(中華古今注)』에서는, “양천감 연간에 무제는 궁녀들에게 명령하여…백장 청대미를 만들게 하였다(梁天監中, 武帝詔宮人, … 作白粧靑黛眉)”라고 하였다.

이백(李白)은 『술을 대하고(對酒)』에서, “푸른 눈썹먹으로 눈썹을 그렸고 비단신은 울긋불긋한데(靑黛畫眉 紅錦靴)”라고 하였다.

결국 여러 문헌과 유물을 통하여 고찰 하여 보면, 이 시기의 눈썹 양식은 넓게 그리는 기법도 있었지만 주로 유행 하였던 눈썹양식은 장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수(隋)·당(唐)시대 눈썹화장의 변화양식

후한이 멸망한 이후 중국의 분열시대는 수(隋)에 의해 통일 되었다. 그러나 이 왕조는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한 진(秦)왕조와 마찬가지로 30여년의 단명으로 끝났다. 수조를 세운 양견(楊堅:文帝)은 섬서성(陝西省) 출신의 선비계의 말족(末族)으로 북조(北朝) 북주(北周)의 실력자였다.

수나라 여자들은 비교적 소박하여 위진남북조와 같이 많은 변화도 없었고 당대처럼 다채롭지도 않았다. 일반부녀자들에게는 화장을 못하게 하는 법적 제한이 있어서 주로 궁녀들만 화장을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궁중의 화려한 눈썹화장은 민간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⁴⁵⁾.

수나라가 대업을 이룬 시기에 양제(煬帝)는 호색하여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애석해하지 않고 이란(波斯國)에서 대량의 나대(螺黛)를 수입하여 한 과(顆)의 가치가 십금(十金)이나 하였는데 후궁들과 비빈(妃嬪)들에게 나누어 주고 눈썹을 그리게 하였다. 또 안사고(顏師古)의 수유록(隋遺錄)에는, 양제가 강도를 순행할 당시 큰 배 용주봉가(龍舟鳳舸)를 만들어 모든 배에는 아름다운 여자 천명을 택하여 그들에게 노를 젓게 하였는데 그중 오강선(吳絳仙)이란 여자는 눈썹을 길게 그리고 양제의 총애를 받았다고 한다. 후에 이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이를 본받아 마침내 자신들의 급료 모두를 투자하여도 쓰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이러한 눈썹화장의 행위가 성행하였다.⁴⁶⁾

중국눈썹양식의 세 번째 전성기는 당대(唐代)이다.

당(唐)은 618년 건국되었는데, 정치 군사적 통일과 안정 속에서 정관의 치(貞觀의 治)같은 중국역사에서는 가장 평화롭고 번영했던 성세(盛世)를 이루었는데 장기간 지속된 성세속에서 문화가 발달될 수 있는 당대특유의 사

45) 李秀蓮, 前掲書, p.45

46) 周汛·高春明, 前掲書, p.125

회·경제조건과 환경이 잉태되었다. 각 도시에는 수공업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우수한 품질의 공산품을 대량으로 생산했으며 정치의 안정과 함께 교통의 발달로 상업이 발달했으며 국제무역이 활발하였다. 또 사회, 경제적 발달은 도시의 발전과 번영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생활은 부유하고 윤택하였으므로 문학, 음악, 회화, 건축 등의 각종 예술과 문학의 발달을 촉진시켰는데 이것은 당대 문화발달의 폭넓은 기반이 되었다.

또 당은 중국 역사상, 외교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당의 정치이념은 개방적이었고 한족(漢族)이외의 이민족에게도 관대한 정책을 표방하였다. 이에 당은 축전무후 때에 북정도호부(北庭都護府)를 두어 중앙아시아 유목민을 지배하고 서역의 교통로를 확보하였으므로 당시 인도와 페르시아문화가 당에 많이 유입되어 당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하여 당 문화는 한 대에 이룩한 중국고전문화를 기반으로 남북조시대의 귀족문화, 불교문화 그리고 당대에 서역, 인도, 페르시아로부터 유입된 외래문화를 수용 동화되어 국제적 색채가 풍부한 귀족문화가 형성되었다. 당조의 영토 확장으로 인하여 국경이라는 장벽이 허물어짐에 따라 세계제국과의 교류는 더욱 활발하고 긴밀해졌다. 이에 따라 활발하게 이루어진 당대 외래문화의 유입은 호풍이라고 하여 유행의 차원에서 받아들였다.

이와 같이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화장을 시작, 발달시킨 서역이나 주변의 화장품 및 화장문화를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국토의 신장을 통해 쉽게 수용하게 되어 당대 화장문화를 진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약 300년간 유지되었던 당 왕조는 중국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자유분방한 시기였다.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달랐던 궁중 여인, 상류계급의 부녀, 일반 부녀, 기녀간의 화장행위는 시대·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구별이 있었다. 고급 창기는 하나의 사회적 제도가 되었고 수도에서나 지방에서나 품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 이었다. 기녀제도의 활

성화는 당대화장품 발달과 보급에 한편 기여하기도 하였고 화려하고 괴이하기까지 한 무수한 화장기법의 연출에 한 요인이 되었다.⁴⁷⁾

문학, 미술 등 당대의 문화는 당시를 구분하는 초당(初唐), 성당(盛唐), 중당(中唐), 만당(晩唐)의 4期에 준하여 설명된다.

당대는 부녀자 눈썹화장 양식에 있어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1,000-2,000여종의 눈썹을 그리는 새로운 양식을 창출해 내었다.⁴⁸⁾ <표5>는 당나라의 눈썹양식을 나타낸 것이며, 당대 부녀자들의 눈썹형태 및 변천과정은 <표6>에서 그 형태의 변화와 특성을 알 수 있다. 눈썹의 길이, 굵기, 짙고 옅음 등의 다양한 형태와 명칭 또한 시대적 취향과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당대에 들어와 눈썹양식의 큰 변화는 당대 이전에 비하여 약간 넓고 굵어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당대 부녀자들의 눈썹양식은 어떤 때는 긴 눈썹이 유행하기도 하였지만 형태가 누에나방 촉수와 같은 긴 눈썹보다는 일반적으로 버드나무 잎과 같이 그려 ‘유미(柳眉)’ 혹은 ‘유엽미(柳葉眉)’라고 하였다. 그 형태는 (그림21)에서 보면 잘 나타나고 있으며 <표6> 1번의 정관년간(貞觀年間)의 눈썹형태와 모양이 비슷하다. 눈썹은 버들잎과 같이 그리면서 팔자미를 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눈썹을 강조하지 않고 눈 꼬리 부분을 올려 그리고 있다.

唐 왕연(王衍)의 『감주곡(甘州曲)』에서, “버들눈썹 복사꽃 같은 얼굴이 봄을 이기지 못하네(柳眉桃臉不勝春)”라고 하였다. 이러한 유미(柳眉)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그림22)와 같이 약간 넓고 더 구부러지게 묘사된 눈썹양식인데, 그 구부러진 형태가 마치 초승달과 같아서 이름이 ‘월미(月眉)’. 혹은 ‘각월미(却月眉)’라고 한다. 이는 <표6>의 16번 만당(晩唐)의 눈썹형태와 비슷한데 (그림21)의 여인의 눈 형태보다는 크기가 좀 더 크고 선명하게

47) 박보영, 前掲書, pp. 105-106.

48) 김영미·박영은·김영일, “중국인물화에 나타난 화장기법”, 한국인체예술학회지 2권1호, 2001, pp.31-32.

표현되었으며 눈 꼬리 부분은 침예하게 그리되 많이 올려 그리지 않았다.

여러 눈썹양식이 나타나다가 전한시대의 팔자미가 다시 당 현종 원화년간(元和年間)에 새롭게 유행하였다. 이러한 팔자미는 (그림23)에서 보여지는데, <표6>의 13번 천보-원화초년의 눈썹형태와 비슷하다. 한 대에 처음 팔자미가 그려지기 시작하였으며, 한 대의 팔자미 보다 더 넓고 상당히 완곡하며 ‘팔(八)’자의 형상에 아주 가깝다. 이러한 양식은 원래 서한시기의 눈썹양식으로 중당시기에 이르러 다시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어 궁중은 물론 민간에 까지 모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유행되었으며 ‘원화시기 세상의 화장(元和時世粧)’⁴⁹⁾이라고 하였다.

이상은(李商隱)의 『나비3수(蝶三首)』⁵⁰⁾에서, “수양공주가 시집갈 때의 몸치장이란 여덟팔자의 궁미와 이마의 누런 화장을 받들다(壽陽公主嫁時妝, 八字宮眉捧額黃)”라고 하였으며, 백거이의 『지금 유행하는 화장(時世粧)』⁵¹⁾에서, “두 눈썹을 그리니 팔자 모양으로 처졌네(雙眉畫作八字低)”라고 하였으며, 장소원(張蕭遠)의 『도시로 들어가는 궁녀를 전송하며(送宮人入道)』⁵²⁾에서는, “옥 같은 손으로 아름답게 팔자 눈썹을 그리네(玉指休勻八字眉)”라고 하였다. 이러한 시들은 모두 팔자 눈썹을 묘사한 것이다.

눈썹을 그리기 전에 여자들은 처음에 자연의 눈썹을 면도하였고 그 다음에 그리기 위해서 시커멓게 태운 말채나무(버드나무의 일종)로부터 만들어진 청흑안료를 사용하였다. 이것을 ‘대미(黛眉)’라고 불렀다. 당의 여인들이 만들어 낸 모양은 가느다란 아름다운 눈썹에서부터 넓고 큰 눈썹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다양하였다.⁵³⁾

당나라 현종은 눈썹화장에 관한 애착이 심하여 부녀자들의 눈썹화장을 중

49) 박보영, 前掲書, p.53.

50) 『전당사권539』, p.6165.

51) 『전당사권427』, p.4705.

52) 『전당사권491』, p.5554.

53) Zhou Xun, Gao Chunming, *5000 years of chinese costumes*, p.149

시하였던 것은 수나라 양제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었다고 한다.

당 현종(玄宗)은 일찍이 화공에게 명하여 십미도(十眉圖)를 그리도록 하였다. 당대 장필의 『장대기(粧臺記)』에 의하면, “명황이 촉 지방에 행차하여 화공에게 명하여 십미도를 만들게 하였는데 횡운·사월 같은 것이 모두 그 이름이다(明皇幸蜀, 令畫工作十眉圖, 如橫雲·斜月皆 其名也.)”라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명칭은 바로 원앙미(鴛鴦眉)·소산미(小山眉)·오악미(五嶽眉)·삼봉미(三峰眉)·수주미(垂珠眉)·월능미(月稜眉) 혹은 각월미(却月眉) 문초미(分稍眉)·함연미(涵煙眉)·불운미(拂雲眉) 혹은 횡연미(橫煙眉)·도운미(倒暈眉)이다.⁵⁴⁾이에 궁녀들은 이를 토대로 눈썹을 화장하였다. 두목(杜牧)은 『규방의 정서(閨情)』에서, “아름답도다 각월미여(娟娟却月眉)”라고 하였고, 후에 소식은 『미자석연가(眉子石硯歌)』의 시에서,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성도의 화가들이 그린 열 가지 눈썹을, 횡운미·각월미가 신기함을 다투네(君不見成都畫手開十眉, 橫雲却月爭新奇)”라고 하였다.

성당(盛唐)시대에는 아미(蛾眉)라고 부르는 가늘고 긴 눈썹이 유행했다. 아미는 누에나방 촉수처럼 가늘고 아름답게 그린 눈썹을 말하며, 당 정원(貞元)때부터는 ‘대(黛)’로 그린 눈썹을 말했다.

이백의 『원망(怨情)』⁵⁵⁾에서, “미녀는 주렴을 젖히고는 오랫동안 앉아 눈썹을 찌푸리네(美人捲珠簾, 深坐顰蛾眉)”라고 하였고, 조당(曹唐)의 『소유선시(小遊仙時)』⁵⁶⁾에서, “구천의 서왕모가 눈썹을 찌푸리니(九天王母顰蛾眉)”라고 하였다. 또한 사공도(司空圖:837-908)는 『유선(遊仙)』⁵⁷⁾에서, “눈썹을 새로 그리니 아름다움을 느끼겠네(蛾眉新畫覺禪娟)”라고 하였다. 또한 백거이는 『장한가(長恨歌)』⁵⁸⁾에서, “미인은 애절하게 말 앞에서 죽었네(宛轉

54) 십미의 명칭은 송대 섭정규의 『해록쇄사(海錄碎事)』와 명대 왕세정(王世貞:1526-1590)의 『엄주산인고(弇州山人稿)』에 있다.

55) 『전당시·권184』, p.1882.

56) 『전당시·권641』, p.7352.

57) 『전당시·권634』, p.7274.

58) 『전당시·권435』, p.4819.

蛾眉馬前死)”라고 하였다. 백거이의 『上陽白髮人』⁵⁹⁾에서도, “푸른 눈썹먹으로 그린 눈썹 가늘고 길다(靑黛點眉眉細長)”이라고 하였다. 이상은의 『무제(無題)』⁶⁰⁾라는 시에서는, “가는 눈썹에 근심을 보는 듯하네(眉細恨分明)”이라고 하였다.

활미(闊眉)는 당대 부녀자들의 주된 눈썹양식이었다. 이 활미 혹은 광미는 개원(開元)·천보(天寶)이후 다시금 유행하였다. 조왕(趙王)의 『관기시(觀妓詩)』에는, “성안에서는 넓은 눈썹을 그리네(城中好廣眉)”, 심전기(沈佺期)의 『이원외진원택관기(李員外秦援宅觀妓)』에서는, “가벼운 머리를 더부룩하게 빗질하고 넓게 눈썹을 그리네(輕鬢叢梳闊掃眉)”라고 하였으며, 온정균(溫庭筠)의 『남가자(南歌子)』에서는, “짙은 녹색이 눈썹을 어지럽히네(凝翠暈蛾眉)”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구절은 당시 넓은 눈썹을 숭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대 초기의 활미는 일반적으로 모두 길게 그리는 것이었고 아주 길게 그려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하는 느낌을 주었다. 눈썹변화의 과정을 볼 때 당 초기의 유행은 짙고 넓고 길었으며, 기법 변화가 다양하다. 특히 눈썹머리가 넓었다. 눈썹 앞과 뒤가 똑같이 넓기도 하였으며 혹은 길고 얇으며 양쪽의 눈썹이 만나기도 하였다. 눈썹의 허리가 두껍고 양쪽은 얇고 긴 기법 등 특수하고 이상한 형태의 눈썹 양식의 변화가 무궁하다. (그림24),(그림25),(그림26),(그림27),(그림28),(그림29)는 다양한 활미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성당말기에 짧은 관미(寬眉)가 나타났는데, 이중 계엽미(桂葉眉)가 유행하였다. 이러한 계엽미의 형태는 (그림30)에서 잘 나타나는데, 이것은 <표6>의 14번 정원 말년의 눈썹형태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30)의 부녀자는 눈썹이 풍성하며 눈썹의 형태가 짧고 넓다.

그림을 보면 머리 형태 및 복식이 화려해짐에 따라 눈썹이 짧게 표현되었

59) 『전당시·권426』, p.4692.

60) 『전당시·권539』, p.6164.

고 굵게 강조하는 반면 눈의 선은 길고 얇게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표5> 당나라의 눈썹양식

명 칭	눈 썹 형 태
유미(柳眉)	유엽미(柳葉眉)라고도 하며, 버들잎과 같이 그리되 눈썹을 강조하지 않고 눈꼬리 부분을 올려서 그린다.
월미(月眉)	각월미(却月眉)라고도 하며, 유미보다 더 넓고 초승달의 모양과 같이 더 구부러지게 그린다.
아미(蛾眉)	누에나방 촉수처럼 가늘고 길게 그린다.
팔자미(八字眉)	서한시대의 팔자 형태 보다 더욱 넓고 완곡하게, 팔(八)자의 형상에 가깝게 그린다.
활미(闊眉)	당대 부녀자들의 일반적인 눈썹형태, 사람들의 눈에 확실하게 떨어 수 있게 길고 넓으며 아주 짙게 그린다.

<표6> 당대부녀 눈썹양식의 변화⁶¹⁾

NO	연 대		도 례	출전재료	눈썹명칭
	원호	서역			
1	貞觀年間	627-649		염립본<보련도>	柳眉 (柳葉眉)
2	麟德元年	664		예천정인태묘출토도용	闊眉
3	總章元年	668		서안양두진이묘 출토벽화	闊眉
4	垂拱四年	688		토로번,아스타나 장용처묘출토도용	闊眉
5	如意元年	692		장안현남리옥촌위동묘 출토벽화	闊眉
6	萬歲登封 元年	696		태원남고금승촌묘 출토벽화	闊眉
7	長安二年	702		토로번, 아스타나 장례거묘출토건화	闊眉
8	神龍二年	706		건현수덕태자묘 출토벽화	闊眉
9	景雲元年	710		성양저장당묘 출토벽화	闊眉
10	先天二年- 開元二年	713- 714		토로번,아스타나 당묘출토건화	闊眉
11	天寶三年	744		토로번,아스타나 당묘출토건화	闊眉
12	天寶十一 年後	752년후		장훤<호국부인유춘도>	柳眉
13	約天寶- 元和初年	約742- 806		주방<환견사여도>	八字眉
14	約貞元末 年	約803		주방<잠화사여도>	桂葉眉
15	晚唐	約828- 907		돈황막고굴130굴벽화	闊眉
16	晚唐	約828- 907		돈황막고굴192굴벽화	月眉 (却月眉)

61) 周汛·高春明, 前掲書, p.131.



(그림19) 魏晉南北朝時代의 長眉
고개지<女史箴圖>局部



(그림20) 長眉의 仕女
河南省南北朝墓出土壁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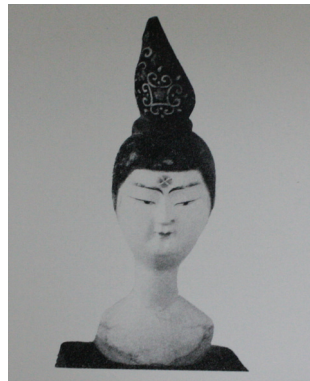
(그림21) 唐朝婦女子의 柳眉
唐 閻立本<步輦圖>局部



(그림22) 唐代 婦女子의 却月眉
돈황막고굴192굴벽화



(그림23) 中晚唐 婦女子의 八字眉
唐 周昉<紈肩仕女圖>



(그림24) 唐代 婦女子, 新疆吐魯番阿斯
塔那唐張雄夫婦墓出土泥俑



(그림25) 唐代婦女， 新疆吐魯番阿斯
塔那唐墓出土彩繪陶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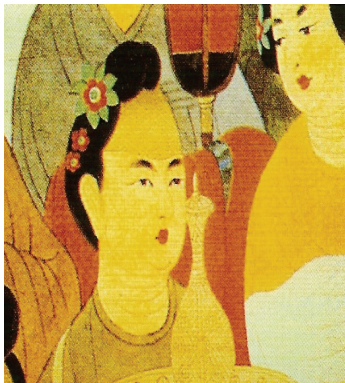
(그림26) 唐代婦女， 新疆吐魯番阿斯
塔那唐墓張禮新墓出土屏風絹畫



(그림27) 晚唐五代婦女， 敦煌莫高窟
130窟供養人壁畫



(그림28) 唐代 婦女， 新疆吐魯番唐墓
出土〈弈棋士女圖〉局部



(그림29) 唐代婦女， 甘肅敦煌莫高窟
130窟唐代壁畫



(그림30) 晚唐婦女 桂葉眉
周昉 〈簪花仕女圖〉

5. 송(宋)·원(元)시대 눈썹화장의 변화양식

송나라 시대는 서기 960년에 건립되었고 1279년에 원나라에 의해 멸망하였다. 서기 1127년, 금나라로 휘제(徽帝), 흠제(欽帝) 두 황제 및 종실 비빈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정강의 치욕(靖康之辱)을 기점으로 두 시기, 북송과 남송으로 나뉜다. 송대는 외적으로 요(遼)와 금(金)의 압박에 시달리던 문약한 국가이다. 경제적으로는 강남농법의 발전으로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가 확립되었다. 송대의 통치사상은 이학이었으며, “사람의 욕망을 없애고 천리를 따른다(法人欲存天理)”는 주장으로 통치계급은 봉건질서를 유지 보호하기 위하여 여인들을 엄격히 속박했다. 당시 회화·시 등의 문학작품에도 간결하고 평범한 형식으로 여성의 의용장식(衣容粧飾)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미의식은 화려함을 배제시킨 단아한 풍격(風格)을 숭상, 표현한 것이다. 송대문화는 당대문화가 외래문화에 대해 개방적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외부세계의 문화에 대해 다분히 폐쇄적이었고 중국 고유의 문화적 전통에 젖어들면서 이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경향이 짙었다. 당대의 농염하고 화려한 색채의 반동으로 고요, 간단, 소박, 청결, 자연미가 강조되었으며 소박하고 서민적인 성격과 사대부 문화가 주류를 이루었다.

원나라(1271-1368)는 중국본토를 중심으로 거의 동아시아 전역을 지배한 몽골족의 왕국으로 최초의 정복 왕족이다. 징기스칸(成吉思汗:Genghis Khan)의 손자인 쿠빌라이칸(忽必烈:Khubilai Khan)은 『역경(易經)』의 대재건원(大哉乾元)을 따서 국호를 대원(大元)이라 하고 남송을 평정하여 중국전토를 영유하게 되어 동아시아 전역의 대제국이 되었다. 원나라는 서방의 한국(汗國)들(킵차크·차가타이·오고타이·일한국 등)과 끊임없이 전쟁하였으나 1301년 카이두(Khaidu)가 사망함으로써 아시아 전역에 ‘몽골족 지배하의 평화’가 찾아와 동·서의 문물이 자유롭게 되어 국제무역이 번창하였다. 그러나 원나라

내부의 국정이 해이해지기 시작하여 권신들이 정쟁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한족(漢族)에 의한 민족적 반란으로까지 발전하여 주원장(朱元璋:洪武帝)에 의한 명조(明朝) 정권이 출현하였다.

송·원시기의 눈썹양식은 비록 당대처럼 풍부하지는 않으나 여전히 적지 않게 변화하고 있다. 미대의 재료로 송대(宋代)에는 색이 선명하고 섬세하며 사용이 편리한 연묵이 발명되어 당대(唐代)의 나대(螺黛)의 대(代)를 잇게 되었다. 눈썹기법은 먼저 눈썹을 제모한 후 그 위에 묵으로 원하는 형태의 눈썹을 자유자재로 그렸다.

송인의 『청이록(淸異錄)』을 보면, “당시에 영저(瑩姐) 기생이 있었는데 혼자서 거의 100여종의 눈썹양식을 발명하여 100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돌아가며 그렸는데 한 번도 중복되는 경우가 없었다(當時有個名叫瑩姐的妓女, 一人就發明了近百種眉式, 百日之內日換一種無一重複)”라고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눈썹양식은 많이 유실되고 현재는 단지 겨우 남아 있는 그림 자료 속에서 약간의 흔적이 있을 뿐이다. 송대의 남훈전(南薰殿)에 오랫동안 소장되어 있던 『역대제후상(歷代帝后像)』 중의 부녀의 눈썹양식은 그 특징이 있는데, 황후이든 궁녀이든 간에 미대는 모두 두께가 넓은 달 모양의 곡선과 넓은 눈썹 그리고 양쪽 눈썹이 끊어지지 않고 짙었다가 점점 옅어지며 바깥쪽으로 퍼지면서 흑색이 점점 없어지는 형태로 우아한 자태가 돋보이는 양식이다. 또한 눈썹사이가 매우 좁아 보이게 하여 콧대가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화장한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림31)의 도훈장(倒暈粧)은 이러한 장식을 의미한다⁶²⁾. 도훈미 외에도 각월미 같은 눈썹방식이 당대의 풍습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또한 팔자미, 원산미는 위진남북조시대를 거쳐 수당오대에 이어 송조까지 여전히 유행하였다. (그림32),(그림33),(그림34)는 송대 부녀의 여러 가지 눈썹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62) 周汛·高春明, 前揭書, p.127

원대의 눈썹양식 또한 상당히 특색이 있었다. 당시 사람마다 미에 대한 관심은 눈썹의 형태에 잘 나타내었다. (그림35)에서 보여주는 눈썹의 방식은 일(一)자 눈썹양식으로 가늘고 길지도 얇으면서 평평하고 가지런하게 그려져 있는데 자를 사용하여 그려서 그 형태가 한결 같았다. (그림36)은 원대 부녀의 눈썹양식이다.



(그림31) 宋朝 婦女의 倒暈粧
南薰殿舊藏<歷代帝后像>



(그림32) 宋朝 皇后
南薰殿舊藏<歷代帝后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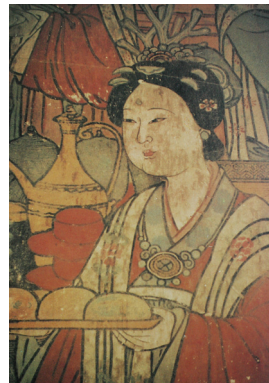
(그림33) 宋朝시대의 처진 눈썹
北宋河南白沙二號宋墓壁畫



(그림34) 北宋의 婦女, 山西晉祠聖母
殿彩塑宮女



(그림35) 元代婦女의 一字眉
南薰殿舊藏<歷代帝后像>



(그림36) 元代 婦女, 山西洪洞廣勝寺明
應王殿壁畫

6. 명(明)·청(靑)시대 눈썹화장의 변화양식

주원장이 1368년에 명(明)을 건립하여 한족(漢族)이 실권을 잡자 원대(元代)에 행해졌던 언어·풍습·복식 등을 모두 금하고 순수한 한족의 문화를 정착시켜 한(漢), 당(唐), 송(宋)을 능가하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따라서 명대에는 중화사상이 절정에 달하였고 전통적인 한족문화가 소생하였다. 명나라의 문화정책은 처음에는 복고국수주의·몽골색 불식에 힘을 기울였으나 뒤에는 경제발달, 서민생활의 향상, 도시의 번영, 교육의 보급에 따라 대중적 색채가 짙어졌다. 또한 유럽의 과학사조가 들어와 그 영향도 많이 받았다. 서양문화의 전래로 중국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양명학의 변화로 실질적 학문이 발달하였다. 명대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호화로우며 아름다운 것을 숭상하였지만 복식이나 화장문화에 있어서는 다소 엄격한 통제를 가하였다.

청대는 만주족이 설립한 왕조로 건립 초기에는 한족 진압정책을 강경하게 실시하였다. 따라서 의복이나 두식 또한 한족의 양식을 금지하였으며 만주족의 양식대로 바꾸도록 하였다. 이 시기는 한족과 만주족이 혼거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새로운 형태와 양식이 생겨났으며 서양문물의 도입으로 인하여 문화적으로 서양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다.⁶³⁾

명·청 이래 여성 예교(禮敎)의 구속이 엄격하여 당시의 여성에게는 “절제하는 열녀(禮婦烈女)”, “길을 걸을 때는 온중하게 고개를 숙여 앞을 향해 걸어야 한다(行步穩重 低首向前)”, “밖으로는 단속하고 안에서는 청결해야 한다(外檢束 內靜修)”는 등의 규범화된 행위가 요구 되었다. 또한 여자들은 말을 한번 하면 실천해야하고 언동에 따른 강한 규제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 시기의 색조화장의 특징은 인위적이고 화려한 화장기법을 피하고 순수함과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여 그동안 성행하였던 붉은 화장은 차츰 소멸 하

63) 유송옥 외2인, 『복식문화』(교문사, 1997), p.79.

였으며 청나라에 이르러 여학당이 크게 성행하면서 더욱 쇠퇴하였다.

명·청대의 눈썹양식은 섬세하고 곡선적이어서 수려한 기풍의 여성미를 갖추었다. 명·청시기의 부녀자들은 뛰어나게 아름다운(秀美) 것을 숭상하여 눈썹털이 많게 그리고 또한 섬세하고 가늘며 완곡하게 그렸으며 장단(長短)과 심천(深淺) 등의 기교변화는 차츰 감소하였다. (그림37)에서 (그림46)까지는 명·청시대의 눈썹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47)과 (그림48)은 북경의 고궁 박물관에 소장된 청나라 제후의 그림인데 대부분 후비(后妃)가 이러한 화장을 하였으며 이것은 곧 당시의 풍습을 반영한다. 그러나 특수층 여자들 사이에는 만주족의 화장술이 성행⁶⁴⁾하였는데, 눈썹은 먹으로 진하게 그렸다.

당대이후 눈썹화장양식은 한대나 당대와 같이 풍성한 시대는 없었지만 일단 성행한 것은 쇠퇴하지는 않았고 그 시대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변화되었다.

64) 李秀蓮, 前掲書, p.98.



(그림37) 明朝婦女子의 눈썹
明人<縫衣圖>局部



(그림38) 明朝婦女子의 눈썹양식
明人唐寅<嫦娥奔月圖>局部



(그림39) 明朝婦女子의 秀美장식
明末沈士鯁<采桑圖>



(그림40) 秀美의 明朝 婦女子
<六十仕女圖>局部



(그림41) 明朝帝后의 눈썹
南薰殿舊藏<歷代帝后像>



(그림42) 明代貴婦
明人<朱夫人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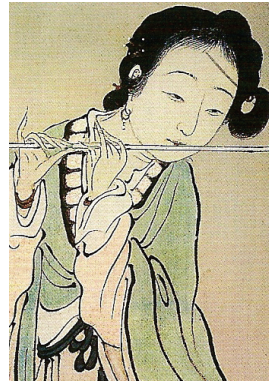
(그림43) 明·清朝의 曲眉



(그림44) 清朝 婦女



(그림45) 清朝 婦女의 眉式
清人<胤禎妃行樂圖屏>局部



(그림46) 清少女의 눈썹



(그림47) 清代皇后, 北京故宮博物院藏
<清代帝后像>



(그림48) 清朝의 太后
北京故宮博物院藏<慈禧寫眞像>

IV. 결 론

본 논문은 화장행위에 관한 문헌기록이 나타나는 중국의 선진시대부터 진·한시대, 수·당시대, 송·원시대, 명·청시대까지의 중국 여성 눈썹화장의 시대·문화적 배경에 따른 특성을 문헌자료, 회화 및 유물자료의 분석을 통해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황하유역을 중심으로 고대국가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선진시대에 눈썹을 그리는 풍습은 주왕조(周王朝)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선진시대의 중국인들은 유물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장미(長眉:긴 눈썹)를 그리고 눈썹을 인위적으로 굵고 진하게 치장한 흔적이 보인다. 눈썹을 그리는 방식은 눈썹을 깨끗하게 없앤 후 원래의 눈썹 위치에 원하는 눈썹 형태를 만들었다. 중국 여성들의 눈썹화장의 기초가 이미 선진시대에 마련되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2. 진나라가 통일한 이후부터 동한이 멸망할 때까지를 진한시대라 일컫는다. 한나라는 대부분 옛것을 따르면서 동시에 다른 민족과의 교역을 통하여 서역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사회풍속의 변화를 이루어갔다.

사회풍조가 만연한 한 대에는 귀족이 유행을 주도하였으며 특히 다양한 형태의 눈썹화장이 성행하였다. 이 시대의 특징으로 장미(長眉)를 근간으로 하는 원산대(遠山黛), 팔자미(八字眉), 활미(闊眉), 수미(愁眉) 등이 나타난다.

서양의 영향을 받은 한 대의 사회문화적 영향은 남북조시대의 동서융합 문화창출의 소지를 제공한다.

3. 위진시대는 고대에서 중세로의 중국사의 전환기로서 정치적으로는 분란의 시기였으나 사회, 사상,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여러 민족이 섞이게 되고 문화적 융합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였으며, 중국 전반에 자유혁신 풍조가 퍼지기 시작하였으나 기본적으로 한 대의 구습을 계승하였다. 남북조

시대의 눈썹화장도 여전히 장미(長眉)가 유행하였으며, 청대미(靑黛眉)와 연두미(連頭眉)도 성행하였다.

4. 수나라 여자들은 비교적 소박하여 위진남북조와 같이 많은 변화도 없었고 당대처럼 다채롭지도 않았다. 일반부녀자들에게는 화장을 못하게 하는 법적 제한이 있어서 주로 궁녀들만 화장을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궁중의 화려한 눈썹화장은 민간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눈썹양식은 눈썹을 섬세하고 길게 그렸다.

당나라는 위진남북조 시대의 오랜 분열을 수습하고 문화적으로도 통일을 이룩하여 중국적인 문화의 결실을 가져온 때이다. 당 문화는 한 대에 이룩한 중국고전문화를 기반으로 남북조시대의 귀족문화, 불교문화 그리고 당대에 서역, 인도, 페르시아로부터 유입된 외래문화를 수용·동화되어 국제적 색채가 풍부한 귀족문화가 형성되었다. 당조의 영토 확장으로 인하여 국경이라는 장벽이 허물어짐에 따라 세계제국과의 교류는 더욱 활발하고 긴밀해졌다. 당왕조는 중국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자유분방한 시기였다. 당대(唐代)는 눈썹화장의 전성기로 당대의 부녀자들은 눈썹화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눈썹의 길이, 굵기, 짙고 옅음 등에 따라 다양한 눈썹형태와 명칭이 나타났으며 이는 또한 시대적 취향과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당대에는 유미(柳眉), 월미(月眉), 팔자미(八字眉), 아미(蛾眉), 활미(闊眉), 계엽미(桂葉眉) 등이 유행하였으며 형태는 당대이전 보다 넓고 굵어졌다.

5. 송대문화는 당대문화가 외래문화에 대해 개방적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외부세계의 문화에 대해 다분히 폐쇄적이었고 중국 고유의 문화적 전통에 젖어들면서 이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경향이 짙었다. 송대에는 간단, 소박, 청결, 자연미가 강조되었으며 소박하고 서민적인 성격과 사대부 문화가 주류를 이루었다. 송·원시기의 눈썹양식은 당대처럼 풍부하지는 않으나 여전히 변화하였다. 눈썹양식의 특징은 미대는 모두 두께가 넓은 달 모양이며

깊고 얇게 점점 외부로 퍼져 나가게 하여 우아하게 보이며 또한 눈썹사이를 좁게 하여 콧대가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하였다.

원대의 눈썹양식은 모두 일(一)자 눈썹형태로 가늘고 길지도 얇으면서도 평평하고 가지런하게 그려져 있는데 자를 사용하여 그려서 그 형태가 한결 같았다. 이것은 몽골 귀족 부녀자 특유의 눈썹양식이다.

6. 명대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호화로우며 아름다운 것을 숭상하였지만 복식이나 화장문화에 있어서는 다소 엄격한 통제를 가하였다.

청대는 만주족이 설립한 왕조로 건립 초기에는 한족 진압정책을 강경하게 실시하였다. 이 시기는 한족과 만주족이 혼거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새로운 형태와 양식이 생겨났으며 서양문물의 도입으로 인하여 문화적으로 서양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다.

이 시기의 색조화장의 특징은 인위적이고 화려한 화장기법을 피하고 순수함과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였다. 명·청대의 눈썹양식은 섬세하고 곡선적이어서 수려한 기풍의 여성미를 갖추었다. 눈썹화장은 대부분 섬세하고 가늘며 완곡하게 그렸으며 길고 짧거나 짙거나 옅거나 등의 기교변화는 감소하였다.

7.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 종교, 철학사상 등의 문화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눈썹화장의 양식이 변화하게 되었으며, 그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역대 눈썹양식에는 매우 많은 명칭이 나타나는데 특수한 양식도 있기는 하였지만, 주로 눈썹의 길이, 눈썹의 굵기, 굴곡의 정도, 짙고 옅음의 정도, 그리는 위치에 따라 눈썹양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의 눈썹화장 양식은 선진시대의 장미를 기본으로 하여 팔자미, 수미, 아미, 활미 등으로 다양하게 변형되어 나타난다. 또한, 눈썹화장의 전성기인 한(漢)무제, 수(隋)양제, 당(唐)현종 시기에는 다른 부분의 색조화장에 비교

해 눈썹화장이 편중되게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황제는, 눈썹화장의 원료수입과 화장기법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며, 또 남다른 애착으로 황후 뿐 아니라 궁녀들에게 까지도 눈썹화장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궁중에서부터 시작된 중국 눈썹양식은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8. 중국은 눈썹을 그리는 화장의 기법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눈썹양식이 다양하고 변화가 많았다. 이렇게 다양한 중국 여성의 눈썹양식을 고찰하는 것은 현대인의 눈썹화장이 인상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중국은 당대에 서역과의 교류가 활발하여 많은 화장문화가 중국으로 유입되었고 이것은 다시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되어 화장문화의 유사성을 보이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중국 여성의 눈썹화장에 관한 고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눈썹화장을 고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더 나아가 중국의 다양한 눈썹양식을 현대인의 얼굴이미지에 맞게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어 화장문화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강경화, 현대메이크업총론, APC(Artistic Publishing Company), 2003.
- 고정일, 한국세계대백과사전, 서울:동서문화, 1995.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인의 얼굴, 서울:도서출판 신유, 1994.
- 金學圭 역저, 新完譯詩經, 明文堂, 1985년 3월 재판
- 杉本正年, 문광희 역, 동양복장사논고-고대편-, 서울:경춘사, 1997.
- 杉本正年, 문광희 역, 동양복장사논고-중세편-, 서울:경춘사, 1997.
- 박용숙, 한국의 미학사상, 서울:일월서각, 1991.
- 변인석, 당대문화사총설, 서울:도서출판 한울, 1994.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소, 고대중국의 이해, 서울:지식산업사, 1996.
- 유송옥외 2인, 복식문화, 교문사, 1997.
- 이강렬, 가면의 민속학, 서울:경서원, 1986.
- 전완길, 한국화장문화사, 열화당, 1994.
- 정수일, 고대문명교류사, 서울:사계절, 2001.
- 조효순, 한국복식풍속사, 일지사, 1988.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5, 서울:웅진출판사, 1991.
- 華梅, 中國服飾史, 박성실·이수응 역, 서울:경춘사, 1992.
- 황정원, 화장품학, 서울:현문사, 1995.
-
- 김소현, 당시대의 호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박보영, 한국·중국·일본 여성의 색조화장 문화, 경희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7.
- 최해울, 몽골여자복식의 변천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1.

- 詩經，上海古籍出版社本
- 全唐詩(1-25冊)，北京：中華書局，1960.
- 後漢書，中華書局 標點校勘本
- 李時珍，本草綱目，臺灣商務印書館，1983.
- 劉熙，釋名，商務印書館叢書集成本，1939.
- 漢 伶玄，趙飛燕外傳，臺北：藝文印書館
- 西晉 崔豹，高今注，西部叢刊本
- 陳洞原，中國婦女生活史，臺灣商務印書館，1990년 臺九版
- 宋 葉廷珪，海錄碎事，上海古籍出版社，1991.
- 周迅·高春明，中國歷代婦女裝飾，上海：學林出版社，1998.
- 周迅·高春明，栗城延江 譯，女性服裝史，京都書院，1993.
- 李秀蓮，中國化粧史概設，中國紡織出版社，2000.
- 周錫保，中國古代服飾史，北京：中國戲劇出版社，1984.
- 沈從文，中國古代服飾研九，臺北：南天書局有限公司，1988.
- 國際美容造形 第3輯，上海科學普及出版社，1995.
- 胡永芳，閣樓上的 妝顰眉黛，重慶出版集團 重慶出版社，2004.
- 衣袖展風情-清宮服飾之旅，國立故宮博物院
- 高春明，中國服飾名物考，上海出版社，2001.
- Zhou Xun, Gao Chunming, *5000 Years of Chines Costumes*, Periodicals, 1996.

ABSTRACT

A Study on the Eyebrow Make-up of Chinese Women

Kim, Mi Kyoung

Major in Make-up & Special Make-up Effects

Graduate School of Art & Design

Sungshin Women ' s University

China received many make-up cultures such as manufacturing process of cosmetic and make-up style etc. easily by the influence of active exchange with surrounding nations early, and this Chinese developed make-up culture was propagated to Japan via Korea.

This study aimed at examine the feature for the change style of eyebrow make-up which is based on period background and cultural back-ground closely centering around eyebrow make-up out of make-up culture of China which is the center of Oriental make-up culture.

That created the base to be able to study the eyebrow make-up of our country and it became the momentum to illuminate the diverse eyebrow styles of China suitably for the face image of moderns again tried to give help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make-up culture.

So as to examine the change aspect of eyebrow make-up of

Chinese women closely, this study was studied with following contents and method.

In the chapter 1, goal, range and limit point of this study were presented. And, in the chapter 2, development and feature of make-up culture of China were examined as theoretical background, and role and meaning of eyebrow make-up which appeared in Chinese literature and eyebrow make-up to affect look image were studied.

In the chapter 3, so as to examine the feature about the change aspect of eyebrow make-up of Chinese women, eyebrow styles expressed in literature record, drawing and relic data etc. were studied by classifying the historical period of China into ancient time(Sunjin period, Jin·Han period) and middle age(Wijinnambookjo period, Soo·Dang period, Song·Won period, and Myoung·Chung period). In the chapter 4, conclusion was deduced by generalizing above study.

Style of eyebrow make-up changed by the background of culture history such as history, religion and philosophy thought etc., and it was showing the feature of the period well. In the eyebrow styles of Chinese women, many names appear. Then, except special case, change of eyebrow style appeared in accordance with length of eyebrow, thickness of eyebrow, degree of bends, degree of thickness and thinness, and drawing position.

Styles of eyebrow make-up of China appeared through diverse transformation such as Paljami, Soomi, Ami, and Whalmi

etc. on the basis of the long eyebrow of Sunjin period. In addition, as emperor's interest for eyebrow make-up was great in the periods of Han(Mooje), Soo(Yangje), and Dang(Hyunjong) which were the golden age of eyebrow make-up, it could be seen that it was prevalent more diversely and gorgeously in comparison with the shade make-up of other part and that eyebrow make-up was prevalent throughout China by starting from court.

In the future, this researcher tries to present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of modern beauty culture by offering eyebrow form to be suitable for the image and character of moderns through applying diverse eyebrow styles of Chinese women.